

한국목간학회

제 39회 정기발표회 자료집

❖ 일시 : 2023.4.8.(토) 13:30~17:30

❖ 장소 : 중앙대학교 203관 512호

❖ 주최 : 한국목간학회

일정

13:30~13:40	인사말	김병준(한국목간학회장)
13:40~14:40	차자표기법 '역상불역하 _{譯上不譯下} '가 신라에서 생성된 배경과 주체	백두현(경북대학교)
14:40~15:40	백제·신라 목간의 집계와 범례의 제안	오택현(동국대학교) 이재환(중앙대학교)
15:40~16:00	휴식	
16:00~17:30	운천동사적비의 역사 환경, 판독 교정	하일식(연세대학교)

목차

차자표기법 ‘역상불역하(譯上不譯下)’가신라에서 생성된 배경과 주체 백두현(경북대학교)	5
백제·신라 목간의 집계와 범례의 제안 오택현(동국대학교)·이재환(중앙대학교)	27
운천동사적비의 역사 환경, 판독 교정 하일식(연세대학교)	79

차자표기법 ‘역상불역하_{譯上不譯下}’가 신라에서 생성된 배경과 주체

백두현(경북대학교)

차자표기법 ‘역상불역하_{譯上不譯下}’가 신라에서 생성된 배경과 주체

백두현(경북대학교)

목차

1. 신라의 한문자 수용
2. 역상불역하의 특징과 생성 배경
 - 2.1. 역상불역하_{譯上不譯下}의 특징
 - 2.2. 역상불역하의 생성 시기
 - 2.3. 역상불역하의 생성 배경
 - 1) 음의가_{音義家} 학승_{學僧}의 불경 주석
 - 2) 문척_{文尺}의 존재와 문서화 작업
 - 3) 설총의 유교 경서 훈해_{訓解}
 - 4) 구송 가요인 향가의 창작과 문자화
 - 5) 언어와 문자 사용의 고유성
 - 6) 기타 신라 특유의 사회 제도 운영
3. 결론 : 역상불역하의 생성 주체와 창의적 변용

1. 신라의 한문자 수용

고대 삼국 중 신라의 한문자 유입과 정착이 시기적으로 가장 늦다. 송기호(2002: 24-25)의 연구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한문자 수용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간추려 그 연대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삼국의 문자 사용과 관련된 사실의 연대 비교(송기호 2002: 24-25)

	고구려	백제	신라
교육기관	372년 국당 _{局堂} 설치	*404년(?) 박사 아직기 _{阿直岐} 가 일본에 감 *513년 오경박사를 둠	*651년 박사와 조교를 둠 *682년 국학 설치
서적 수입	*372년 불상 경문을 보냄 *5세기말 오경을 읽음	*404년(?) 아직기가 경전을 읽음 *450년 『易林』과 『式占』을 구함	*565년 불교경론서 1700여 권을 보냄 *648년 晉祠碑并新撰晉書를 내려줌
역사서	*국초에 유기 _{留記} 를 편찬 *600년 신집 _{新集} 편찬	375년 서기 _{書記} 편찬	*545년 국사 _{國史} 편찬
율령	373년 율령 반포를 시작함	262년 도적 등 범죄 처벌령을 내림	520년 율령 반포

한문자 사용과 관련된 교육기관 설치, 서적 수입, 사서 편찬, 율령 반포 등에서 신라가 상대적으로 늦은 후진성이 역력히 나타나 있다. 사서를 편찬하려면 인명, 국명, 지명 등 고유명사를 적어야 하기 때문에 사서 편찬은 한문자 사용의 토착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사서 편찬에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200-300년 뒤쳐진 모습을 보여 준다.

신라에서 문자 사용의 발전 계기는 율령 반포(법흥왕, 520), 이차돈의 순교(527)와 불교 공인, 승려의 건당(遣唐) 유학(留學), 유학(儒學)의 확산과 국학(國學) 설치(682)를 꼽을 수 있다. 율령을 반포한 것은 문서 행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549년에 최초의 유학승인 각덕(覺德)이 귀국하였고, 565년과 576년에 이르러 불경을 들여오기 시작하였다(송기호 2002). 원광은 25세 되던 589년에 중국 남조의 진(陳)으로 유학하였고, 신라로 돌아와서 유교적 가르침이 담긴 세속오계를 지어 그 시대가 요청한 덕목을 제시했다(이희준 2016: 313). 진흥왕이 설치한 대서성(大書省)에 고승을 임명한 것은 당시에 승려층이 한문 작성에 가장 뛰어났음을 의미한다.¹⁾ 7세기 중엽에 활동한 강수(强首)는 신라의 변방인 충주 지역에 살면서도 당나라 사자가 가져온 황제의 조서를 막힘 없이 풀이하였다(654년).²⁾

신라 금석문으로서 연대가 가장 앞선 포항중성리비(501)의 한문은 고구려 광개토왕비(414)의 한문 수준과 큰 격차를 보인다. 400년에 가야와 왜가 연합하여 신라를 침공하였고, 광개토왕이 신라를 구하기 위해 구원병을 보냈다. 이를 계기로 고구려의 문자 자료(광개토왕 호우명문, 서봉총 출토 은합우명문)가 신라로 유입되었다(주보돈 2001: 200).

신라 사회에 한문이 수용되고 내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고구려의 영향 및 불교의 수용과 관련지어 설명한 주보돈(2002b)(2009)은 금석문과 사료 등에 나타난 문자 관련 정보의 분석을 근거로 신라의 한문 수용과 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했다. 1단계는 6세기 초 이전까지이고, 2단계는 6세기 초에서 7세기 후반까지, 3단계는 7세기 후반 이후로 나누었다(주보돈 2002b: 402). 2단계에 드는 6세기의 신라 금석문 자료가 한문자 수용의 역사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포항 중성리비(501), 포항 냉수리비(503), 울진 봉평신라비(524), 천전리서석 원명(525)과 추명(539), 단양 적성비(551?), 임신서기석(552 혹은 612), 경주 명활산성비(551), 창녕 진흥왕척경비(561), 대구 무술오작비(578), 경주 남산신성비(591)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영호(2010)는 1980년대 이후에 새로 발견된 신라의 금석문, 목간문, 기와명문, 목서자료, 토기 명문 등 20점의 자료를 종합 정리하고 그간의 연구 동향과 연구 가치를 논하였다.

2. 역상불역하(譯上不譯下)의 특징과 생성 배경

신라에서의 한문자 수용은 후진성과 함께 독창성도 보여준다. 신라의 한문자 수용과 발전 과정에서 고구려와 백제에서 볼 수 없는 특유의 독창적 차자법이 창안되었다. 한문자의 토착적 변용은 신라 자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앞글자는 훈으로 읽고, 뒷글자는 음으로 읽는 역상불역하(譯上不譯下)라는 방법은 신라에서 창안된 것이다.³⁾

1) 『삼국사기』 권40 직관 하(職官 下)에 진흥왕 대에 안장법사(安臧法師)가 대서성(大書省)으로 임명되었다. 이와 같은 승려 이름이 천전리서석 갑인명(川前里書石 甲寅銘)에도 나온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한국고대금석문> 울주 천전리 각석(이문기 집필)에서 인용함. <https://db.history.go.kr>

2) 强首 中原京沙梁人也. (중략) 及太宗大王即位 唐使者至傳詔書 其中有難讀處 王召問之 在王前一見說釋無疑滯 王驚喜 恨相見之晚. <삼국사기 권46, 列傳 第六 强首 崔致遠 薛聰>. 이 기록에서 강수가 중원경 즉 충주 지역 출신임을 알 수 있다. 강수가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살면서도 당나라 외교 문서까지 능숙하게 알았던 것이다. 이러한 강수의 한문 능력은 당시의 충주 지역에 당의 외교 문서를 포함한 한문 능통자가 살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3) 그런데 정광(2003: 64)은 고구려와 백제에도 신라와 같이 고유명사 표기가 있다고 하면서, “이 두 나라의 고유명사 한자 표기에는 보이는 차자의 방법은 신라의 것과 같이 한자의 발음과 뜻을 빌려서 譯上不譯下의 방법이나 末音添記의 방법, 半借義 全借音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표기한 것”이라고 하였다. 정광은 역상불역하의 방법이 고구려와 백제의 고유명사 표기에도 있는 것처럼 말했으나 구체적 예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2.1. 역상불역하^{譯上不譯下}의 특징

‘譯上不譯下^{역상불역하}’는 『삼국유사』에서 ‘異次頓^{이차돈}’(506-527)의 성명을 설명하는 문맥에서 처음 명시되었다.⁴⁾ 이차돈의 성은 ‘朴’이고 이름은 ‘猷⁵⁾’⁶⁾이며, ‘猷⁵⁾’의 ‘猷’ (= 猷)은 번역해서 뜻으로 읽고, ‘頓’은 번역하지 않고 음으로 읽는다는 것⁶⁾이다. ‘猷⁵⁾’에서 앞의 글자를 전부^{前部} 요소, 뒤의 글자를 후부^{後部} 요소라 할 때, 전부는 번역해서 읽고 후부 요소는 음으로 읽는 것이 역상불역하이다. 『삼국유사』에서 음으로 읽는 후부 요소는 쓰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 달리 쓰는 ‘조사’^(皆隨書者之便 乃助辭也)라고 했다.⁷⁾ 뜻으로 읽는 전부(前部) 요소를 ‘훈차자’, 음으로 읽는 후부 요소를 ‘음차자’라 부른다(서재극 1995: 9). 전부 요소 즉 훈차자는 표기 면에서 그 배치가 상당히 폐쇄적임에 비해 후부 요소 즉 음차자는 개방적이고, 훈차자가 문장의 근간을 이루지만 음차자가 훨씬 능동적 기능을 발휘하여 기능부담량이 많고 다양한 특성을 가진다(서재극 1995: 10).

김민수(2002: 7-8)는 ‘隨書者之便^{수서자지편}’과 ‘譯上不譯下^{역상불역하}’를 용자(用字) 규칙의 두 원리라 하고, 전자는 譯上(훈독)과 不譯下(음독)에 두루 적용되고 후자는 ‘猷⁵⁾’과 같은 일부 어형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았다. 김민수(2002: 7, 13)는 ‘수서자지편’을 중국 문학의 계련법(系聯法)과 유사한 것이라 하고, 청나라 음운학자 陳澧^{진례}(1810~1882)가 『절운』(切韻)을 연구하여 계련법을 발견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당^唐의 운서 『절운』과 『광운』의 반절에 쓰인 한자가 서로 연관된 질서를 갖고 있다는 것이 계련법의 요지이다. 역상불역하^{譯上不譯下}는 반절에 나타난 계련법을 신라 방식으로 변용한 것이 된다. 김민수(2002: 15)는 계련법의 발견이 19세기 중국 음운학계의 성과로 각광받아 왔으나 기실은 이미 고대 한반도에서 창안된 ‘수서자지편’의 아류라고 하고, 수서자지편은 계련법과 상통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의 경지를 개척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異次頓^{이차돈}’은 세 글자가 모두 음을 빌린 음가자로 역상불역하와 무관한 표기이다. ‘異次頓^{이차돈}’에 역상불역하 원리를 적용한 것이 ‘猷⁵⁾’이다. 따라서 ‘猷⁵⁾’의 ‘猷’은 신라 어휘를 표기한 음가자 ‘異次’를 한자로 번역한 훈역자(訓譯字=고유어를 한자 훈으로 번역한 것)이다. ‘異次頓^{이차돈}’의 ‘異次’는 ‘猷’의 뜻을 가진 신라 고유어이다. ‘異次頓^{이차돈}’의 ‘頓’은 쓰는 사람의 편의에 따르는(隨書者之便^{수서자지편}) 도움말^{助辭}이다. 이 ‘조사’가 不譯下^{불역하} 즉 번역

4) 『삼국유사』 제3권 「원종흥법 猷⁵⁾頓⁵⁾減身」(原宗興法猷⁵⁾頓⁵⁾減身) 기사. “粵有內養者, 姓朴字猷⁵⁾頓⁵⁾〔或作異次, 或云伊處, 方音之別也, 譯云猷⁵⁾也. 猷⁵⁾頓⁵⁾道觀獨等, 皆隨書者之便, 乃助辭也. 今譯上不譯下, 故云猷⁵⁾頓⁵⁾, 又猷⁵⁾頓⁵⁾等也.】

5) 박방룡(2020)은 『삼국유사』 고판본과 임진왜란 이전에 이차돈순교비의 일부 내용을 판각 간행한 『원화첩元和帖』을 이용하여 이차돈순교비의 비문을 재판독하고, 종래 ‘猷⁵⁾’이라 읽던 자형을 ‘猷⁵⁾’^(猷⁵⁾의 위쪽)으로 읽었다. “‘猷⁵⁾’자는 위(猷)자의 異體字이고 자전에 위(猷)자가 없는 관계로 猷(猷)자의 誤字로 간주되지만, ‘猷⁵⁾’변이 오른쪽에 오면 자연히 ‘犬’으로 바뀌어 글자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박방룡 2020: 34). ‘猷⁵⁾’과 ‘猷⁵⁾’은 자형이 매우 흡사하여 오인하기 쉽다. “『海東高僧傳』과 대부분의 『三國遺事』 譯註書 등에서는 ‘猷’자로 보아 ‘猷⁵⁾’이라 하였으며, 『東文選』에는 ‘猷’과 音似인 ‘猷’으로 표기하여 猷⁵⁾이라 하였다.”(박방룡 2020: 34)라고 하여 ‘猷⁵⁾’은 『해동고승전』(1215), ‘猷⁵⁾’은 『동문선』에서부터 쓰인 것임을 지적하였다.

6) 정광(2003: 70)은 ‘猷⁵⁾’의 ‘猷’은 훈가자로 ‘猷’-(惡, 猷)의 의미를 나타내고, 아래의 ‘頓’은 ‘猷’-(惡, 倦, 猷)의 말음절 ㄷ을 표기한 음가자라고 하였다. ‘猷⁵⁾’이란 차자표기는 반은 뜻을 빌리고, 반은 음을 빌리는 半借義^{반자의} 차자 방식이라고 불렀다. 필자가 보기에 ‘半借義^{반자의}’라는 용어보다 ‘半義半音借^{반의반음자}’이나 ‘先義後音借^{선의후음자}’라는 용어가 더 낫다.

7) 서재극(1995: 9)은 훈차자가 음차자 뒤에 놓이는 예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적가」 제2행 ‘兎史毛達只’을 ‘쫘모즈락’^(形體를 부족하게)로 풀이하면서 ‘毛達只’^(모즈락)이 그 예라고 본 것이다. ‘兎’는 음가자 ‘모’로 읽고, ‘達只’는 훈독자+음가자 ‘즈락’으로 읽었다. 서재극은 『향약구급방』에서 ‘蒼耳’를 ‘升古休伊’^(듯고마리)로 적은 것도 음차자가 훈차자 앞에 놓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예들은 ‘역상불역하’ 원칙의 예외적 존재들이다.

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頓_돈’ 대신에 ‘道’, ‘觀’, ‘獨’으로 바꾸어 표기할 수도 있다. ‘頓’가 ‘道’(도)나 ‘觀’(도)로 적을 수 있다고 한 사실로 보아 ‘頓’의 음은 ‘도’로 읽었음이 확실하다.

‘獸’을 뜻하는 어형이 ‘異次’로 적혔으니 ‘異次’는 신라 고유어로 ‘이차’ 혹은 ‘이츠’로 읽을 수 있다. ‘頓’은 ‘道’와 같다고 했으니 ‘도’로 읽는다. ‘異次頓’은 ‘이차도’(혹은 ‘이츠도’)를 적은 것이다. 이렇게 읽을 때 ‘異次頓’에서 뜻을 나타낸 음가자 ‘異次’(이차-)는 15세기 중세국어의 ‘잇-’⁸⁾(倦/困/勞)와 관련지어 볼 수 있다.⁹⁾ ‘이차도’는 어간 ‘잇-’와 접미사 ‘-도’로 분석되고 어간과 접미사 사이에 모음이 삽입된 것이다. ‘異次頓’(이차도)는 ‘피곤하고 싫은이’ 정도의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그런데 ‘異次’는 ‘獸’의 뜻이고, 중세국어의 ‘잇-’은 ‘困’의 뜻이다. ‘獸’의 뜻과 ‘困’의 뜻 간에 차이가 있다. 6~7세기 신라어의 ‘이차’가 15~16세기 중세국어의 ‘잇-’에 이르는 기간 동안 의미변화가 일어난 것일 수 있다. 두 한자의 뜻은 ‘피곤하다~괴롭다~싫다’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박방룡(2020)에서 판독한 것처럼 ‘獸觸’(염촉)을 ‘胃犬觸’(위촉)으로 읽을 때, ‘胃犬’(고슴도치 위)의 훈을 ‘異次頓’의 ‘異次’와 연결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胃犬觸’(위촉)을 ‘異次’처럼 두 글자 모두 음가자로 읽는 것이다. ‘異次’(이차)와 ‘胃犬觸’(위촉)은 ‘이츠’를 공유한다. ‘胃犬觸’(위촉)을 ‘위초’로 읽었다고 보면 ‘위초’는 ‘이츠-오’로 분석되고 이것은 ‘異次頓’(이차도) 혹은 ‘異次道’(이차도)의 말음절 모음 ㅛ와 일치한다. 이런 방식으로 읽으면 ‘胃犬觸’은 ‘異次道’와 비슷한 음상을 가진 것이 된다. 이렇게 볼 때의 문제점은 ‘胃犬觸’에 역상불역하의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異次頓_{이차도}’를 역상불역하 방식으로 바꾸어 표기한 것이 ‘獸觸~獸道~獸觀’과 같은 표기형이다. 역상불역하 방식은 신라의 개국 시조 ‘赫居世’라는 왕명 표기에 적용되어 있다. ‘赫居世’는 신라말이고 그 뜻은 ‘밝은 빛으로 세상을 다스림’¹⁰⁾이다. ‘赫居世’의 ‘赫’은 훈독(뜻으로 풀이)하여 ‘불-’으로 읽고, ‘居世’는 음 ‘거세’로 읽는다. ‘거세’는 ‘王’을 뜻하는 신라 어휘를 음가자로 가차 표기한 것이다. ‘赫居世’의 이표기인 ‘弗矩內王’의 ‘弗矩’는 ‘불-’이라는 어형을 음가자로 가차 표기한 것이다. ‘박혁거세’의 성 ‘朴_박’은 ‘불-’이라는 고유어를 한자로 가차 표기한 것이다. ‘弗矩內王’¹¹⁾과 ‘赫居世’의 관계는 ‘異次頓’과 ‘獸道’의 관계와 평행적이다. 양자의 관계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역상불역하_{譯上不譯下}와 음가_{音假} 표기의 비교

인명 표기 방식	이차돈	혁거세	이사금
-------------	-----	-----	-----

- 8) 유창돈의 『이조어사전』에 실린 다음의 예를 참고할 수 있다. 모미 이처거든(身苦)<救方上 77>. 새 그를 海內에서 流轉호물 이처호느니(新詩海內流轉困)<杜초_杜 16>. 불인 고지 이츠며 게을어 비를 바느니(吹花困懶旁 舟輯)<朴초_朴 18 3>. ‘잇-’에 형용사파생접미사가 결합한 ‘잇브-’도 있다. 예) 困 잇블 곤<1575천자문(대동급기념문고 본), 25a>. 한자 ‘困’의 뜻 ‘피곤하다-힘들다’는 ‘獸’의 뜻 ‘싫다’와 다른 점이 있으나 ‘힘들어서 싫다’는 뜻이 상통한다.
- 9) 정광(2003: 70)은 ‘異次頓’의 ‘異次’를 중세국어 동사 ‘잇-’과 관련지으면서 “머리 드로물 이처 호며”(倦)<초간두 시언해 22, 55>, “惡 이처 오”(유합 하 2장) 등의 예를 들었다.
- 10) 이 기록은 『삼국유사』의 박혁거세 탄생 설화에 나타나 있다. “身生光彩, 鳥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清明, 因名赫居世王[蓋鄉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三國遺事 1卷-1紀異-新羅始祖赫居世王>
- 11) ‘弗矩內王’의 ‘內’는 ‘안’ 혹은 이의 약음차(略音借) ‘ㄴ’을 표기한 것이다. 이 ‘ㄴ’은 관형형어미 ‘-ㄴ’에 대응한다. 이두 자료의 ‘內’의 독법은 논란이 많은 차자이다. 명사 표기에 쓰인 ‘內’를 ‘땅’ 혹은 ‘나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역상불역하 표기	獸觸~獸道~獸觀	赫-居世	*齒-今
음가 _{音假} 표기	異次頓~異次道	弗矩-內	尼師-今 尼叱-今

이 표의 ‘*齒-今’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문증(文證)이 없는 재구형(再構形)이다. ‘尼師_{니사금}今_{니타_{닛금}今_{닛금}}’을 역상불역하의 방법으로 바꾸어 본 것이 재구형 ‘*齒_{닛금}今’이다. ‘*齒今’이란 재구형은 『삼국사기』에서 김대문(金大問)의 글을 인용하여 “尼師_{니사금}今_{니타_{닛금}今_{닛금}}은 신라말이고 ‘齒理’를 말함이다.”¹²⁾라고 한 ‘齒理’의 두 한자를 역상불역하 방식으로 바꾸어 본 것이다. ‘齒理’의 ‘理’에는 ‘금’(갈라진 선)이란 뜻이 있으므로 ‘齒理’를 모두 혼독하여 ‘닛금’으로 읽을 수도 있다. 『삼국유사』에서 석탈해가 한 말로 “무릇 덕이 있는 자는 이가 많다고 하니 잇금을 시험해 봄이 마땅하다.”라고 하며 떡을 깨물어 증험한 기사가 있다.¹³⁾ ‘齒理’는 떡을 깨물 때 생긴 잇금을 뜻한다. 『삼국유사』의 이 기사에서 ‘齒理’를 ‘尼叱_닛今’이라고 표기했으니 ‘齒理’는 ‘혼독자+혼독자’ 구성이고, ‘尼叱_닛今’은 ‘음가자+음가자+음가자’의 구성이다. ‘尼叱_닛今’은 ‘닛금’을 음가자로 표기한 것이므로 ‘尼叱_닛今’의 ‘叱’은 ‘닛’의 사잇소리 ‘ㅅ’을 나타낸 음절말 자음 첨기자에 해당한다.

2.2. 역상불역하의 생성 시기

역상불역하 방식이 어느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역상불역하 방식은 향찰 해독의 열쇠인 훈주음종(訓主音從)의 원리와 그 본질이 같다. 여러 학자들이 훈주음종의 기원을 당대 사료(금석문 혹은 목간문)에서 찾으려고 시도해 왔다. 이승재(2013)는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文尸[*글]’(4회), ‘赫尸[*마닐]’, ‘糸利[*시리]’, ‘四利[*너 리]’, ‘彡利[*터 리]’, ‘益丁[*더덩]’, ‘丨彡[*다습]’ 등과 하남 이성산성, 경주 월성해자, 경주 박물관터, 경주 안압지 등의 목간에서 ‘太畬[*한사]’(3회), ‘赤居[*불거]’, ‘有史[*이시]’, ‘三巴[*사답]’, ‘一巴[*하답]’, ‘助史[*맛]’(6회) 등을 훈주음종 및 말음첨기와 관련짓고, 이런 표기 방식이 6세기 중엽에 일반화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백두현(2020: 46-47)은 ‘文尸’ 뒤에 ‘只’ 혹은 ‘伊’가 붙은 용례를 중시하여¹⁴⁾ ‘文尸只’를 묶어서 읽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益丁’ 등의 해독도 더 많은 문증이 필요하다고 하며 판단을 유보하였다.

경주 안압지목간 188번(8세기 추정)에 나온 ‘加火魚_{가화어} 助史_{조사}’에 대한 연구도 훈주음종과 관련되어 있다. ‘加火魚’의 ‘加火_{가화}’를 ‘가불~가브리’로 읽는 견해(이용현 2007b: 213, 김영옥 2007a: 175)가 여기에 해당한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실린 한자어 표기 ‘加火魚’¹⁵⁾가 ‘가블어’로 독음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가블어’ 혹은 ‘가브리’와 같은 한글 표기는 역대 문헌에 쓰이지 않은 것이다. 이런 사실로 보아 안압지 목간의 ‘加火魚’는 ‘가화어’로 음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加火魚’를 ‘가블어’로 읽는다면 ‘加火’의 ‘加’는 음가자이고, ‘火’(불)는 훈가자가 되어,

12) 金大問則云 尼師今, 方言也, 謂齒理.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유리니사금 원년>

13) 朴訥禮尼師今[一作儒禮王], 初王與妹夫脫解讓位, 脫解云: “凡有德者多齒, 宜以齒理試之.” 乃咬餅驗之, 王齒多, 故先立, 因名尼叱今, 尼叱今之稱, 自此王始. <삼국유사 권1 紀異 第三訥禮王>

14) 함안 성산산성 목간의 ‘陽村文尸只’(43-1), ‘及伐城文尸伊稗石’(148-1), ‘及伐城文尸(只)稗石’(214-1) 등의 예를 언급하였다(백두현 2020: 46).

15) ‘加火魚’는 세종실록 148권 지리지 경기 부평도호부와 154권 지리지 평안도 향에 특산물 이름으로 실려 있다.

역상불역하의 앞뒤를 뒤집어 놓은 것이 된다. 만약 “加火利魚^{가화리어}”와 같이 말음절 첨기자 ‘利’가 있는 표기가 존재하였다면 ‘火’는 혼독될 수 있다.

한편 이승재(2009: 182)는 이 목간의 ‘助史’를 ‘젓’(醃^해, 鮓^자)으로 읽고 ‘史’를 末音添記字^{말음첨기자}로 보았다. 이 해독이 옳다면 ‘助史’는 음가+음가 구성이 된다. 그런데 이문기(2005)는 ‘助史’를 전혀 다르게 해독하였다. 이문기(2005)는 안압지 출토 목간을 궁문 경비 파수꾼과 관련된 8세기 후반의 목간으로 보고, ‘助史’가 쓰인 5개 목간을 분석하여, ‘助史’는 말단 관원인 ‘史’를 보조하던 궁중 잡역인을 가리킨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신라 왕궁의 어룡성(御龍省) 산하 수공업 담당 관청에는 ‘干’과 ‘史’를 두었다(노중국 2001: 271, 275).¹⁶⁾ ‘干’은 전문 기술직을 뜻한 직명이고, ‘史’는 말단 관원이며, ‘助史’는 ‘史’를 보조한 잡역인을 뜻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加火魚 助史’는 ‘가불어 젓’이 아니라 ‘加火魚의 관리를 맡은 助史(말단 관리)’를 뜻한다. 그러나 이 목간이 문서 목간이 아니라 물표(物票) 기능을 하는 패찰(牌札) 목간이므로 관직명이 들어갈 문맥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이다. 이 목간의 성격상 ‘加火魚 助史’가 물품 이름을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¹⁷⁾ ‘加火魚 助史’의 해독은 아직 완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8세기 자료인 황복사석탑금동사리함명(706)의 ‘韓舍’와 ‘韓奈麻’, 화엄경사경조성기(755)에 공존하는 ‘大舍’와 ‘韓舍’는 ‘大’를 ‘한’으로 혼독한 명백한 증거이다. 이런 예들은 8세기 초기 혹은 직전 시기의 신라에 혼독법이 존재했음은 확실하게 문증한다(백두현 2020: 51). 그런데 혼독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역상불역하가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혼독법은 역상불역하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양자를 대응시켜 그 존재를 단정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大舍’와 ‘韓舍’의 대응은 역상불역하의 성립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존재임은 분명하다. 7세기 중엽에 의상이 귀국하고, 8세기 중엽 이후에 『화엄문의요결』 등이 일본에 전해지는 등 화엄학이 성행한 사실로 보아 『화엄경사경조성기』가 이루어진 8세기 중엽에는 차자법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馱髑’과 같은 역상불역하 방식이 적용된 표기형은 9세기초에 세운 이차돈순교비에서 확인되었다. 헌덕왕대(809~825)에 이르러 이차돈의 무덤을 수축하고 묘비와 사당을 건립하는 등 이차돈 현창 사업이 시행되었다(박방룡 2019: 6). 이차돈순교비의 3면~6면에 ‘馱髑염축’이 쓰인 사실(박방룡 2020: 32-35)은 역상불역하 방식이 이 비가 세워진 817년¹⁸⁾에는 존재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이보다 앞선 시기에 향가가 창작되어 문자로 기록되었을 것이고, ‘赫居世’나 ‘尼叱今^{넛금}’이란 표기가 신라 고기古記에 존재했을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대 자료에 대한 몇몇 선행 연구들이 6~7세기의 금석문과 목간문에 역상불역하의 원리가 존재했음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赫居世’와 같은 역상불역하 방식, 혼독자 ‘齒理’(넛금)과 음가자 ‘尼師今^{니사금}~尼叱今^{넛금}’과 같은 표기 방식은 고려시대에 편찬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실려 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후대에 편찬된 문헌이어서 ‘赫居世’와 같은 역상불역하 표기형이 혁거세 당대에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16) 노중국(2001: 271)에는 『삼국사기』 권제39 잡지 제8 직관 중에 나온 干과 史의 배속 관청 이름(麻典, 肉典, 滓典, 楊典, 瓦器典, 機概典 등)과 인원 수를 정리해 놓았다. 최일례(2022)는 신라 직관명 ‘史’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 ‘史’가 배치된 관청과 왕대별 배치 인원의 증감 등을 자세하게 밝혔다.

17) 이 목간이 패찰 목간이라 하더라도 ‘加火魚 助史’가 물품 수령인을 표시한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加火魚 助史’의 ‘助史’는 이두문에서 양인 여성을 뜻하는 ‘召史’(조시)와 음성(音相)이 같다. 한글 표기 ‘조시’는 17세기 초기에 광주가 쓴 한글편지에 나타나 있다.

18) 『삼국유사』 권3 흥법3 원종흥법原宗興法에 헌덕왕 9년(817)에 “國統 惠隆과 法主 孝圓·金相郎, 大統 鹿風, 大書省 眞恕, 波珍 滄 金嶷 등이 舍人의 옛 무덤을 고치고 큰 비를 세웠다”(박방룡 2019: 12)라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표기형이 신라 시대의 어느 시점에 존재하였고, 김부식과 일연대사는 신라의 ‘고기’(古記)에 적힌 ‘赫居世’ 등의 표기형을 참고했을 것이다. 그러나 ‘赫居世’나 ‘尼叱今^{나금}’이란 표기형이 신라에도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당대 사료에 쓰인 예가 없기 때문에 역상불역하의 생성 시기를 특정하여 말하기란 쉽지 않다.

신라의 역사서인 『국사』는 545년에 편찬되었다. 신라 역사를 쓰려면 왕호와 왕칭어가 필수적이다. 545년에 편찬된 『국사』에 ‘혁거세’, ‘차차웅’, ‘니사금’과 같은 왕칭어가 어떻게 표기되었을까? ‘次次雄’과 ‘尼師今’은 모두 음가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赫居世’는 훈독자 ‘赫’과 음가자 ‘居世’로 구성되어 역상불역하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다. 필자가 보기에 545년의 『국사』에 신라 시조를 ‘赫居世’로 표기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포항 중성리비(501), 포항 냉수리비(503), 울진 봉평신라비(524) 등의 비문에 훈독자+음가자 구성을 보인 표기례는 없기 때문이다. 이 점으로 보아 『국사』의 신라 시조명 표기는 『삼국유사』 권1 「신라시조혁거세왕」 기사문에서 ‘或作弗矩內王’이라고 한 ‘弗矩內’였을 것이다. ‘弗矩內’는 ‘次次雄’과 ‘尼師今’처럼 음가자로만 구성된 표기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필자는 6세기 중엽에도 역상불역하의 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라고 판단한다.

역상불역하의 성립 시기를 탐색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신라 향가가 구송되다가 문자로 기록된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다. 백두현(2018: 296)에서 이 문제를 논한 바 있다. 그 요점을 간추려 옮기면 다음과 같다. 삼국유사에 실린 향가의 배경 설화를 통해 향가가 불린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이승재 2013: 178). 배경 설화에 따르면 서동요와 혜성가가 진평왕(재위 579~632년) 시대에 노래로 불렸다. 6세기 말기와 7세기 초기에 향가가 지어졌음은 향찰식 차자 표기가 이 시기에 이미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서동요와 혜성가가 창작 당시에 구송만 되고 문자화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향가의 창작이 향찰식 차자 표기의 발달을 보장하지 못한다.

구송된 향가 가사가 언제부터 문자화되었을까? 이 의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원가(怨歌)의 배경 설화에서 찾을 수 있다. 효성왕(재위 737~742년)이 즉위하기 이전에 두 사람이 만나 바둑을 두다가 왕이 훗날을 언약하였다. 효성왕의 즉위 이후에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신충이 원망의 뜻을 담은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걸었더니(帖於栢樹) 잣나무가 누렇게 시들었다. 이 설화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내용은 노래를 지어 이것을 “잣나무에 걸었다”라는 기록이다. 노랫말을 나무에 걸려면 문자로 적어야 한다. 신충이 스스로 지은 원가의 노랫말을 문자로 표기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향찰식 표기법이 효성왕이 즉위하기 이전(737년 이전)에 일정한 수준으로 발달하지 않았더라면 신충의 문자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원가의 배경 설화를 통해 우리는 8세기 초(737년 이전)에 향찰식 표기법이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원가」에는 명사의 말음첨기법¹⁹⁾을 보여주는 ‘物叱’(갓), ‘栢史’(잣), ‘秋察尸’(7술)뿐 아니라 연결어미 표기자인 ‘米’(-미)와 ‘乃’(-나), 관형사형 어미 표기자인 ‘尸’(-르)과 ‘隱’(-ㄴ), 조사 표기자인 ‘矣’(-의), ‘叱’(-스) 등의 차자가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역상불역하와 말음첨기법을 포함한 향찰식 표기는 적어도 8세기 초(737년 이전)에 존재했다고 판단한다(백두현 2018: 296). 『삼대목』이 편찬된 888년에는 향가가 전면적으로 문자화되면서 역상불역하 등의 향찰식 표기법이 더욱 체계화되었을 것이다.

향가를 문자로 기록한 시기는 남풍현(1981b: 185)에서 13세기 후반이라고 하였고, 양희철(1994)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몇 가지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 중에서 필자의 논의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9) 말음첨기의 생성과 발달에 대한 논의는 신중진(1998)을 참고하기 바란다.

『삼국유사』에서 향가 관련 설화 내용은 거의 고기록의 잔흔을 갖고 있어서 『삼국유사』 소재 향가는 일연 이전의 고기록에서 전사한 것이다. 금석문의 이두에 비추어 볼 때 이두와 향찰의 원리는 6세기에 완성된 것이다. 『삼국유사』 소재 향가는 균여 향가와 다른 면이 있으며 시대가 더 빠르다. 금석문 이두에서 ‘乙’(목적격조사)이 941년에 처음 등장하는 점으로 보아 「처용가」와 「서동요」를 제외한 『삼국유사』 소재 향가는 최소한 9세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삼국유사』 소재 향가는 창작 당시의 상한선으로부터 9세기 하한선까지 기록되어 오던 것을 일연이 전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용가의 ‘東京’은 9세기에 이미 쓰인 것이고, 서동요의 ‘乙’은 경덕왕 대에 이미 쓰인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두 작품의 연대를 확정할 수 없다. (양희철 1994: 44)

양희철(1994)에서 논의된 내용의 요지는 최소한 9세기에는 향가가 문자화되었고, 일연은 문자화된 이 향가 가사를 보고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삼대목』의 편찬 연대(888)와 부합한다. 『삼대목』에서 향가가 집대성되고, 기존 향가 작품의 문자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의 핵심은 개별 향가 작품이 창작된 당시에 문자화가 이루어졌을 것인가?라는 것인데 신충의 「원가」 이외에는 창작 당시의 문자화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이 논의의 한계점이다.

2.3. 역상불역하의 생성 배경

두 개 이상의 차자 구성에서 윗글자는 뜻으로 번역해서 읽고 아랫글자는 번역하지 않고 읽는 독법이다. 역상불역하 원리는 고유명사 표기 및 향찰 표기에 공히 적용되었다. 고유명사를 음독자 혹은 음가자로 적는 방식은 고구려와 백제 자료에도 나타난 것이지만 한자의 훈과 음을 빌려 고유어를 표기하는 역상불역하 방법은 신라 자료에서 관찰된다. 역상불역하는 한문자를 토착적으로 변용한 특별한 차자 방식이며, 오늘날 훈주음종(訓主音從)이라고 표현하는 방식과 그 성격이 같다. 정광(2003: 72)은 역상불역하 방식을 혼합표기라 부르고, 이 방법은 어간이 어휘적 의미를 나타내고 어미가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곡용과 활용의 형태론적 절차를 드러내는 데 유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고대 삼국의 차자법 중 가장 독특한 방법인 역상불역하 원리를 만들어 낸 곳은 신라이다. 역상불역하 원리가 신라에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나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윤선태(2011: 131)는 한자 수용에서 뒤쳐진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가 시도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이두 표기법을 발상하고 향찰로 구체화하여 이두를 완성시킨 역사적·구조적 조건을 밝히려고 시도했다. 윤선태 교수의 논구 내용을 필자가 이해한 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와 백제는 한사군과 오랫동안 각축하면서 중국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선진적 중국문화를 전면 수용하는 방식으로 국가 체제를 만들었다. 그리하여 4세기 중반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체제는 중국식 한문 구사 능력을 갖춘 고도의 문서 행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라는 나마(奈麻) 이상의 관등 명칭을 고유어로 음차 표기하였고, 법흥왕의 율령 반포 이후에는 나마 이상의 고유어 관등명에 한자어 ‘大小’를 첨가하여 구별 표기한 방식이 가미되었다. 신라는 한문자 수용 이전부터 명령을 구두로 전달하는 ‘구두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영일냉수리비, 월

성해자목간 등에는 ‘敎敎’(명령), ‘白백’(보고), ‘口구’(집행), ‘嚮도’(이의 제기) 등 구두전달체계를 표현하는 한자가 쓰였다. 남산신성비의 ‘爲聞敎令위문교령’은 ‘듣게 한’ 구두 명령 행위를 표현한 것이다. 고구려나 백제와 달리 신라는 한문자에 의한 문서 행정을 시작하기 이전에 구두 명령 전달 시스템이 작동했고, 문서 행정이 수용된 이후 문서 표현 방식에 구두 명령 즉 구어체를 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흐름의 결과가 문서 기록에 신라어 요소를 가미한 이두가 탄생한 것이다. 신라인들은 구두 명령 체계에서 달성한 의사소통 수준을 문서의 형식과 내용에 담으려 했고, 이것이 이두 탄생의 ‘신라적 조건’으로 작용했다. 7세기 후반 설총이 이두를 창안했다는 이야기는 식자층 전반이 이두를 공유한 최종적 발달 단계를 상징한다(윤선태 2011: 155-158).

윤선태 교수의 설명은 신라의 문서 행정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축적된 식견과 통찰력의 깊이를 느끼게 한다. 필자는 이 설명을 적절히 수용하면서 역상불역하의 원리로 상징되는 신라 특유의 차자표기법을 만든 주체를 밝히고, 이것이 생성된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신라 학승의 불경 연구와 금석문 등의 문서를 작성한 문척(文尺)의 역할을 중시하고, 아울러 신라의 제도 운영에 나타난 특유 요소를 고려하여 역상불역하의 생성 주체를 더 넓은 관점에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1) 음의가_{音義家} 학승_{學僧}의 불경 주석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신라에는 각종 불전을 연구하여 여기에 주석을 달고 풀이한 학승과 이들이 찬술한 불교 문헌이 압도적으로 많다.²⁰⁾ 『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동국대학교 출판부, 1976, 3-93쪽)에는 고구려의 학승으로 승랑(僧朗)과 그가 찬술한 문헌 2종, 백제의 학승 담옥(曇旭), 혜인(惠仁), 도장(道藏), 의영(義榮) 등 4인이 소개되어 있다. 이에 비해 신라의 학승은 47인이고 찬술 문헌은 수백 종에 달한다. 원광(圓光)이 찬술한 2종 문헌, 혜장(惠藏)이 찬술한 5종 문헌, 원측(圓測)이 찬술한 19종 문헌, 신방(神昉)이 찬술한 9종 문헌, 원효가 찬술한 86종 문헌, 의상(義湘)이 찬술한 6종 문헌, 경흥(憬興)²¹⁾이 찬술한 40종 문헌, 지인(智仁)이 찬술한 문헌 5종, 영인(靈因)이 찬술한 문헌 3종, 순경(順璟)²²⁾이 찬술한 문헌 4종, 도증(道證)이 찬술한 문헌 13종, 승장(勝莊)이 찬술한 문헌 7종, 현일(玄一)이 찬술한 문헌 10종, 지통(智通)이 찬술한 문헌 2종, 의적(義寂)이 찬술한 문헌 25종, 도륜(道倫)이 찬술한 문헌 18종, 혜초(慧超)가 찬술한 문헌 3종, 태현(太賢)이 찬술한 문헌 52종 등 많은 학승이 수많은 논소(論疏)·장소(章疏)·석문(釋文) 등을 찬술했다. 박용진(2019: 219)는 신라의 학승이 찬술한 35종 화엄장소의 목록과 학승별 찬술 부수를 표로 정리하였다. 이 표에 실린 신라 학승은 가귀(可歸), 도신(道身), 명효(明暲), 범여(梵如), 연기(緣起), 원효(元曉), 의상(義相), 의융(義融), 지통(智通), 진숭(珍嵩), 태현(太賢), 표원(表員)이다. 신라 화엄학의 융성함과 불경 연구의 활발함을 보여준다.

경전을 논하고 주석하는 작업은 문자를 다루는 일이니 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한자의 음훈

20) 신라에 불경을 주석하거나 논소(論疏) 저술자가 많은 까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장기간 존속한 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백제와 고구려는 끊임없는 전란을 치르다가 7세기 중엽에 멸망해 버렸다. 학문은 평화로운 시기에 피어나기 쉽다. 신라에서 음의가 학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여 장기간 존속한 사실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21) 『삼국유사』에 경흥은 성이 水씨이고, 웅천주(公州) 출신인데 18세에 출가하여 삼장(三藏)에 달통하여 명망을 크게 떨쳤다고 한다. 그는 원효 다음으로 많은 저술을 남겼다(『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 40-41).

22) 순경은 신라에서만 공부하여 당나라 현장의 유식론을 깨닫고 스스로 학설(決定相違不定量)을 세웠다. 그의 학명이 중국에 떨쳤으며 4종의 논서를 지었다(『한국불교찬술문헌총록』 51-52).

으로 신라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화엄경소』, 『화엄문의요결문답』 등 신라 학생들이 편찬한 경전에는 한자와 한문구의 뜻을 풀이한 주석 이른바 석명(釋名)과 한자의 음가를 반절법 혹은 직음법(直音法)으로 표기한 예가 많이 실려 있다. 경전의 권말에는 난해한 한자를 별도로 모아 주석을 붙이거나, 『화엄경』처럼 별도의 권책으로 음의석(音義釋)을 묶어서 붙인 사례도 있다. 신라의 학생들은 한자의 음과 석, 난해구를 밝혀 풀이하는 작업을 통해 언어를 분석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키웠고, 이 능력이 신라어를 표기해 내는 힘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신라에서는 다수의 불교 사상서가 나오게 된 것이다. 원효(617~686)는 불교학의 정점을 이루었으며, 그의 아들 설총은 방언으로 육경문학(六經文學²³⁾ 혹은 구경(九經²⁴⁾을 읽어냈다. 7세기 중반~8세기 초엽에 활동한 신라의 고승이자 음의가(音義家)였던 원측(圓測 613~696), 순경(順憬)²⁵⁾, 경흥(憬興), 태현(太賢)은 묘법연화경 등 불경을 주석하였고, 이것이 일본 법상종의 학승 중산(中算)이 지은 『묘법연화경석문』(妙法蓮華經釋文)에 인용되었다(권인한 2022). 권인한(2022: 138-164)는 네 분의 신라 고승 음의가들이 행한 44개 한자 주석을 적출하여, 이를 자형주(字形註), 자음주(字音註), 자의주(字義註), 기타주로 분류하였다. 네 고승의 주석에는 반절법으로 한자음을 풀이한 것, 『설문해자』와 『옥편』 등을 인용하여 한자음과 뜻을 풀이한 것(권인한 2022: 159, 161) 등이 있다. 경흥과 순경은 다양한 자형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고, 특히 순경의 주에는 학문적 자신감과 깊이가 드러나 있다(권인한 2022: 166).

이러한 고찰을 통해 7세기 중반~8세기 초엽에 신라 학생들의 한자 지식과 한문 수준이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음의가 학생들의 주석 작업은 한자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켜 한자의 음훈으로 역사불역하와 같은 차자법을 창안해 내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역사불역하의 원리를 창안해 낸 주체는 불경을 주석하고 논소를 저술한 신라의 음의가 학생이라고 판단한다. 이 두 문법형태가 가장 발달한 수준으로 표기된 화엄경사경조성기는 승려가 지은 글로 본다. 이 두가 풍부하게 표기된 화엄경사경조성기는 8세기 중엽의 승려가 높은 수준의 이두문 작성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려 준다.

2) 문척_{文尺}의 존재와 문서화 작업

6세기 금석문과 목간문에는 문장 작성자의 직명 표기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있다. 문장 작성자를 가리킨 직명이 ‘書人’(울진봉평비 등), ‘文作人’(무술오작비), ‘書寫人’(명활산성작성비), ‘文尺’(남산신성비 제1,2,3,9비), ‘書尺’(남산신성비 제4비) 등으로 나타나 있고, 6세기 자료인 월성해자목간 중 주공지목간에는 ‘文人’이 쓰여 있다(백두현 2018: 291-292). ‘文人’은 중국

23)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방언으로 아홉 경서(九經)를 읽어 후생을 훈도하였으니, 지금까지 학자들이 그를 종주로 여긴다) <삼국사기 권46, 열전6 강수 최치원 설총>.

당나라의 국자감에 유학한 사람에게는 한대漢代 오경五經인 주역·상서·모시·예기·춘추좌씨전에다 주례·의례·춘추공양전·춘추곡량전을 추가하였다. 당나라 유학생들에게 부과한 아홉 과목을 당구경唐九經이라 부른다(황위주 2016: 307). 따라서 ‘구경’은 주역·상서·모시·예기·춘추좌씨전·주례·의례·춘추공양전·춘추곡량전을 뜻한다(이장희 2018: 208).

24) 以方音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신라말로 화이華夷의 방속方俗과 명물名物을 두루 깨우쳐 육경 문학六經文學을 훈해訓解하였다.) <삼국유사 권4, 원효불기 元曉不羈>

육경 문학. 육경은 중국 춘추 시대의 여섯 가지 경서(經書). 역경, 서경, 시경, 춘추, 예기, 악기(樂記)를 이르는 데 악기 대신 주례를 넣기도 한다. <우리말샘>.

25) 순경은 7세기 중반부터 8세기 초에 걸쳐 활동한 고승이고, 경흥은 7세기 후반기, 태현은 경덕왕 대에 활동한 분이다(권인한 2022: 150-151).

한어(漢語)식 한자어이고, ‘書寫人’과 ‘書人’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文作人’(글 지은 사람)은 한국어 어순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文尺’과 ‘書尺’은 신라에서 조어한 이두식 한자어이다. ‘文尺’ 등의 ‘尺’은 전문 기능인을 뜻한 접미사로 쓰인 것이며, 신라 자료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용법이다.²⁶⁾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는 ‘文尸尺’과 ‘文尸伊’라는 표기가 나타나는바²⁷⁾ 이들 역시 ‘文尺’에 접미사 ‘尺’ 혹은 ‘伊’가 결합한 것이라고 본다.

신라에는 ‘尺’을 붙여 표시한 전문 기능인과 관련 직제(職制)가 있었다. 노중국(2001)은 ‘尺’이 쓰인 금석문의 용례를 모두 적출하여 ‘人’이 ‘尺’으로 변해간 표기 변화의 과정, 기술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변한 ‘尺’의 의미변화와 사회적 지위의 하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삼국사기』 권32 「악조(樂條)」에 고기(古記)를 인용하여 정명왕(政明王=신문왕, 재위 681~692) 9년에 설행된 주악(奏樂)의 악공 구성원을 기술해 놓았다. 이 기사에 악공을 가척(笳尺), 무척(舞尺), 금척(琴尺), 가척(歌尺)이라 칭하고 기사 말미에 “신라 때 악공을 모두 ‘척(尺)’이라고 불렀다(羅時樂工皆謂之尺)”라고 하였다. 이 기사에 이어진 고구려와 백제 음악의 주악 구성원 직명에는 ‘척(尺)’이 사용되어 있지 않다. 전문 직명 표기의 ‘척(尺)’은 신라 특유의 것임을 알 수 있다.²⁸⁾ ‘文尺’은 문서 작성을 맡은 전문 기술 직명이자 공적 문서 작성자를 가리킨다. ‘文尺’은 신라 특유의 문서를 작성했으며, 이들의 작업을 통해 신라의 차자법이 발전되어 간 것으로 여겨진다. 6세기의 신라 금석문, 촌락 문서 등의 이두문은 文尺이 작성한 것이었다.

국가의 정책이나 대사를 행하고 그 결과 혹은 내용을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전통은 고대 삼국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듯하다. 그런데 현전 금석문 자료 혹은 문헌 자료에서 신라에 관한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다. 삼국이 공존했던 6세기의 금석문 자료를 보면 신라의 것이 가장 많다. 국가의 축성 사업을 기록한 문서의 경우, 신라의 남산신성비(1비~10비) 및 명활산성비처럼 축성자 및 작업 내역을 자세히 적은 사례는 고구려와 백제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고구려의 6세기 평양성 각자 성석(平壤城 刻字 城石)²⁹⁾ 5건이 있으나 축성을 맡은 지역과 거리 정도만 표기되어 있을 뿐이다(여호규 2009).³⁰⁾ 신라의 남산신성비에는 축성에 참여한 주요 인물의 출신지, 관등,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이들에게 ‘위문교령’(爲聞敎令)하고 삼 년 내에 붕파되면 죄를 받는다고 맹서한 내용이 있다. 신라의 남산신성비가 문서 형식을 띤 서약문이라면 고구려의 평양성 각자 성석은 축성 참여자와 거리만 간단히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남산신성비에는 축성 작업 내용과 책임 소재를 말로 알려 주고 이를 돌에 새긴 내용이 있다. 이 방식은 작업 내용을 작업자의 마음에 각인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정치적 문제의 처리 결과를 기록한 포항중성리비, 영천냉수리비, 울진봉평비 등은 문서화가 신라의 통치 행위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 신라 특유의 文尺문척들은 국가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기록 문서를 작성하였다. 함안 성산산성 목간에 목서된 ‘文尺尺’(글장이)와 ‘文尺伊’ 역시 목간 관련 문서 작성자를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 내용과 결과를 문서로 기록하여 남기는 제도

26) 대구무술오작비의 ‘大工尺仇利支村壹利刀令’에서 ‘대공척’은 ‘塙’(수리시설의 둑)을 축조한 공사 감독관을 뜻한다. 안압지출토명활산성비(551)에도 ‘大工尺仇令之’라는 직책과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27) 백두현(2020: 46)에서 ‘陽村文尸尺’(43-1), ‘及伐城文尸伊稗石’(148-1), ‘及伐城文尸(尺)稗石’(214-1)를 언급한 바 있다. ‘文尸尺’을 15세기 어형으로 읽으면 ‘글자히’(글장이)가 된다. ‘文尸伊’도 유사한 이표기이다.

28) 기술직을 뜻한 신라의 ‘尺’에 대한 연구는 노중국(2001)의 연구를 참고하기 바란다.

29) 여호규의 특강 자료에 소개된 두 개 성돌[城石]의 문장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제3석: 己丑年三月廿一日自此下向□<下>二里內<中>百頭上位使余丈作節矣(569년)

제4석: 丙戌十二月中漢城下後□小兄文達節自此西北行涉之(566년)

30) 여호규, 제2기 문자학특강 2강(2009.4.10.) 「고구려 문자자료의 해독 원리와 실제」, 4-5.

와 그 시행이 한문자의 신라적 변용을 가능케 한 사회적 토대였을 것이다.

3) 설총의 유교 경서 훈해訓解

음의가 학습뿐 아니라 유교 경서를 훈해한 설총도 차자법(특히 구결)의 발달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설총의 경서 해석과 관련된 주요 기록은 다음 두 가지이다. ① “방언으로 아홉 경서를 읽어 후생을 훈도하였으니, 지금까지 학자들이 그를 종주로 여긴다(以方言讀九經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삼국사기』 권46, 열전6 강수 최치원 설총). ② “방음(方音)으로 화이(華夷)의 방속(方俗)과 명물(名物)을 두루 깨우쳐 육경(六經)을 ‘훈해(訓解)’하였다(以方音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삼국유사』 권4, 원효불기元曉不羈).³¹⁾ 두 기록은 설총이 구경 혹은 육경 문학을 신라어로 풀이했음을 말하고 있다. 설총이 한문 경서와 문학을 신라어로 표현해 낸 것이다.

그런데 설총의 경서 훈해가 구두 강론에 그친 것인가? 훈해한 결과를 문자화하였을까? 이 질문은 차자표기의 발달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만약 후자였다면 설총의 경서 훈해는 신라어 문법으로 경서를 번역해야 하고, 이 작업에는 역상불역하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훈해 결과의 문자화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어서 추론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 불교 경전과 달리 설총의 경서 훈해는 어떤 자료도 남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총의 경서 훈해가 차자법 발달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논할 수 없다. 구두에 그친 것이든 문자화로 나아간 것이든 간에 설총의 경서 훈해는 외래 사상을 수용하여 이를 신라어로 표현함으로써 사상의 내면화를 이루어내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4) 구송 가요인 향가의 창작과 문자화

신라에는 고구려와 백제에 없는 도술가라는 노래가 있었다. 유리니사금(재위 24~57) 1년(기원후 24년) 기사에 “(이때부터) 도술가를 짓기 시작했으니 차사(嗟辭=감탄어)가 있는 사뇌격이다.”³²⁾라는 내용이 있다. 월명사(8세기)가 지은 ‘도술가’(=산화가)보다 훨씬 앞서서 신라인들이 감탄어가 있는 사뇌격의 도술가를 지어 불렀다는 것이다. 신라는 국초부터 도술가³³⁾라는 고유 의 국속(國俗) 가요를 지어 노래했던 것이다.

한편 『삼국사기』에는 유리니사금 5년(기원 후 28년) 11월에 왕이 나라를 순행하면서 굶주려 얼어 죽게 된 노파를 보고 스스로 부덕함을 탄식하고 홀아비 과부 병자 늙은이들에게 양식을 주니 민속이 즐겁고 편안해져 처음으로 도술가를 지었으니, 이것이 가악(歌樂)의 시초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다.³⁴⁾ 두 사료의 기록은 유리니사금 재위 초기에 도술가라는 구송 가요가 지

31) 구경(九經)은 한대(漢代)의 오경(五經)인 주역·상서·모시·예기·춘추좌씨전에 주례·의례·춘추공양전·춘추곡량전을 더한 과목이다. 당나라 유학생들에게 부과한 이 아홉 과목을 ‘唐九經’(당구경)이라 부른다(황위주 2016: 307). 따라서 ‘구경’은 주역·상서·모시·예기·춘추좌씨전·주례·의례·춘추공양전·춘추곡량전이 구경을 가리킨다(이장희 2018: 208). ‘六經文學육경 문학’은 중국 춘추 시대의 여섯 가지 경서(經書). 역경, 서경, 시경, 춘추, 예기, 악기(樂記)를 가리킨다. 악기 대신 주례를 넣기도 한다.

32) 朴訥禮尼師今[一作儒禮王] (…중략…) 始作兜率歌, 有嗟辭, 詞腦格. <삼국유사 권1 紀異 第三訥禮王>

33) 양주동(1965/1983: 17)은 유리왕대에 생겨난 도술가는 상고시대 종교적 의식儀式的 축사祝詞와 근고시대 시정요의 중간 형식을 가진 것이면서 개인의 서정 가요가 아니라 민속환강民俗歡康과 시화연풍時和年豐을 구가한 국풍 아송의 남상濫觴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도술’의 어원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였다. “「兜率」은 원래 「두리·도리」의 차자임으로 「兜率歌」는 현존 농악 「두레」의 「두리놀이·도리놀이」 해당한다. 이 「두리·도리」는 동방 속악에 흔히 후렴으로 사용되는 전통적 문구 「둥둥다리·다롱다리」 등의 「다리·디리」와 동일한 자”이다(양주동 1965/1983: 14-15).

34) 五年, 冬十一月, 王巡行國內, 見一老嫗飢凍將死曰 (…중략…) 仍命有司, 在處存問鰥寡孤獨老病不能自活者, 給

어지고 노래했음을 알려 준다.

『삼국유사』 권5(경덕왕 19, 760년)의 「월명사도솔가」에 월명사가 지은 도솔가와 제망매가가 실려 있고, 그 끝에 “신라 사람들은 鄉歌향가를 숭상한 자가 많았으니 이것은 대개 詩시나 頌송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따금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鄉歌’라는 용어가 여기에 처음 등장한다.³⁵⁾ 승 일연은 월명사가 지은 노래가 ‘산화가’가 아니라 ‘도솔가’라고 밝혔으니 향가는 유리니사금 이래 지어 부른 도솔가의 전통을 이은 것으로 보인다. 월명사가 경덕왕에게 아뢰는 말 중에 “신승臣僧은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해 있는 지라 오직 鄉歌향가만 알고, 梵聲범성은 모릅니다.”라고 하니, 왕이 “향가를 씬도 가하다.”³⁶⁾라고 답한 대화가 실려 있다. 월명사는 국선(=화랑) 무리를 가르치는 스승이었고, 국선의 무리들이 향가를 짓고 노래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현전 향가에 승려가 지은 것과 화랑의 덕을 사모하는 작품(찬기파랑가, 모죽지랑가 등)이 있음은 향가의 창작과 구송 주체가 승려와 화랑이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향가는 기본적으로 구송 가요여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서동이 선화공주에 관한 노래를 지어 아이들에게 가르쳐 퍼뜨렸고, 원효대사가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려주려는가. 나는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라.”³⁷⁾라는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린 것은 구송 전파의 사례이다.

구송가요인 향가를 언제부터 문자로 표기하여 문서화했는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효성왕(孝成王, 재위: 737-742) 때 신충(信忠)이 지은 「원가」(怨歌)의 배경 설화에 신충이 이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걸었다(帖於栢樹)고 하였으니, 효성왕 즉위 이전(737년 이전)에 향찰식 표기법이 존재했음은 분명하다. 향가를 전면적으로 집성한 『삼대목』(888)을 편찬하면서 향찰 표기법은 더 정비되었을 것이다.

5) 언어와 문자 사용의 고유성

초기 신라의 육부 이름에 나타난 고유성

고구려와 백제의 국호는 처음부터 한자어로 칭해졌으나 신라는 고유어를 음가자로 차음 표기한 국호가 여러 가지로 쓰였다. 권인한(2008)은 국내외 문헌에 나타난 15개의 신라 국호를 확인하고, 각 국호의 출현 시기와 순서를 논하였다. 기원후 1세기 이후에 나타난 ‘雞林’을 비롯하여, ‘斯盧’~‘新盧’(3세기경), ‘新羅’(307년 이후 쓰이다가 503년 확정), ‘薛羅’(379년), ‘斯羅’(5~6세기), ‘尸羅’(9세기 말~10세기 후반), ‘徐那伐’, ‘徐羅伐’, ‘徐耶伐’, ‘徐伐’(12~13세기) 등의 시대 순서를 설정했다(권인한 2008: 188-195). ‘雞林’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는 음독 한자어로 여겨지지만 초기 신라에서 ‘뽕쑤~뽕수ᄒᆞ’로 말한 신라 고유어를 한자로 훈역한 것일 수 있다. 지증왕 4년(503)에 이르러 ‘新羅’를 국호로 확정했으니³⁸⁾ ‘斯盧’, ‘斯羅’ 등의 고유어

養之。於是，隣國百姓，聞而來者衆矣。是年，民俗歡康，始製兜率歌。此，歌樂之始也。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유리니사금 5년>.

35) 『삼국사기』에는 ‘鄉歌’가 전혀 쓰이지 않았다. 양주동(1965/1983: 33-65)은 ‘사뇌가詞腦歌’에 대해 자세히 논하고, 었다. ‘詞腦’는 ‘시니’를 표기한 것이며, ‘시니’의 ‘시’는 ‘東’의 뜻이고, ‘東’은 곧 동쪽 나라인 신라를 의미하므로 ‘시니’는 결국 ‘東土’의 뜻이며, 이는 ‘鄉歌’와 같은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사뇌가는 곧 향가임을 논증한 것이다.

36) “臣僧但屬於國仙之徒，只解鄉歌，不閑聲梵。”王曰：“既卜緣僧，雖用鄉歌可也。”明乃作兜率歌賦之。 이 기사에는 “지금 세간에서는 이를 산화가라고 하지만 잘못이다. 마땅히 도솔가라고 해야 할 것이다. 산화가는 별도로 있는데 그 글은 많아서 신지 않는다.”(今俗謂此爲散花歌，誤矣。宜云兜率歌。別有散花歌，文多不載。)라는 내용도 있다. 월명사가 지은 향가 이름이 ‘산화가’가 아니라 ‘도솔가’라고 말한 것이다.

37) 誰許沒柯斧，我斫支天柱。 <삼국유사 권4 義解 元曉不羈>

국호를 500년 가까이 써 온 것이다.

초기 신라를 구성한 육촌과 육부 명칭어에도 고유어 요소가 나타나 있다. 『삼국사기』 권1 신라 본기 혁거세 거서간 원년 기사에 육촌 명칭과 유리 이사금儒理尼師今 9년(32)에 육촌이 육부로 개칭된 명칭을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 초기 신라(진한辰韓)의 육촌명과 육부명

육촌명	육부명	사성賜姓
關川 楊山村	梁部	李
突山 高墟村	沙梁部	崔
鶯山 珍支村 或云 于珍村	本彼部	鄭
茂山 大樹村	漸梁部 一云 牟梁	孫
金山 加利村-加里村	漢祗部	裴
明活山 高耶村	習比部	薛

육촌명³⁹⁾ 중 ‘楊山村’, ‘高墟村’, ‘大樹村’은 한자어이고, ‘珍支村-于珍部’, ‘加利部’, ‘高耶村’은 신라 고유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육부명⁴⁰⁾은 ‘漢祗部한기부’가 고유어인지 애매하고, ‘梁部’, ‘沙梁部’, ‘本彼部’, ‘漸梁部’, ‘習比部’ 등은 초기 신라의 고유어 지명에 한자어 접미사 ‘部’가 결합한 구성이다. 신라의 부명 혹은 지명 표기에 쓰인 ‘梁’(뚝), ‘玼’(돌), ‘啄’·‘涿’(닥~닭)은 모두 신라 고유어를 반영한 것이어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⁴¹⁾ 신라를 구성한 육부 이름에는 고유어로 요소가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 고유어 요소를 지닌 지역 공동체 명칭이 장기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왕칭과 관등명에 나타난 고유성

신라의 왕칭은 백제나 고구려와 달리 고유어 요소가 뚜렷하다. 개국 시조 ‘弗矩內불거내’와 ‘赫居世혁거세’는 ‘光明理世’광명이세의 뜻을 가진 신라어였다. 2대의 ‘차차웅’, 3대부터 14대까지 및 16대(訖解訖解) 왕명까지 사용된 ‘니사금’, 15대(奈勿내물·18대(實聖실성)·19대(訥祗눌지)·20대(慈悲자비)⁴²⁾·21대(炤知소지 479~500)·22대(智證지증 4년)까지 사용된 ‘마립간’ 등의 왕칭은 모두 신라 고유어를 표기한 것이다. 신라가 개국(B.C. 57) 후 503년에 이르기까지 500여 년 동안 왕칭에서 신라의 고유성을 지켜왔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 점을

3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지증마립간 4년. “四年，冬十月，群臣上言，始祖創業已來，國名未定，或稱斯羅，或稱斯盧，或言新羅。臣等以爲新者德業日新，羅者網羅四方之義，則其爲國號，宜矣。”

39) 삼국사기 권1 첫머리에 신라 육부六部の 근간이 된 육촌六村 이름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先是 朝鮮遺民，分居山谷之間，爲六村 一曰關川楊山村，二曰突山高墟村，三曰鶯山珍支村或云于珍村，四曰茂山大樹村，五曰金山加利村{加里村}，六曰明活山高耶村，是爲辰韓六部。(三國史記 卷第一 新羅本紀第一 赫居世居西干 元年). 육부의 선조를 ‘조선 유민’이라 한 점은 한문자의 전파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점이다.

40) 육부六部 명칭은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 유리이사금 9년 항에 나온다. “九年春，改六部之名，仍賜姓。楊山部爲梁部，姓李；高墟部爲沙梁部，姓崔；大樹部爲漸梁部[一云牟梁]，姓孫；于珍部{干珍部}爲本彼部，姓鄭；加利部爲漢祗部，姓裴；明活部爲習比部，姓薛。” 이하에 17개 관등명이 이어져 나온다.

41) 이 차자들의 독법에 대한 선행 연구 및 그 요지는 백두현(2020: 33-36)을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는 특히 ‘梁’(뚝), ‘啄~啄’(독-닥), ‘涿~涿’(독-닥)이라는 김영만(2007a)의 해독과 ‘啄’을 ‘탁-닭’으로 해석한 주보돈(1999: 582-583)의 연구 결과를 중시하였다.

42) 이 시기의 왕대명 중의 ‘實聖’, ‘慈悲’, ‘智證’은 불교적 의미가 가미되어 있다. 실성왕(재위 402~417년)부터 불교가 신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음을 암시한다. 지증왕 4년에 고유어 왕칭인 ‘마립간’을 폐지하고 ‘王’으로 바꾼 것은 신라의 정치제도가 집단 지도 체제인 육부 연합체에서 왕권이 강화된 국가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시한다. 고구려의 왕칭이나 왕대명은 일찍부터 한자어였다. 백제의 왕대 이름 중 ‘온조왕, 다루왕, 기루왕, 개루왕, 초고왕, 구수왕, 고이왕, 근초고왕, 근구수왕, 개로왕’ 등에는 고유어 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만 왕칭어는 일찍부터 ‘王’으로 통일되었다. 이러한 비교에서 신라의 왕칭어 및 왕대명이 가진 고유성과 이것이 500여 년 이상 존속되어 온 신라 특유의 제도와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신라인은 왕칭 및 왕대명 표기에서 고유어를 반영한 특유의 방식을 만들었고 이를 장기간 사용했던 것이다.

신라에서 고유어 명칭을 장기간 사용한 특성은 관등명에도 나타나는 바 이 점은 윤선태(2011: 155)에서 언급된 바 있다. 伊伐滄이별찬(角干각간=舒弗邯서불감⁴³)=舒發翰서발한), 伊滄이찬, 迺滄잡찬, 波珍滄파진찬, 大阿滄대아찬, 阿滄아찬, 一吉滄일길찬, 沙滄사찬, 級伐滄급별찬, 大奈麻대나마, 奈麻나마 등은 ‘大’, ‘小’를 제외하고 모두 신라어를 표기한 것으로 본다. 이 관등명들이 당시의 어떤 고유어를 반영한 것인지 모두 밝혀져 있지 않다. ‘角干각간=舒弗邯서불감’과 ‘波珍滄파진찬’은 각각 우리말 ‘썰’(角)과 ‘바들’(海)을 반영한 것이다. 썰 달린 관(冠)을 쓰고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관직이 ‘角干’의 뜻이다. 그러나 ‘角干’이 ‘伊伐滄’의 ‘伊伐’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밝히기 어렵다.⁴⁴ ‘波珍滄’(바들간)은 천전리서적 추명(539)에 “波珍干支”로 나오고, ‘海干해간’으로 표기되기도 했다. 경위 4등인 파진찬은 감포, 영덕, 울진, 삼척 등 동해안 지역을 지배한 유력자를 포섭하면서 부여한 관등으로 보인다(주보돈 교수의 의견).⁴⁵ 경위 2등인 迺滄잡찬은 ‘迺判잡판’ 혹은 ‘蘇判소판’으로 표기되기도 했는데 ‘쇠’를 관장하는 상위 관등이며 주로 왕족이 임명되었다.⁴⁶ 관등 명칭어는 표기상 약간의 변이가 있으나 통일신라 시대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신라 고유의 관등명을 만들어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것은 신라의 관직제가 가진 고유성과 문화적 독자성을 보여 준다.⁴⁷

6) 기타 신라 특유의 사회 제도 운영

신라는 외래 문물을 도입하고 이것을 고유의 방식으로 변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역상불역하라는 차자표기법도 고유의 방식을 만들어 낸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 놓인다. 이런 점에서 필자의 관심을 끄는 신라 특유의 사회제도적 특징 두 가지를 간단히 짚어 본다.

화랑제라는 특유의 교육 제도

신라에는 청년을 가르치기 위한 화랑제라는 특유의 교육 제도가 있었다. 진흥왕 37년에 원화源花 제도를 만들고 남모와 준정이라는 두 미녀를 뽑아 무리 300여 인을 붙여 주었다. 그런데 준정이 남모를 죽이는 일이 벌어지자 여자를 남자로 바꾸고 그 이름을 화랑이라 칭하였다.⁴⁸ 화랑 무리가 운집하여 육예와 도의를 연마하고 가악으로 서로 즐기며 산수를 유람하여 이르지 않는 곳이 없었다(徒衆雲集, 或相磨以道義, 或相悅以歌樂, 遊娛山水, 無遠不至). 김대

43) 『삼국사기』에 ‘舒弗邯’의 용례가 다수 발견된다. 예) 十五年, 春正月, 拜伊滄于老爲舒弗邯, 兼知兵馬事. <삼국사기 권2 신라본기 2 조분니사금 15년>

44) ‘伊伐’의 ‘伐’을 ‘썰’과 관련지어 보는 방법도 있으나 더 이상 추론하지 않기로 한다.

45) ‘波珍滄’(바들간)을 둔 것은 바다를 통해 침입하는 倭를 경계하기 위한 신라의 국방 정책을 반영한다. 이사부의 우산국 복속과 문무왕의 해중 능은 倭를 방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46) ‘迺判_{잡판}’의 ‘迺’의 음 ‘잡’은 ‘蘇判_{소판}’의 ‘蘇’와 음상이 전혀 다르다. ‘迺_잡’의 음을 ‘蘇_소’와 관련지으려면 ‘迺_잡’의 상고음을 자세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47) 지명 표기에는 고대 삼국의 고유어 요소가 반영되어 있으나 백제와 고구려 지명에도 공통적인 것이어서 신라 특유의 요소라고 할 수 없다.

48)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37년 기사와 『삼국유사』 권3 塔像 彌勒仙花未尸郎眞慈師 기사에 원화제 및 화랑제에 대한 내용이 있다.

문이 이르기를 현사와 충신이 다 이로부터 나오고, 양장용졸良將勇卒이 여기에서 길러졌다고 하였다. 임신서기석에서 두 사람이 경서 읽기를 맹서한 것은 화랑들이 학문과 도의를 상마相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들이 부르면서 즐긴 ‘가악’이 곧 향가였던 것이다. 찬기파랑가와 모죽지랑가 등이 이 점을 반영한다.

불교 공인에 대한 저항

신라에는 천지 신령을 숭배하는 전통 신앙이 있었으니 이를 흔히 풍류(風流)⁴⁹⁾라고 부른다. 이런 전통 신앙이 외래 종교인 불교와 충돌하여 이차돈의 순교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법흥왕의 사인(舍人)이었던 이차돈이 왕의 불교 공인을 돕기 위해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한 것은 전통적 신앙에 기반한 집단을 누르기 위한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본다. 불교 공인에 대한 기존 정치 세력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 이차돈이 스스로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불교의 전파와 유입에 대한 저항은 고구려와 백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신라에서 불교 유입에 대한 저항이 있었던 것은 신라의 사상적 고유성이 상대적으로 더 견고했음을 뜻한다.

3. 결론 : 역상불역하_{譯上不譯下}의 생성 주체와 창의적 변용

신라 사람들은 한문자와 외래 문명을 학습하고 수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내면화하여 고유의 방식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었으며, 여기에 창의적 변용을 더하였다. 이 과정(process)을 <학습⇒내면화⇒창의적 변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작업 과정에서 산출된 창의적 변용 중의 하나가 신라어를 표기하기 위한 차자법의 창안이었다. 신라의 학습들은 음차(음독법과 음가법)와 훈차(훈독법과 훈가법)를 활용하여 앞 글자는 뜻으로 읽고 뒷 글자는 음으로 읽는 역상불역하_{譯上不譯下}의 원리를 창안했다. 뒷 글자는 쓰는 사람의 편리함을 따른다는 수서자지편_{隨書者之便}이라는 방법을 만들어 뒷 글자 즉 불역_{不譯} 하자_{下字}를 보조하도록 하였다.

한문자의 <학습⇒내면화⇒창의적 변용>의 작업 과정에는 실천하는 행위 주체가 있어야 한다. 앞 글자는 뜻으로 읽고 뒷 글자는 음으로 읽는 역상불역하의 차자법을 만들어 낸 주체는 불경의 주석과 논소를 저술한 승려라고 본다. 또한 승려는 향가를 창작하고 이를 문자화하는 일을 함으로써 당시의 신라 구어를 차자법으로 표기해 냈을 것이다. 비문과 목간문 등의 문서 행정에 참여한 문척(文尺)은 이두문의 발달에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유교 경서를 공부한 유학자를 대표하는 인물은 설총과 강수이다. 설총은 경서를 신라어로 훈해함으로써 유학의 내면화는 물론 구결 발전에 기여했을 것이다. 화랑은 경서를 학습하고 향가를 짓거나 불려 나름대로 기여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화랑은 향가의 창작 혹은 향유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차자법 발달 과정에서 불경에 주석을 달고, 논소 등을 저술하며 문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음의가(音義家) 학습들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본다. 7세기 중반~8세기에 활동한 신라의 고승 음의가(원측, 순경 등)가 수십 명 활동하였고, 다수의 불경 논소와 주석을 편찬한 사실을 앞에서 언급하였다.⁵⁰⁾ 논소와 주석 작업의 상당 부분은 한자, 한문구, 한자음에 대한 풀이(釋名)이다. 한문자의 음과 뜻을 풀이한 역할을 중시하여 이들을 ‘音義家’라 부른다(권인한 2022). 음의가들의 주석 중에는 한자음을 반절법으로 표기한 것이 있다. 하나의 한자음을 성모자와 운모자로 나누어 표기하는 것이 반절법이다. 예컨대 ‘東’(동)의 음을 ‘德’(성모

49) 崔致遠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흥왕 37년>

50) 이들이 편찬한 글 중의 일부가 대장경에 수록되어 있고, 일본으로 건너가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ㄷ)과 ‘紅’(운모 ㄱ)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반절법이다. 이분법이라는 점에서 반절의 음가 표시 방식은 ‘역상불역하’의 이분법과 같다. ‘역상불역하’의 이분법 원리는 반절법의 이분법을 신라어 표기에 알맞도록 변용(變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절법의 두 한자 즉 상자(上字)와 하자(下字)는 모두 음을 표상한 것이다. 그러나 역상불역하의 상자는 뜻을 나타내고, 하자는 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반절법과 다르다. 역상불역하는 반절법의 창의적 변용이라고 할 만하다.

음의가 학생들은 역상불역하(譯上不譯下)와 수서자지편(隋書者之便)뿐 아니라 어간말 자음 혹은 어간 말음절을 표기한 말음첨기법(末音添記法)을 창안해 냈다. 승려는 불교서뿐 아니라 향가를 창작하였다. 승려가 지은 향가 작품이 있고, 『삼대목』의 편찬 주체가 대구화상(大矩和尚)이었기 때문이다. 찬기 파랑가에 나온 ‘雲音’(구름)의 ‘音’은 음절말 자음 ㅁ을 표기한 것이고, ‘汀理’(물시브리)와 ‘川理’(나리)의 ‘理’는 ‘물시브리’와 ‘나리’의 음절 말음 ‘리’를 표기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말음첨기법은 역상불역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차자법이다. ‘불역하’에 해당하는 차자가 ‘역상’에 해당하는 한자 훈의 발음을 표기하는 것이 말음첨기법이다. 신라의 불교학 승려들은 역상불역하의 방법을 창안하고, 이것을 더 정교하게 발전시킨 말음첨기법까지 만들어 낸 것이다. 역상불역하, 수서자지편, 말음첨기법과 같은 차자법은 한문자의 음운에 대한 지식을 신라어 표기를 위해 창의적으로 변용한 것이다.

역상불역하의 원리는 한자를 빌려 한국어 문장을 표현하는 데 유용한 장치였다.⁵¹⁾ 역상불역하의 원리는 한국어 문장에서 의미를 나타내는 어간 즉 의미부는 한자의 뜻을 빌려 표기하고, 조사와 어미 등 문법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부는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는 방식이다. 말음첨기법과 함께 역상불역하의 원리는 향찰 표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신라 특유의 향가 문학의 문자화를 가능케 하였다. 노랫말을 문자로 표기할 수 있게 된 것은 역상불역하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세기의 향가 연구자들이 향찰을 해독할 수 있었던 것은 역상불역하의 원리를 달리 표현한 훈주음종(訓主音從)의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역상불역하 원리는 음독법과 음가법, 훈독법과 훈가법과 결합하여 향가를 문자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 향가는 역상불역하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한 셈이다. 향가 표기를 통해 역상불역하 원리를 포함한 음차법과 훈차법이 더욱 정련된 표기 체계로 발달할 수 있었다. 어떤 사업이나 사건을 보고하고 기록한 이두 문서만 있었다면 신라의 독창적 차자법은 크게 발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역상불역하 원리는 신라어 문장으로 표현된 향가 가사를 문자화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많은 수의 불경의 주해와 논소가 저술되었음을 앞에서 본 바 있다.

원광법사가 세속오계를 만들어 화랑도의 행동 규범을 제시했고, 화랑도는 집단을 이루어 경서와 풍류도를 배웠으며, 이들의 교육 과정에 향가가 이용되었다. 화랑도 교육은 백제와 고구려에 없는 신라 특유의 청년 교육 제도였고, 향가 역시 신라 특유의 것이다. 역상불역하의 차자 표기법도 신라 특유의 것이니 지도자로서의 승려, 교육생으로서의 화랑, 이들이 지어 부른 향가, 향가를 표기하기 위한 역상불역하의 원리는 서로 밀접한 상관성을 맺으며, 차차표기법 발달의 배경이 되었다.

51) 정광(2003: 72)은 역상불역하를 ‘혼합표기’라 칭하고, 교착적인 우리말의 문법적 특징(어휘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간에 곡용과 활용어미가 결합하는 형태론적 절차)을 표기하는 데 유용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4. 참고 문헌

- 고광익(2022), 고구려 卷雲紋 명문 와당 연구, 『목간과 문자』 29, 한국목간학회, 111-139.
- 국립김해박물관(2020), 『문자로 본 가야』.
- 권인한(2005), 고대국어의 I-breaking 현상에 대한 일고찰 -‘섬’(島)의 음운사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 진단학회, 165-182.
- 권인한(2006), 어휘, 『신라의 언어와 문학』,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16권, 경상북도, 100-127.
- 권인한(2008), 신라 국호 이표기와 고대한국어 음운현상의 전개, 『구결연구』 20, 구결학회, 179-211.
- 권인한(2016), 신라어 연구 자료, 『신라의 언어와 문학』,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16권, 경상북도, 22-47.
- 권인한(2022), 『妙法蓮華經釋文』으로 본 통일신라의 한자 문화, 『영남학』 79,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35-173.
- 김도영(2022), 변한·가야의 문자 관련 고고 자료와 그 의의, 『목간과 문자』 29, 한국목간학회, 79-109.
- 김민수(2002), 차자표기 음독의 ‘隨書者之便’에 대하여, 『구결연구』 9, 구결학회, 5-18.
- 김양진(2010), 초기 한민족 형성기의 차자 표기 자료를 통해 살펴본 한민족어, 『어문논집』 61, 민족어문학회, 253-290.
- 김영만(2007a), 신라 지명 喙(韃)와 啄(탁)의 자음상 모순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명학』 13, 한국지명학회, 47-84.
- 김영만(2007b), 중원 고구려비의 국어학적 연구, 『구결연구』, 18, 43-65.
- 남풍현(1981a), 『차자표기법연구』 단국대학교 출판부.
- 남풍현(1981b), 한자·한문의 수용과 차자표기법의 발달, 『한국 고대문화와 인접 문화와의 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남풍현(1991), 신라 화엄경사경조성기에 대한 어학적 고찰, 『동양학』 2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29.
- 남풍현(2000), 『이두연구』, 태학사.
- 남풍현(2001),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나타난 설총 관련 기사 분석, 『어문연구』 29-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3-51.
- 남풍현(2002), 『구결연구』, 태학사.
- 남풍현(2006), 상고시대에 있어서 차자표기법의 발달, 『구결연구』 16, 구결학회, 5-26.
- 동국대학교 출판부(1976), 『한국불교전술문헌총록』.
- 박방룡(2019), 이차돈 사인 묘와 사당에 대한 단상, 신라문화유산연구 3, 신라문화유산연구원, 5-26.
- 박방룡(2020), 이차돈 순교비의 제검토, 『신라문화유산연구』 4, 신라문화유산연구원, 4-41.
- 박용진(2019), 고려 의천 찬 『신편제종교장총록』과 동아시아의 화엄 장소(章疏), 『신편제종교장총록 수록 문헌 총람』(고려대장경연구소), 197-228.
- 백두현(2018), 월성 해자 목간의 이두 자료, 『목간과 문자』 20, 한국목간학회, 273-301.
- 백두현(2019a), 이두, 『문자와 고대 한국 1』, 한국목간학회편, 한국목간학회연구총서 30, 후보돈교수 정년기념논총, 주류성, 125-151.
- 백두현(2020), 당대 자료로 본 훈독법의 생성 시기 고찰, 『구결연구』 45, 구결학회, 17-61.
- 서재극(1995), 『증보 신라향가의 어휘연구』, 형설출판사.
- 송기호(2002), 고대의 문자생활 -비교와 시기 구분, 『강좌 한국고대사』(제5권 문자생활과 역사서의 편찬), 가락국 사적개발연구원, 1-60.
- 신중진(1998), 말음첨기(末音添記)의 생성과 발달에 대하여 -음절말 자음 첨기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4, 구결학회, 85-114.
- 양주동(1965/1983), 『증정 고가연구』, 일조각.
- 양희철(1992), 향가의 기록 연대와 작가명, 『인문과학논집』 11, 청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5-46.
- 여호규(2009), 고구려 문자자료의 해독 원리와 실제, 제2기 문자학특강 2강(2009.4.10).
- 여호규(2011), 고구려의 한자문화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동북아역사재단), 87-126.
- 윤선태(2008), 목간으로 본 한자문화의 수용과 변용, 『신라문화』 32,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77-198.

- 윤선태(2011), 백제와 신라의 한자·한문의 수용과 변용, 『동아시아의 문자교류와 소통』(동북아역사재단), 127-160.
- 이문기(2005), 안압지 출토 목간으로 본 신라의 궁정 업무 -궁중 잡역의 수행과 궁정 경비 관련 목간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9, 한국고대사학회, 157-207.
- 이승재(2013), 신라목간과 백제목간의 표기법, 『진단학보』 117, 진단학회, 169-213.
- 이승재(2017), 『목간에 기록된 고대 한국어』, 일조각.
- 이영호(2010), 신라의 신발견 문자자료와 연구 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7, 한국고대사학회, 169-213.
- 이용현(2007a), 목간으로 본 신라의 문자·언어 생활, 『구결연구』 18, 구결학회, 107-139.
- 이용현(2007b), 문자 자료로 본 삼국시대 언어문자의 전개, 『구결연구』 19, 구결학회, 191-225.
- 이용현(2011), 목간을 통해본 한국의 문자와 언어, 『죽간·목간에 담긴 고대 동아시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75-209.
- 이우태(2005), 금석문을 통하여 본 한자의 도입과 사용 -신라 금석문의 ‘之’의 용례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8, 한국고대사학회, 113-134.
- 이장희(2003), 6세기 신라 금석문의 인명 접사 연구, 『언어과학연구』 26, 언어과학회, 227-252.
- 이장희(2016), 말소리, 『신라의 언어와 문학』,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16권, 경상북도, 68-99.
- 이장희(2018), 신라어 표기 발전과 설총(薛聰)의 공헌, 『설총과 문자 그리고 신라의 유학』, 삼성현역사문화관 학술총서 2, 131-239.
- 이희준(2016), 『개요/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문화편』 제2편 통일신라, 제5절 유학과 문학(이희준 집필),⁵²⁾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 정광(2003), 한반도에서 한자의 수용과 차자표기의 변천, 『구결연구』 11, 구결학회, 53-86.
- 주보돈(1999), 신라의 달구벌 천도 기도와 김씨 집단의 유래, 『백산학보』 52, 백산학회, 567-590.
- 주보돈(2001), 신라에서의 한문자 수용 과정과 불교 수용, 『영남학』 1,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91-224.
- 주보돈(2002a), 6세기 신라 금석문과 그 특징, 『신라 금석문의 현황과 과제』 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 23집,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121-150.
- 주보돈(2002b), 신라의 漢文字 정착 과정과 불교 수용, 『금석문과 신라사』, 지식산업사, 387-416.
- 주보돈(2009), 職名·官等·地名·人名을 통해 본 6세기 신라의 漢文字 정착, 『한국 고대사 연구의 현단계』 (석문 이기동교수 정년기념논총), 논총간행위원회, 주류성.

52) 여러 학자들이 나누어 집필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희준 제1편 제1장, 제3장 제1·2·4·6절 제2편 제1장 제1~3·5~8절.

이한상 제1편 제2장, 제3장 제5절 제2편 제1장 제9-10절.

임영애 제1편 제3장 제3절 제2편 제1장 제4절.

백제·신라 목간의 집계와 범례의 제안

오택현(동국대학교)·이재환(중앙대학교)

백제·신라 목간의 집계와 범례의 제안

오택현(동국대학교)·이재환(중앙대학교)

목차

- I. 머리말
 - II. 목간의 정리와 정의
 - III. 목간의 집계
 - IV. 표준 호칭의 제안
 - V. 범례와 코드
 - VI. 맺음말
-

I. 머리말

본 발표는 목간의 내용이나 출토 맥락, 외형의 의미 등 목간 연구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것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없어도 연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추후의 연구 전개를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기초적인 표준의 제안이라 하겠다. 사실 이러한 작업은 목간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졌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미 한국의 목간 연구가 저물어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늦었다고 여기겠지만, 발표자들은 이제 본격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며, 다량의 목간 출토에 대한 희망 또한 놓지 않고 있다. 아울러 처음 목간을 접하게 될 신규 연구자들이나 기존의 연구 흐름을 파악하기 어려운 대중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 하겠다.

발표자는 이미 목간의 정리·표준화와 범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¹⁾ ‘한국 출토 목간’의 정의와 표준 호칭 및 범례의 마련 등에 있어 표준화를 수행할 주체로 가장 적합한 것은 한국 목간학회로 보았으나,²⁾ 이를 ‘누가 어떻게’ 정할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에 ‘합의’와 ‘공인’의 절차를 거쳐 표준화의 결과물이 나오기를 촉구하는 데 그쳤을 뿐이었다.³⁾ 그러나 제안의 구체화 없이 ‘합의’와 ‘공인’의 진행은 불가능하였다. 본 발표는 그에 응하는 구체적인 제안에 해당한다.

궁극적으로 논의의 대상은 ‘한반도 출토 목간’이 되어야 하며,⁴⁾ 시기적으로도 흔히 ‘古代’로 간주되는 시기를 넘어 고려, 조선 등 다양한 시기를 포괄해야 할 것이다. 북한 평양에서 발견된 樂浪郡의 木簡·竹簡 및 신안군 증도 앞바다에서 出水된 신안선 목간은 각각 漢 簡牘과 日本 木簡(혹은 元 簡牘)의 범주에 포함되지만, 동시에 ‘한반도 출토 목간’의 집계에 빠질 수 없겠다. 그러나 낙랑 목간의 경우 현재 수량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고려·조선 목간

1) 이재환, 2019, 「한국 출토 목간의 분류와 정리 및 표준화 방안」, 『목간과 문자』 23호 및 2022, 「한반도 발견 목간의 형태 용어 검토」, 『목간과 문자』 29호.
2) 이재환, 2019, 앞의 논문, p.37.
3) 이재환, 2022, 앞의 논문, p.23.
4)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규정되는 한국의 영토에서 출토된 목간을 ‘한국 목간’으로 총칭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윤용구·이용현·이동주, 2022, 『한국목간총람(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자료총서 01)』, 윤재석 편저, 주류성, p.23), ‘한국’이라는 국가의 목간이라는 의미와 혼동될 수 있다.

등은 목간의 정의에 따라 전면적으로 재집계해야 할 여지가 있다. 고구려 목간의 경우 최근 1점이 막 보고된 상태이다.⁵⁾ 이에 본 발표에서는 일단 백제와 신라의 목간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목간의 정리와 정의

‘한국 목간’의 정리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된 성과들이 여러 차례 나왔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2004년에 발간하고 2006년에 개정판을 내놓은 『韓國의 古代木簡』이 당시 알려진 ‘한국 목간’ 대부분의 컬러 및 적외선 사진을 수록하고 번호를 붙임으로써,⁶⁾ 오랫동안 한국 목간 연구의 기본 자료 역할을 하였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백제 목간의 경우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이후 발견된 목간 및 석설들을 포괄하여 2008년에 『백제목간 - 소장품조사자료집』을 출간하였으며,⁷⁾ 2009년에는 국립부여박물관과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한 특별전 『나무 속 암호 목간』의 도록이 나왔는데,⁸⁾ 목간의 번호는 이미 『韓國의 古代木簡』에 소개된 경우 그것을 따랐다.

2011년에 발간된 『韓國木簡字典』 또한 그때까지 알려진 목간들 대부분의 적외선 사진, 판독문을 수록하였고, 각 목간들에 새로운 일련 번호를 부여하였다. 백제 목간의 경우, 백제의 출토 문자자료를 총정리한 2015년 『한국고대문자자료 연구 백제(상)-지역별』에도 각 유적별로 정리되었는데, 호칭은 각 발굴보고서를 기본으로 하였다.⁹⁾ 신라 목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은 2017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 발간한 『韓國의 古代木簡 II』에서 새로운 정의에 따라 재집계되고, 국가귀속번호를 호칭으로 할 것이 제안되었다.¹⁰⁾ 경주 지역 출토 목간의 경우, 2022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의하여 『신라 왕경 목간』으로 정리되었다.¹¹⁾

2022년 경북대학원 인문학술원 HK+사업단이 발간한 『한국목간총람』은 ‘한국 목간’을 총망라하여 집계·정리한 최신 성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¹²⁾ ‘부록 2 한국 출토 목간 일람표’에서는 백제 목간을 96점+125편으로, 신라 목간을 398편으로 집계하였다.¹³⁾ 그러나 이를 통

5) 박중균, 2022, 「몽촌토성 집수지 출토 목간」, 『新出土 文字資料의 饗宴【한국목간학회 제 37회 정기발표회】』.

6)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4, 『韓國의 古代木簡(學術調查報告 第25輯)』 및 2006, 『개정판 韓國의 古代木簡(학술조사보고 제32집)』.

7) 국립부여박물관, 2008, 『백제목간 - 소장품조사자료집』.

8)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나무 속 암호 목간』, 예맥.

9) 권인한·김경호·윤선태 편, 2015, 『한국고대 문자자료연구 백제(상) - 지역별-(한국목간학회 연구총서 01)』, 주류성.

10)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韓國의 古代木簡 II(학술총서 제69집)』.

11)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2, 『신라 왕경 목간』.

12) 윤용구·이용현·이동주, 2022, 『한국목간총람(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자료총서 01)』, 윤재석 편저, 주류성.

13) 위의 책, pp.575-578. 참고로 이 표의 목간 점수는 본문 중의 목간 점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 예를 들어 창녕 화왕산성 연지 출토 목간의 점수를 본문에서는 4점으로(p.391), 부록2에서는 5점으로 소개하였다(p.578). 백제 목간의 총 점수는 p.56의 <백제 목간 출토 현황>과 일치하나, p.54에서의 본문 서술 중에는 ‘97점 125편’이 출토되었다고 하여 차이를 보인다. 신라 목간의 경우도 pp.201-202의 <신라 목간 현황>에서는 398편이라고 하면서도, p.199 개요에서는 신라의 목간이 22개 유적에서 모두 383점 알려져 있다고 하여 역시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낙랑 목간은 131여 점, 고려·조선·신안선 목간을 합하여 600점으로 집계하였다.

해 백제와 신라 목간의 점수를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선 ‘96점+125편’이라는 표현에서 보이듯,¹⁴⁾ 삭설을 어떻게 집계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본적으로 목흔이 존재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는 듯하나, 실제로는 목흔이 보이지 않음에도 집계에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목흔이 존재하는데도 집계되지 않은 경우들 또한 확인되는 등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¹⁵⁾ 근본적인 문제는 목간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집계의 범례를 확실히 한 뒤 정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정의와 집계 범례에 따라 개별 유물의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목간을 ‘문자가 서사된 목제품’으로 규정하고, ‘捺印·印出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일 것을 제안한 바 있다.¹⁶⁾ 기본적인 정의에서 의도 혹은 목적을 배제한 것은 제작자의 의도와 목적의 파악은 궁극적으로 ‘추정’의 모호함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정의를 적용할 경우, 일반적인 인식과 큰 괴리가 생길 수 있다는 한계가 분명하다.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에서 출토된 문자가 서사된 刀子 손잡이나 나무 뚜껑 및 ‘甲’·‘乙’의 墨書가 확인된 무령왕릉 출토 王妃 頭枕은 보통 목간으로 인식하기 힘든 것들이며, 이들을 포함할 경우 모든 목제품(목기)를 대상으로 문자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 목간의 집계를 완전히 새로 할 필요가 발생한다.

개념 정의는 맞고 틀림이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유용하거나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선택할 대상이다.¹⁷⁾ 기존의 인식과 너무 차이가 큰 정의라면 널리 받아들여져 사용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기존에 목간이라 인식한 것들을 포괄하면서, 목간이라고 인식되지 않아 온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본적으로 ‘문자를 쓰기 위해 가공한 나무 조각에 문자가 서사된 것’이라는 정의를 설정한 뒤 단서 조항들을 부가하고자 한다.

日本에서 ‘墨書된 木片 總稱’으로 목간을 정의한 것과 달리 ‘문자가 서사된’이라 표현한 것은 刻書와 朱書 등을 배제하지 않고자 한 것이다.¹⁸⁾ 최대한 가능성을 살리는 방향성을 택하여, 문자의 판독이 어려운 상태라도 書寫의 흔적이 확인된다면 일단 목간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서사된 것이 문자가 아니라 그림이나 도형임이 명확한 경우에만 제외할 것이다. 예컨대 현재의 육면체 주사위와 같이 각 면에 점들만 찍혀 있는 木製 주사위가 발견된다면,¹⁹⁾ 이는 목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단, 日本의 呪符木簡처럼 일반적 문자가 아닌 符籙의 경우는 ‘광의의 문자’로 간주하여 포함시킨다.²⁰⁾ 署名이나 手決만 서사된 경우는 아직 확인된 바 없으나, 역시 ‘광의의 문자’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들만 존재하더라도 목간으로 볼 수 있겠다.

‘문자를 쓰기 위해 가공한’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은 앞서 언급한 문자가 있는 목제품들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을 위해 목간 등을 포함하여 제작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나무’라는 소재와 ‘문자’라는 요소가 결합된 것들을 포괄하는 범주로서 ‘木文’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해 본다. 재료 성질이 유사한 대나무 소재와 아울러 ‘竹木文’으로 묶는 것도 가능하겠다. 재료와 문자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金石文’, ‘金文’·‘石文’과 대비될 수 있는 범주가 된다.²¹⁾

14) 125편은 삭설(해당 저서에서는 ‘삭편’ 또는 ‘부스러기’로 표현)을 정리한 것이다.

15) 구체적인 검토는 III장에서 진행할 것이다.

16) 이재환, 2019, 앞의 논문, pp.17-22.

17) 위의 논문, p.20.

18) 위의 논문, p.21.

19) 신라 동궁과 월지 동편 연접 지역 가지구 4호 건물지군 1호 우물에서는 정육면체에 點이 새겨진 주사위가 출토된 바 있는데(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2, 『慶州 東宮과 月池 I 발굴조사보고서(학술연구총서 75)』, pp.368-372), 재질은 骨製이다.

20) 이재환, 2019, 앞의 논문, p.21.

‘문자를 쓰기 위한다’는 의도·목적의 정의를 포함시킴으로써 목제 刀子·목제 뚜껑·木枕 등 일반적으로 목간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들을 배제할 수 있지만, 목적 파악의 모호성은 분명 한 게이자 문제가 될 것이다. 역시 최대한 가능성을 살리는 방향성을 택해서, 문자 서사 이외의 목적이 분명한 목제품(목기)에 문자가 附記된 경우는 제외하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는 일단 목간으로 간주한다.

창녕 화왕산성 연지에서 출토된 화왕산성 목간4는 人形에 그림 및 글자가 서사되었으며, 부여 능산리사지 출토 능산리002는 男根形에 글자가 刻書·墨書되었다.²²⁾ 인형이나 남근형은 문자 없이도 존재하는 물건들이지만, 문자를 서사한 것 또한 해당 인형·남근형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목간에 포함시킨다. 안성 죽주산성의 집수시설에서 출토된 죽주산성 목간2는 한 면에 눈금으로 여겨지는 일정한 간격의 刻이 있어 자(尺)로 추정하는데, 한 면에 ‘千□仁’의 문자가 묵서되었다. 눈금만 존재한다면 제외해야 하겠지만, 문자가 서사되었고 서사된 문자와 자(尺)의 제작 목적·의도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일단 목간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木印이나 木版은 문자를 쓴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것으로서, 별도로 날인이나 인쇄를 목적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아야 목간에서 배제할 수 있게 된다.²³⁾ 안압지 주령 주사위 또한 애초에 문자 서사를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목간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겠다. 만약 문자가 새겨진 목제 장기알과 같은 것이 발견된다면 이 또한 목간의 범주에 포함될 것이다.²⁴⁾

문제가 되는 것은 懸板이나 柱聯의 경우이다. 이들은 문자를 서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형태상 장방형 판으로서 일반적인 목간과 구분할 수 없다. 크기는 보통 목간으로 간주하는 것들보다 크지만, ‘視覺機能’에 의미를 부여한 대형의 ‘視覺木簡’ 또한 상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크기를 목간의 정의에 포함시킨다면 기준 설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양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들을 모두 목간에 포함시킬 경우 집계와 정리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 목간학회처럼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것”으로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현판·주련은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현판·주련이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경우에는 목간에 포함시켜 정리해야 할 것이다. 추후 고려나 조선의 목간에 대한 집계·정리 과정에서는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하겠다. 이상의 정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목간이란 문자를 쓰기 위해 가공한 나무 조각에 문자가 서사된 것을 가리킨다.

- ① 발굴조사를 통해 발견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 ② 날인이나 인쇄를 목적으로 한 것은 제외한다.
- ③ 문자 서사 이외의 목적이 분명한 목제품에 문자가 부기된 경우 또한 제외한다.
- ④ 목적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는 일단 목간으로 간주한다.

21) ‘金石文’이 물건이 새겨진 물건 자체라기보다 물건에 새겨진 문자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木文’ 혹은 ‘竹木文’ 또한 해당 소재의 물건에 새겨진 물건을 지칭한다. 목간은 보통 물건 자체를 의미하므로, ‘木文’이 단순히 목간의 상위 범주는 아니게 된다. 다만 ‘목간’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없는 문자가 있는 목제품(목기)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것이다.

22) 목간의 호칭은 본 발표문의 제안 호칭을 따른다. 제안 호칭에 대한 내용은 IV장에서 다룰 것이다.

23) 이재환, 2019, 앞의 논문, pp.21-22.

24) ‘주사위나 장기알은 제외한다’ 등의 단서 조항을 더 넣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제외 이유를 포괄적으로 설정하기 어려우며 과도한 예외성을 가지는 조항으로 보인다는 면에서 추가하지 않았다. 이들을 배제해야 한다는 학계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항을 만들 수 있겠다.

- ⑤ 문자의 판독이 어려운 상태라도 서사의 흔적이 확인된다면 일단 목간으로 간주한다.
- ⑥ 서사된 것이 문자가 아니라 그림·도형임이 명확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⑦ 일반적 문자가 아닌 符籀이나 署名·手決 등도 광의의 문자로 간주한다.

III. 목간의 집계

앞의 정의에 기반하여 목간을 정리·집계한 것이 <별표>이다. 하지만, 목간의 정의만으로 집계 작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 먼저 현존하지 않거나, 현재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목간들이 문제가 된다. 안압지 20호·안압지 21호·안압지 22호는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며,²⁵⁾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목간에 포함해야 할 안압지 주령 주사위는 현존하지 않는다. 단, 발굴보고서에 안압지 주령 주사위와 안압지 22호는 사진과 치수 정보가, 안압지 21호는 치수 정보와 판독안이 남아 있으며, 안압지 21호도 판독안은 존재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에 활용이 가능하며, 안압지 주령 주사위의 경우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때문에 이들을 <별표>에서 빼지 않았다. 한편, 하나의 목간이 여러 점으로 나누어진 것으로서 그 접합이 인정된 경우는 1점으로 파악하였으며, 삭설(목간 부스러기)은 각각 1점의 목간으로 간주하였다. 길이와 너비, 두께 등 치수는 현존 최대를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종횡비 등의 계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순서는 백제, 신라 각각 출토 유적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고, 각 출토지 내에서는 제안 호칭의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별표>에는 [자료 목록]을 붙여, 어떤 자료에 기반한 것인지 알 수 있게 하였다. 관련된 연구의 나열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호칭의 기준이 된 자료들만을 모은 것이다. 대표적인 자료집이나 도록은 다음과 같이 약칭하였다. 본 발표문에서도 이후로는 해당 약칭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표 1. 주요 자료의 약칭

서명	약칭
『文字로 본 新羅 - 新羅人の 記録과 筆跡』	신라
『韓國의 古代木簡(學術調查報告 第25輯)』	목간
『新羅文物研究』創刊號	문물
『백제목간 - 소장품조사자료집』	백제
『나무 속 암호 목간』	나무
『年報』2008년 제19호	연보19
『韓國木簡字典』	사전
『한국고대문자자료 연구 백제(상) -지역별-(한국목간학회 연구총서 01)』	연구
『韓國의 古代木簡 II(학술총서 제69집)』	목간 II
『한국목간총람(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자료총서 01)』	총람
『신라 왕경 목간』	왕경
『백제 사비기 목간(부여의 문화유산_06)』	사비

25) 이재환, 2022, 「신라 왕경 출토 목간의 재조사 결과와 과제」, 『목간과 문자』 28호, pp.48-50.

<별표>의 ‘보고서’列에는 발굴조사보고서의 호칭을 넣었다. ‘소개’列은 보고서 발간 이전에 먼저 소개된 경우 최초 소개된 논저에서의 호칭을 넣은 것이다. 구분이 필요한 경우 마지막 괄호 안에 해당 논저의 발간 연도를 넣었다. ‘기타’에는 列로 설정되지 않은 여러 호칭들을 정리하였는데, 각 호칭 뒤의 괄호 안에 서명의 약칭이나 연도를 넣어 구분하였다. 출토지별로 보고서를 제외한 동일한 연도의 논저가 존재할 경우 연도에 a·b·c 등을 붙였으며, 각각 [자료 목록]의 해당 출토지 부분에서 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별표>의 집계에는 기존의 집계와 차이를 보이는 부분들이 많다. 부여 관북리 ‘보고서’의 목간 ②는 ‘목간’에 수록되었으나, ‘보고서’에서 “표면에 묵서한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고 명기하였으며 ‘자전’에서도 제외되었다. 이번 목록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고서3’의 ‘810. 목간형목제품[도면 224, 사진 681]’은 보고서에서 목흔이 확인되지 않는 ‘목간형목제품’임을 명시하였다. ‘목간’에 292로, ‘자전’에 [官]8로 수록되었으나, 해당 적외선 사진에 목흔이 보이지 않는다. ‘목간’에 287로, ‘자전’에 [官]7로 수록된 보고서의 ‘813. 목간형목제품[도면 224, 사진 681]’ 역시 목흔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보고서3’의 ‘831. 목간[도면 224, 사진 681]’은 ①과 ②의 두 점을 대상으로 부여된 번호이나, ②는 묵서흔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되었다. 목록에 포함된 관북리003은 ①만을 가리킨다. 한편 ‘보고서3’의 ‘838. 목간[도면 226, 사진 685]’은 기존의 목간 집계에 거의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면부에 묵서흔이 관찰된다고 언급되었고, 최근 ‘사비’에서 ‘□[三]石’이라는 판독안이 제시되기도 하여 관북리013으로 추가하였다. ‘보고서3’의 ‘827. 목간형목제품[도면 225, 사진 684]’은 목흔이 없으나 새겨진 듯한 흔적이 있어 보고서에서 이를 “‘二’자와 비슷하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자로서 의도적으로 새긴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가능성을 남겨 목록에 관북리003으로 포함시켰다. 이렇게 파악하면 관북리 출토 목간은 모두 9점으로 ‘총람’에서 집계한 7점보다 2점 많다.

부여 구아리 출토 목간의 경우 ‘총람’의 집계에서 8점으로 계산하였는데, “목간 혹은 목간형 목제품은 총 13점 출토되었으며, 그중 목흔이 확인되는 것은 10점이고, 판독되는 것은 8점이다.”라는 언급에서 확인되듯,²⁶⁾ 목흔이 존재함에도 판독이 안되는 것은 제외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서’에서 ‘목간’으로 소개한 13개 중 묵서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 것은 4점(8번 목간·33번 목간·49번 목간·91번 목간)으로서 목흔이 확인되어 목간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9점이 된다.

부여 능산리사지의 ‘보고서’에서 ‘6차 조사 목간 ⑦’은 목간으로 소개되었으나, 목흔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목록에 넣지 않았다. 한편 6차 조사 중 S120W60~40 구간 황갈색 모래층 하단 흑색 니질토에서 14편의 목간 꺾질(삭설)들이 일괄 출토되었다고 하며, 도판 141-4에 이들의 사진이 수록되었는데, 번호가 부여된 것은 ①~⑥의 6편뿐으로 7편은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번호가 붙은 6편 중 ④는 도면 54-4 및 본문에 도면이나 판독문이 실리지 않았다. 그러나 사진 상 도판 141-4의 ④ 또한 목흔이 보여 삭설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연구’에서도 삭설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에 141-4의 ④를 포함하여 능산리사지 6차11-1~11-6으로 목록에 넣었다.

최근 ‘사비’에서는 이들을 일괄하여 ‘능산리036’으로 넘버링하고 2편이 접합된 1점을 포함하여 8점의 삭설이라고 하였다. 접합은 이미 보고서 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접합된 것이 능산리사지 6차11-2에 해당한다. 적외선 사진은 6점만 제시하였는데, 이들은 ‘보고서’의 도판 141-4에서 넘버링이 부여된 것들이다. 하지만 컬러 사진이 추가로 제시된 2점 또한 목흔의

26) 윤용구·이용현·이동주, 2022, 앞의 책, p.61.

존재는 분명하다. 적어도 이들은 목간 집계에 포함되어야 하겠다. 현재 정해진 호칭이 없기에 임의로 ‘보고서’ 도판 141-4 기준으로 ④의 바로 우측에 있는 것(사비-능산리036 사진 중 최우측 위쪽)을 ⑦로, 그 오른쪽의 것(사비-능산리036 사진 중 ⑦의 원편)을 ⑧로 간주하여, 각각 능산리사지 6차11-7·8로 집계에 포함시켰다. 남아 있는 6편 중에도 문자가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실물 확인이 어려워 일단 제외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삭설의 정리와 넘버링 필요하다.

‘총람’에서는 능산리사지 출토 목간 중 삭설을 제외한 것을 29점으로 집계하였는데, 이는 능산리020(능산리사지 6차8호, 목간-314, 자전-20)을 빼놓은 것으로, 이를 포함하면 30점이 된다. 아울러 삭설이 125편이라고 하였으나, 그것은 ‘백제’에 능17로 소개된 것들만을 집계한 것이다. 그 밖에 앞서 언급한 능산리사지 6차11-1~8의 8점 및 능산리사지 6차9호, 능산리사지 6차10호, 능산리사지 7차8-1호, 능산리사지 7차8-2호, 백제-능12, 백제-능13, 백제-능14, 백제-능15 등도 삭설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능산리사지 출토 삭설은 141점이며, 앞의 30점을 합하면 능산리사지 출토 목간은 총 171점이 된다.

부여 쌍북리 56번지 출토 쌍북리039(목간9, 보고서-79), 쌍북리046(목간3, 보고서-235), 쌍북리050(목간12, 보고서-464), 쌍북리054(목간16, 보고서-537)은 ‘총람’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목흔이 존재하는 것으로서 목록에 포함시켰다. ‘총람’에서는 목간 점수를 17점으로 집계하였으나, 이는 목흔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 것이다. ‘보고서’에서 목흔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6점(목간4(보고서-98), 목간5(보고서-230), 목간6(보고서-231), 목간7(보고서-232), 목간8(보고서-108), 목간14(보고서-536))을 제외하면, 해당 유적 출토 목간은 11점이 된다.

부여 쌍북리 184-11번지 출토 목간은 2점으로 집계하였으나, 목흔이 없는 것 1점이 포함된 것이다. 부여 쌍북리 현내들 출토 쌍북리011(보고서-85-4), 쌍북리016(보고서-86, 자전-14)는 ‘총람’의 ‘목흔이 확인되는 7점’에서 빠졌지만, 목흔이 인정되므로 포함시켰다. 반면 보고서의 85-6(자전-8), 85-9(자전-7), 85-10(자전-10) 및 자전-9·12·13은 목흔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부여 쌍북리 현내들 출토 목간은 모두 9점이다.

경주 월성해자 출토 목간의 경우 ‘총람’에서 33점으로 집계하였는데, 1980년대 1-②호 해자에서 출토된 목흔이 확인되는 목간이 25점이고, 월성 ‘다’구역 1~3호 해자 발굴조사 중 출토된 목간이 8점이라 하였으니, 목흔이 확인되는 것들을 더한 숫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왕경’에서 파악한 숫자는 38점으로 차이를 보인다. 최근 성과인 ‘왕경’을 기준으로 목록을 작성하였다. 경주 안압지 출토 목간의 경우도 ‘왕경’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새로운 정의에 맞추어 안압지 주령 주사위를 추가하였다.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유적 출토 목간을 ‘총람’에서는 2점으로 파악하면서, 그 중 1점은 적외선 촬영을 하지 않은 상태라 목간형 목제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왕경’에서는 목흔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여 제외하였으므로, 이에 따른다. 경주 황남동 376번지 유적 출토 경주42560(3-3)은 ‘왕경’의 목록에 들어갔으나 사진이 수록되지 않았으며, 황룡사남측도로 30호는 ‘왕경’에 포함되지 않았다. 모두 목간으로 인정하여 목록이 포함시켰다. 대구 팔거산성 출토 목간의 점수는 ‘총람’에 15점으로 집계되었지만, 애초에 16점으로 소개하면서 ‘글자가 있는 목간은 10점’이라고 하였으므로,²⁷⁾ 목간으로는 10점만 포함시켜야 하겠다.

하남 이성산성출토 목간 중 보고서3-7·8·9·10(그림 44-①·②·③·④, 사진 107)은 ‘보고서3’에서 “墨書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고, “넓은 한쪽에 墨書를 하였는데 判讀되는 글자는 없다”고 하여, 목흔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목간’에는 각각 목간-137·136·138·135

27) 전경효, 2022, 「대구 팔거산성 출토 목간 소개」, 『목간과 문자』 28.

에 해당하는 ‘墨書없는 목간’으로 소개되었으며, 적외선 사진도 없었고 개정판에서는 제외되었다. ‘목간’에 목간으로 수록되었던 목간-122 또한 개정판에는 목흔이 인정되지 않아 빠졌다. 목흔 여부에 대한 재검토의 판단을 따라 이들을 목록에 넣지 않았다.

한편 ‘보고서7’에는 목간 1~6 6점이 보고되었지만, 목흔이 확인된다고 한 것은 목간4(목간-120, 자전-3)와 목간5(목간-121, 자전-4) 2점뿐으로, 이들이 부록1 문환석·황진주, 「이성산 성출토 목간 적외선촬영 결과」의 적외선 촬영 대상이 되어 목간 1·목간 2로 지칭되었다. ‘보고서8’에서는 C지구 저수지로부터 목간 7점이 출토되었는데, 목흔이 확인되는 것은 3점의 잔편이며, 판독이 가능한 것은 高句麗 木簡 1점 뿐이라고 하였다. 소위 ‘고구려 목간’은 ‘보고서8’의 본문 중 木簡 1(목간-117, 자전-5)에 해당하며, 목흔이 확인된다는 3점의 잔편은 木簡 2(목간-123), 木簡 5(목간-124), 木簡 6(목간-127)에 해당한다. 재정리하면 하남 성산산성 출토 목간은 12점으로서, ‘총람’에서 집계한 14점과 차이를 보인다.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은 ‘목간Ⅱ’에서 국가귀속번호를 기준으로 일괄 정리된 바 있어, 이때 집계된 245점이 전체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재검토 결과 ‘목간Ⅱ’에 포함되지 않은 목간들을 발견하였다. 성산산성 보고서2-85(자전-93)는 사진상 목흔이 분명하며, ‘보고서2’에서도 ‘一面墨書木簡(도면 73-③한, 사진 113-①)’로 소개된 바 있으므로 목간으로 간주해야 한다. ‘자전’과 ‘보고서2’에서 위아래를 반대로 파악하였는데, ‘자전’의 판단을 따르겠다. 성산산성 보고서2-88(목간-58, 자전-94)은 제첨축이며, ‘보고서2’에 ‘一面墨書題籤軸(도면 74-①, 사진 114-①)’로 소개되었으며, “利豆(村)”이라는 판독안까지 제시된 것이다. 자전-95·96·97·98·99은 2007년 11차 현장설명 자료에서 2002년 출토품으로서 도록번호 A·B·C·D·F에 해당한다고 제시한 것이지만, ‘보고서2’와 ‘보고서3’에 모두 수록되지 않았다. ‘자전’의 사진상 목흔의 존재가 확실하므로 목록에 포함시켰다. 성산산성 보고서3-1(목간-51)은 ‘목간’에 ‘一面墨書木簡’으로 적외선 사진이 수록되었으며, 목흔이 인정 가능하다. ‘보고서3’의 최종저수지 하층 출토 ‘일면목서목간(7.5YR 2.5/2)’로서 도 12-④, 사진 11에 해당한다. 역시 목록에 포함시켰다.

한편 성산산성 보고서2-64(목간-98, 자전-88)와 보고서4-106·107(자전-205·206) 역시 ‘목간Ⅱ’에 수록되지 않았는데 이들은 목흔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러한 경우 ‘목간Ⅱ’의 ‘목간형 목기’ 목록에 포함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 혼란을 준다. 일단 ‘목간Ⅱ’의 목흔 존재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목록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재집계하면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은 8점이 추가되어 모두 253점이 된다.

<별표>의 목록에 따라 새롭게 집계한 백제·신라 목간은 모두 660점이며, 현존하지 않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4점을 제외하면 656점이다. 백제와 신라의 국적 논란이 있는 동남리001을 일단 백제 목간으로 간주할 경우, 백제 목간은 삭설 141점을 포함하여 총 251점이며, 신라 목간은 409점이다(망실 4점 포함). 이제 우리는 백제와 신라의 목간 수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IV. 표준 호칭의 제안

한반도 출토 목간의 집계와 정리 과정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 중 가장 큰 것은 목간을 부를 호칭의 복잡함이라고 하겠다. ‘목간의 일련번호 확정’은 한국 목간의 정리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²⁸⁾ 최초 소개 당시의 번호와 2004년 ‘목간’에서 붙인 번

호, 2011년 ‘자전’의 번호 및 각 발굴보고서의 번호 등 계속해서 새로운 일련번호가 부여되면서, 검색과 식별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²⁹⁾

한반도 출토 목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목간’은 함안 성산산성부터 시작하여 각 유적 별로 번호를 새롭게 매기지 않고 연이어 번호를 부여하였는데, 1번부터 시작하는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번호도 보고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³⁰⁾ 대체로 연구자들은 ‘목간’의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목간’ 발간 이후로도 해당 유적에서 목간의 출토는 이어졌다. 2011년에 발간된 ‘자전’은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알려진 목간까지 포괄하였지만, ‘목간’ 및 보고서들과 다른 새로운 번호를 부여하였다.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하여, 2017년 발간된 ‘목간Ⅱ’에서는 17차에 걸친 발굴 성과를 총괄하여 출토 목간을 국가귀속번호로 정리하고 기존의 호칭들과 대비할 수 있는 표를 수록하였다. 해당 범례에서 앞으로 함안 성산산성 목간연구에 있어 목간번호는 국가귀속번호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이후 여러 연구자들이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목간Ⅱ’에서 편의상 수록 순서에 따라 붙인 연번을 사용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2022년 발간된 ‘총람’은 이 연번을 기본으로 사용하기에 이르러 여전히 혼란의 여지가 남게 되었다.

사실 국가귀속번호를 목간의 기본적인 호칭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경주 출토 목간을 정리하여 2022년에 발간한 도록 ‘왕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출토 위치를 알려주는 그리드 번호와 정리 과정에서 동일 유적·유구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정리 번호·임시번호, 보고서 간행 과정에서 부여되는 번호, 유물을 국가에 귀속하는 과정을 거치며 부여되는 국가귀속번호 등 다양한 번호가 부여될 수밖에 없으며,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번호인 국가귀속번호를 목간의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간의 열람 등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다.³¹⁾

다양한 번호의 부여가 필연적인 것이며, 각 단계의 정리 과정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지적은 중요하게 받아들일 만하다. 단, 식별과 검색을 위해서는 대표로 사용할 기본 호칭의 선택이 필요하다. 그러한 대표 호칭으로서 국가귀속번호는 적절하지 않다. 현실에서 목간의 열람은 국가귀속번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지 않는다. 애초에 일반 연구자들은 해당 관리 기관에 문의하지 않고서는 국가귀속번호를 파악할 수 없으며, 국가귀속번호를 알기 위해서 먼저 다른 번호를 통해 일치하는 목간을 식별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애초에 관리 기관에서 국가귀속번호에 기반하여 목간을 관리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정작 ‘왕경’에서 경주 출토 목간을 정리하면서 국가귀속번호를 기본 호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 경주 목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안압지 출토 목간의 경우 국가귀속번호가 확인되지 않았다. 오래전에 이관된 유물로서 국가귀속번호가 부여되지 않고 소장품 번호로 관리되고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경주 월성해자 출토 목간 중 1980년대에 출토된 것들은 국가귀속번호가 존재하나 소장처에서 보고서 번호와 일치하는 유물번호를 사용하여 정리하였다. 국립경주미술관부지 출토 경주15715와 전황복사지 출토 목간은 국가귀속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부지 출토 경주15596과 경주

28) 윤선태, 2013, 「목간의 형태와 용도분류에 대한 기초적 제안」, 한국목간학회 제17회 정기발표회 발표문, p.1.

29) 이재환, 2019, 앞의 논문, p.23.

30) 최상기, 2013,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정리현황 검토」, 『목간과 문자』 11호, p.82; 이재환, 2019, 앞의 논문, p.23.

31) 김재홍, 2022, 「한국 고대 목간의 분류 방안」, 『신라 왕경 목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pp.14-19

15597에 ‘新館우물62’이, 경주 황남동 출토 목간 3점에 ‘1280’이 부여되는 등 국가귀속번호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출토 경주49090이나 경주 전인용사지 출토 목간의 국가귀속번호는 각각 ‘2011-0373-0000668’, ‘2002-0387-추가-578’로서 기본 호칭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국가귀속번호 사용 제안은 일반화하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었다.

특히 국가귀속번호는 발굴과 정리가 마무리되고 유물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부여되므로, 이전 단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새롭게 발굴되는 목간들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별도의 호칭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른 번호가 통용되는 상태에서 국가귀속번호 부여 이후 이를 기본 호칭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이는 애초에 혼란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원칙을 정하는 것이 된다. 때문에 최종적 번호인 국가귀속번호는 목간의 표준적 호칭으로 추천할 수 없다.

단, 이미 여러 호칭이 난립한 상태로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제안된 기준이 있다면 따르는 것이 하나라도 새로운 호칭을 덜 만드는 방향성이 된다. 이에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의 경우 <별표>에서도 ‘목간Ⅱ’의 범례를 따라 국가귀속번호를 제안 호칭으로 채택하였다. 물론 이것이 향후 국가귀속번호에 따른 정리를 권장한다는 의미가 아님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일련번호가 확정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호칭을 표기하는 방식이 연구자마다 혹은 상황 별로 다르기 때문에, 검색의 편의를 위해서는 호칭 표기의 典範이 마련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³²⁾ <별표>의 ‘제안 호칭’이 바로 그것이다. 제안 호칭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해당 목간이 처음 학계에 소개될 때 부여된 넘버링이 있다면, 가능한 한 바꾸지 않고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한다.
- ② 이미 여러 호칭이 난립한 상태로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최신 보고서나 도록·자료집에서 제안된 기준이 있다면 가능한 이를 따른다. ※ ‘사비’·‘왕경’·‘목간Ⅱ’
- ③ 최초 소개 시의 번호를 기준으로 간략화한 출토지명 다음 한 칸 띄우고 ‘목간’을 쓰고 아라비아 숫자 번호를 공백 없이 붙여 쓴다. ex) 동남리49-2 목간3
※ 1개뿐임이 분명하고 추가 발굴·확인 여지가 없어 번호를 붙일 의미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목간’이라고만 표기한다. ex) 소월리 목간
- ④ 다양한 넘버링이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 ‘출처-번호’의 방식으로 표기한다.
※ 번호 숫자 다음에 ‘호’·‘번’ 등은 붙이지 않는다.
- ⑤ 출처는 각 보고서의 경우 ‘보고서’로 일괄하고, 보고서 간 구분이 필요할 경우 보고서 차수 등을 뒤에 붙인다. ex) 보고서3·보고서6
- ⑥ 해당 유물에 대한 보고서가 단일할 경우 ‘보고서’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번호 다음에 ‘호’를 붙인다. ex) 보고서-1 = 1호
※ 이 경우 발굴보고서에서 ‘번’ 등으로 호칭한 것도 ‘호’로 바꾸고, 로마자나 원·괄호문자 역시 일반 아라비아 숫자로 바꾸어 표기한다.
- ⑦ 이외의 출처 중 주요한 것은 약호를 사용하고, 그 밖의 것들은 연도를 표기한다. 동일 연도는 a·b 등으로 구분한다.
※ 약호 및 연도는 [자료목록]의 해당 부분을 참고한다.
- ⑦ 출토 유적명은 처음 보고되었을 당시의 명칭을 계속 사용하며, 필요시 현재의 명칭을

32) 이재환, 2019, 앞의 논문, pp.25-26.

괄호에 넣어 부기한다.

⑧ 해당 행정구역에서 최초 보고일 때는 유적명에 번지 등 구체적 구분을 붙이지 않는다.

①은 추후의 목간 소개 및 정리 과정에서 근본적 원칙으로 제안한다. ②에 따라 함안 성산 산성 출토 목간은 ‘목간Ⅱ’에서 제안한 국가귀속번호를 제안 호칭으로 삼았다. ‘목간Ⅱ’에 빠진 목간들 중 보고서에 수록된 3점은 성산산성 보고서2-85·성산산성 보고서2-88·성산산성 보고서3-1으로 표기하고, 보고서에도 확인되지 않는 5점은 ‘자전’을 출처로 하여 성산산성 자전-95~99로 표기하였다.

경주 출토 목간 또한 ‘왕경’의 표기를 기본으로 하였다. 안압지 1호의 경우 ‘왕경’에서 안압지 보고서-1로 표기하였는데, ⑥에 따라 안압지 1호로 압축하였다. 월성해자 1호~105호의 경우도 ⑥에 따라 ‘왕경’의 표기와 일치하게 되었다. 한편 2016년 이후 출토 월성해자 목간들은 ‘왕경’에서 임시번호를 표제로 달았으나, 너무 복잡하여 그대로 사용하기 어렵다. 이에 임시번호 중 연도와 ‘임’을 뺀 마지막 숫자 부분만을 추려서 제안 호칭을 만들었다.

백제 목간의 경우 최근 ‘사비’에서 기존의 목간 대부분을 정리하면서 새로운 번호를 부여한 바 있다. 일부 ‘자전’이나 보고서와 일치하는 예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의 ‘목간’·‘백제’·‘자전’ 등과 다른 새로운 번호 체계를 만들었으며, 체계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 결코 권장할 만한 정리 방식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정리에서 또다시 새 번호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②에 따라 해당 번호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백제 목간은 기본적으로 ‘사비’의 번호를 제안 호칭으로 가져오되, 유적 명칭과 번호 사이의 공백을 삭제하여 분리되지 않게 하였다. 아울러 ‘사비’에 수록되었으나 목간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들은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최근 알려지게 된 관북리 보고서6-284·285와 정읍 고사부리성 출토 목간 등은 ‘사비’에 수록되지 않아, ③에 따라 표기하였다. 부여 동남리 49-2번지 출토 목간은 5점인데 ‘사비’에는 동남리002, 동남리003만 수록하였다. 일괄하는 편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최초 소개 번호를 기준으로 ③을 따랐다. 능산리사지 6차5호 또한 누락되어 ⑥에 따라 표기하였다. 여기서 6차·7차는 보고서의 발간 차수가 아니라 동 보고서 내의 발굴차수 구분이므로 번호에 붙여 표시하였다. 능산리 사지 출토 석설의 경우 ‘사비’에서 일부만 수록하여 일관성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비’의 번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보고서에 수록된 석설들은 ⑥에 따라, ‘백제’에만 수록된 것은 ④의 방식을 써서 제안 호칭을 만들었다.

한편 김해 봉황동 저습지 유적 출토 논어목간의 경우 보고서보다 빨리 수록한 ‘목간’을 출처로 하여 봉황동 목간-147을 제안 호칭으로 삼았다. 익산 미륵사지 출토 목간은 보고서에서 큰 목간편과 작은 목간편으로만 구분하였으므로, 역시 ‘목간’을 출처로 미륵사지 목간-318과 미륵사지 목간-319로 표기하였다.

앞으로도 새로운 목간이 알려지는 대로 제안 호칭을 추가하여 목록을 꾸준히 업데이트해 나가고자 한다. 한국목간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와 단행본 등에서 제안 호칭을 사용하고, 나아가 그 밖으로도 제안 호칭의 사용이 확산될 수 있다면, 향후 검색과 식별에 혼란이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본다.

V. 범례와 코드

한국목간학회에서 사용할 목간의 정의를 정하여 범례로서 학술지에 수록하게 된다면, 그 밖에도 공통된 기준이 필요한 것들의 범례 또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먼저 판독문 작성을 위한 범례가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동일 기관이나 학회 발행 논저 내에서도 통일성을 찾기 어려워, 거의 연구자별 혹은 각 논저별로 다른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³³⁾ ‘목간Ⅱ’에서 판독문 사용 기호의 범례를 제시한 바 있으나, 몇 가지 수정할 부분이 있었다. 이에 ‘왕경’에서 사용한 범례를 기본으로 몇 가지 필요한 사항을 추가한 범례를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로쓰기>

- 각 면은 순서대로 I·II·III 등 로마자 숫자로 표시한다. 多面의 경우反시계방향으로 면의 순서를 정한다. 앞·뒤와 순서 파악이 불가능하면 기존에 소개된 면 표기 기호를 따른다.
- 「」는 상·하단이 원형대로 남아 있음을, ×는 단부가 파손되었음을 나타낸다. 한 면이 여러 행일 경우 첫째 행의 제일 앞과 마지막 행의 끝에 표시한다.
- ∨는 상·하단의 홈을, ◎는 구멍이 뚫린 것을 표시한다.
- 行이나 띄어쓰기는 목간의 상태를 반영하여 표기한다.
- 판독 불가능한 글자 중 글자 수 파악이 가능한 경우 한 자씩 □로 표기하고, 글자 수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ㄷ□로 표기한다.
- 글자의 일부분만은 확실한 경우 □ 안에 해당 부분을 표시할 수도 있다.
- 추정된 글자는 [] 안에 넣는다.
- 異筆·追筆·刻書 등은 『 』 안에 넣고 주석을 달아 설명한다.
- 畵字는 점선의 밑줄로 표시한다.
- 확인부는 √로 표기한다.
- 署名·花押·手決은 【】로 표기하고, 원래의 문자를 파악 가능한 경우 그 안에 넣어 표시한다.
- 각종 기호·부호는 형태가 유사한 유니코드 문자로 표기하고, 유니코드에 해당 형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한 뒤 주석을 달아 설명한다.
- 가로·세로는 문자를 기준으로 파악하되, 문자의 판독이 어려울 경우 나뭇결 방향을 세로로 간주한다.
- 위·아래는 문자를 기준으로 파악하며, 면에 따라 문자의 서사 방향이 다를 경우 내용상 첫째 면의 방향을 정방향으로 본다.

<세로쓰기>

- 각 면은 순서대로 I·II·III 등 로마자 숫자로 표시한다. 多面의 경우反시계방향으로 면의 순서를 정한다. 앞·뒤와 순서 파악이 불가능하면 기존에 소개된 면 표기 기호를 따른다.
- ㄱ는 상·하단이 원형대로 남아 있음을, ×는 단부가 파손되었음을 나타낸다. 한 면이 여러 행일 경우 첫째 행의 제일 앞과 마지막 행의 끝에 표시한다.

33) 이재환, 2019, 앞의 논문, p.26.

- <는 상·하단의 홈을, ◎는 구멍이 뚫린 것을 표시한다.
- 行이나 띄어쓰기는 목간의 상태를 반영하여 표기한다.
- 판독 불가능한 글자 중 글자 수 파악이 가능한 경우 한 자씩 □로 표기하고, 글자 수를 알기 어려운 경우는 □□로 표기한다.
- 글자의 일부분만은 확실한 경우 □ 안에 해당 부분을 표시할 수도 있다.
- 추정한 글자는 ㄱ ㄴ 안에 넣는다.
- 異筆·追筆·刻書 등은 ㄱ ㄴ 안에 넣고 주석을 달아 설명한다.
- 습字는 점선의 우측 줄()로 표시한다.
- 확인부는 ㄱ로 표기한다.
- 署名·花押·手決은 【】로 표기하고, 원래의 문자를 파악 가능한 경우 그 안에 넣어 표시한다.
- 각종 기호·부호는 형태가 유사한 유니코드 문자로 표기하고, 유니코드에 해당 형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로 표시한 뒤 주석을 달아 설명한다.
- 가로·세로는 문자를 기준으로 파악하되, 문자의 판독이 어려울 경우 나뭇결 방향을 세로로 간주한다.
- 위·아래는 문자를 기준으로 파악하며, 면에 따라 문자의 서사 방향이 다를 경우 내용 상 첫째 면의 방향을 정방향으로 본다.

‘목간Ⅱ’에서는 목간의 세부 명칭 용어에 대한 통일안 또한 제시한 바 있다.³⁴⁾ 설명이 제시된 항목은 기재면, 목간의 면수가 2면 이상일 경우, 단면목간·양면목간, 앞면·전면, 뒷면·후면, 단부, 측면, 천공, 뭉기홈, 목흔, 삭설이다. 발표자 또한 이러한 형태 용어의 문제 중 일부에 대하여 의견을 내놓은 바 있었다.³⁵⁾ 예컨대 ‘목간Ⅱ’의 단면목간·양면목간 설명에서 “목서가 1면만 있으면 단면목간, 2면이면 양면목간, 3면이면 삼면목간, 4면이면 사면목간이라 말한다”고 한 것은 형태적 특징과 목서면의 수를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 이 기준대로라면 4개의 면이 존재하게 다듬은 목간이라도 목서가 1면뿐이라면 단면목간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여러 면을 갖춘 목간의 경우 圓柱形을 포괄하여 ‘막대형 목간’으로 지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³⁶⁾ 앞의 판독문 표기 범례에 포함된 가로·세로와 면의 파악 등은 제외하고 형태 및 세부 용어에 대한 범례를 제안한다면 다음과 같다.

- 장방판 : 세로로 길고 폭이 비교적 좁으며 두께는 얇은 板 형태를 가리킨다. 중국의 簡·牘을 포괄한다.
- 막대형 : 3개 이상의 面을 가지거나 圓柱의 형태를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중국의 ‘觚’와 같은 것도 이에 포함된다.
- 제첨촉 : 종이 문서를 말아두는 심 중 머리 부분이 板 형태인 것을 가리킨다.
- 削舌 : 목간의 표면을 깎아 낸 목간 부스러기를 말한다. 중국의 ‘柿’나 ‘削衣’에 해당한다.
- 홈 : 상·하단부의 좌·우 일부를 잘라내거나 주위를 둘러 파낸 것을 말한다.
- 구멍 : 목간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구멍을 뚫은 것을 가리킨다.

34)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앞의 책, p.15.

35) 이재환, 2022, 앞의 논문, pp.16~22.

36) 위의 논문, p.15.

이번 집계·정리 과정에서 만든 목록을 <별표>로 첨부하였지만, 인쇄된 표는 활용에 한계가 있으며 지면상 정보를 보여주는 데도 제한이 많다. 때문에 발표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excel로 작성한 ‘오이목간목록’ 파일로서, 한국목간학회 자유게시판에 업로드해 두었다. <별표>의 내용에 종횡비와 외형코드·상단코드·하단코드 및 판독문이 포함되었다. 판독문은 excel에서 입력의 어려움 및 폰트의 한계 때문에 앞의 판독문 범례를 적용하지 못하고 단순화하였다. 해당 폰트를 찾기 어려운 이체자는 원글자로 입력하고,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는 미판독자와 마찬가지로 ‘□’로 대체하였다. 입력이 버거로운 ‘ㄷㄱ’ 대신 ‘[...]’을 사용하였다. 면이 바뀌는 것은 ‘/’로, 동일 면에서의 행 바꿈은 ‘J’로 표시하였다. 각필·이필·역방향 등은 『』 안에 넣고 『』 앞에 한글로 ‘각’·‘이필’·‘역’을 써넣었다. 표시 정보의 정확한 전달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해당 목간의 식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추가한 판독문이므로 형태의 복원에 치중하지 않았다.

외형 및 단부 코드는 일찍이 제시한 바 있었던 코드에,³⁷⁾ 한 면의 표면에 가로로 홈이 파인 경우(N/n)와 사선형(P/p)를 추가한 것이다. 기존에 제시했던 외형 코드 중 종장판(1)·횡장판(2)의 종횡비에 따른 세분화(11·12·13 및 22·23)는 종횡비를 별도의 칼럼으로 제시하였기에 없었다. 추후에도 식별 가능한 요소가 더 인지된다면 코드를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의 형태가 목간 사용 이후에 별도의 목적으로 가공된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코드를 부여하지 않거나 X, x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현재의 모습을 코드화하였다. 코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외형 코드

1 : 종장판

2 : 횡장판

4 : 막대형

40 : 원주형

43 : 3면

44 : 4면

45 : 5면

46 : 6면

6 : 기타 (제침촉, 남근형, 인형 등 특수한 형태를 포괄)

8 : 미상 (파괴·손상이 심하여 원형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9 : 삭설

※ 로마 숫자는 서사면 수

· 단부 코드

A/a : 직선

B/b : 삼각형(圭形)

C/c : 다각형

D/d : 반원형

E/e : 한쪽 면 뾰족해짐(尖)

37) 이재환, 2019, 앞의 논문, pp.34-36.

F/f : 양쪽 면 뿔쪽해짐(尖)
 G/g : 원뿔 형태
 H/h : 구멍(穿孔)
 J/j : 단부 좌·우측면에 홈
 K/k : 둘레에 돌아가면서 홈을 판 경우
 M/m : 끝부분을 다른 부분보다 두껍고 둥글게 마무리
 N/n : 한 면 표면에 가로로 홈이 파인 경우
 P/p : 사선형
 X/x : 파손

- ※ 대문자는 상단, 소문자는 하단을 표시.
- ※ 중단에 가까운 구멍이나 홈의 경우 '를 붙임.
- ※ 일부 파손되었더라도 원형이 짐작가는 경우에는 X로 표기하지 않음.
- ※ P는 확연히 사선을 의도했다고 판단될 때만 A와 구분함.
- ※ E와 F에 A·B·C·D 등의 단부 코드가 더해진 경우는 하단까지 완전히 뿔쪽해진 것이 아니라 약간 뿔쪽하게 다듬다가 해당 형태로 단부가 마무리되었음을 의미.

VI. 맺음말

이번 발표가 구체적인 목간의 연구에 대한 것이 아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이미 상당한 연구가 진행된 상태에서의 이같은 기초적 정리·집계와 표준의 제안이 의미가 있을지 여부는 앞으로의 연구에 얼마나 활용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번의 발표를 계기로 한국목간학회에서 ‘합의’ 혹은 ‘목시’가 결정되어 완성된 집계표와 범례가 학술지에 수록되기를 희망한다.

<별표> 백제·신라 목간 목록

출토지	제안 호 칭	국적	소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금산 백령산성	백령성001	백제				[栢]1	보고서 목서목판	백령성 001			靈書 木板(연구)	23.1	13.3	0.9	
나주 복암리	복암리001	백제				[伏]1	보고서 1호	복암리 001	국립나주문화 재연구소-유물 번호 403		1호 수월 출토유물 403호(연구)	8.3	4.2	0.8	
나주 복암리	복암리002	백제				[伏]2	보고서 2호	복암리 002	국립나주문화 재연구소-유물 번호 404		1호 수월 출토유물 404호(연구)	28.1	5	0.3	
나주 복암리	복암리003	백제				[伏]3	보고서 3호	복암리 003	국립나주문화 재연구소-유물 번호 405		1호 수월 출토유물 405호(연구)	24.8	4.5	0.5	
나주 복암리	복암리004	백제				[伏]4	보고서 4호	복암리 004	국립나주문화 재연구소-유물 번호 406		1호 수월 출토유물 406호(연구)	60.7	5	0.5	
나주 복암리	복암리006	백제				[伏]5	보고서 5호	복암리 006	국립나주문화 재연구소-유물 번호 407		1호 수월 출토유물 407호(연구)	18.5	2.7	0.6	
나주 복암리	복암리005	백제				[伏]6	보고서 6호	복암리 005	국립나주문화 재연구소-유물 번호 408		1호 수월 출토유물 408호(연구)	29.7	3.5	0.5	불함 목간
나주 복암리	복암리007	백제				[伏]7	보고서 7호	복암리 007	국립나주문화 재연구소-유물 번호 409		1호 수월 출토유물 409호(연구)	10.8	3.5	0.4	
나주 복암리	복암리008	백제				[伏]8	보고서 8호	복암리 008	국립나주문화 재연구소-유물 번호 410		1호 수월 출토유물 410호(연구)	14	2.1	0.6	
나주 복암리	복암리009	백제				[伏]9	보고서 9호	복암리 009	국립나주문화 재연구소-유물 번호 411		1호 수월 출토유물 411호(연구)	11.7	4.9	0.7	
나주 복암리	복암리010	백제				[伏]10	보고서 10호	복암리 010	국립나주문화 재연구소-유물 번호 412		1호 수월 출토유물 412호(연구)	15.3	2.9	0.7	
나주 복암리	복암리011	백제				[伏]11	보고서 11호	복암리 011	국립나주문화 재연구소-유물 번호 413		1호 수월 출토유물 413호(연구)	8.5	3.4	0.3	
나주 복암리	복암리012	백제				[伏]12	보고서 12호	복암리 012	국립나주문화 재연구소-유물 번호 414		1호 수월 출토유물 414호(연구)	19	2.4	0.5	
나주 복암리	복암리013	백제				[伏]13	보고서 13호	복암리 013	국립나주문화 재연구소-유물 번호 415		1호 수월 출토유물 415호(연구)	11.5	4.5	0.8	
부여 관북리	관북리001	백제		285		[厓]1	관북리 3차 833호	관북리 001			관북리 3차 833호(연구)	12.3	4	0.2	
부여 관북리	관북리002	백제		286		[厓]2	관북리 3차 808호	관북리 002			관북리 3차 808호(연구)	9.3	4.9	0.8	
부여 관북리	관북리003	백제		289		[厓]3	관북리 3차 831호	관북리 003				11	3.6	0.4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차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부여 관북리	관북리004	백제		823 목간	288		[舊]4	관북리 3차 823호	관북리 004			관북리 3차 823호(연구)	12.7	2.4	0.3	
부여 관북리	관북리005	백제		1	283	283	[舊]5	관북리 1차 1호	관북리 005			관북 1차 목간 1(연구)	19.6	4.1	0.55	
부여 관북리	관북리006	백제		827 목간·형제품	291		[舊]6		관북리 006		827		9.6	2.2	0.7	
부여 관북리	관북리013	백제		838 목간					관북리 013				12	3	1.5	
부여 관북리	관북리 보고서6-284	백제		284				관북리 추가분 2호(목제 품 6번)					9.1	2.2	0.5	
부여 관북리	관북리 보고서6-285	백제		285				관북리 추가분 1호(목제 품 3번)					9.4	2	0.2	
부여 구아리 319번지(중앙성결 교회)	구아리001	백제	90번(2011)	445. 90번 목간			[舊]1	보고서 90호	구아리 001		부여 29135	중앙성결교회 출토 90호(연구)	24.5	3.6	0.5	
부여 구아리 319번지(중앙성결 교회)	구아리002	백제	47번(2011)	442. 47번 목간			[舊]2	보고서 47호	구아리 002		부여 29132	중앙성결교회 출토 47호(연구)	25.2	3.5	0.3	
부여 구아리 319번지(중앙성결 교회)	구아리003	백제	88번(2011)	443. 88번 목간			[舊]3	보고서 88호	구아리 003		부여 29133	중앙성결교회 출토 88호(연구)	18.6	3.3	0.6	
부여 구아리 319번지(중앙성결 교회)	구아리004	백제	102번(2011)	447. 102번 목간			[舊]4	보고서 102호	구아리 004		부여 29137	중앙성결교회 출토 102호(연구)	19.3	2.5	0.6	
부여 구아리 319번지(중앙성결 교회)	구아리005	백제	109번(2011)	448. 109호 목간			[舊]5	보고서 109호	구아리 005		부여 29138	중앙성결교회 출토 109호(연구)	6.2	3.2	0.2	
부여 구아리 319번지(중앙성결 교회)	구아리006	백제	93번(2011)	446. 93번 목간			[舊]6	보고서 93호	구아리 006		부여 29136	중앙성결교회 출토 93호(연구)	14.6	2.5	0.7	
부여 구아리 319번지(중앙성결 교회)	구아리007	백제	31번(2011)	441. 31번 목간			[舊]7	보고서 31호	구아리 007		부여 29131	중앙성결교회 출토 31호(연구)	10.5	3.3	0.5	
부여 구아리 319번지(중앙성결 교회)	구아리008	백제	89번(2011)	444. 89번 목간			[舊]8	보고서 89호	구아리 008		부여 29134	중앙성결교회 출토 89호(연구)	29.1	3.6	0.6	
부여 구아리 319번지(중앙성결 교회)	구아리012	백제	19번(2011)	449. 19번 목간			[舊]12	보고서 19호	구아리 012		부여 29139		9.5	0.7	0.4	
부여 공남지	공남지001	백제		1 木簡	315	297	[舊]1	보고서[공 남지] 목간1호	공남지 001		부여 8241	공남지 1호(연구)	35	4.5	1	
부여 공남지	공남지002	백제		木簡			[舊]2	보고서[공 남지] 목간2호	공남지 002			공1(나무), 공남지 2차 보고서 2호(연구)	25.5	1.9	0.6	
부여 공남지	공남지004	백제		木簡		공11	[舊]3	보고서[공 남지] 목간1호	공남지 004		부여 8292	공2(나무), 공남지 2차 보고서 2호(연구)	34.8	2.8	1.5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국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01	백제	9. 기타목간(1)(4) 1. '天'銘 刻鏤書木簡(2002)	7차 ㉔	296	296	[陵]2	능사7차 2호	능산리 001		부여 6092	'이전'명 목간(2010). 능사 7차 목간 2(연구)	27.6	1.9	0.4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02	백제		6차 ㉑	295	295	[陵]1	능사6차 1호	능산리 002			양물형 목간(2005). 남근형 목간(2010). 능사 6차 목간 1(연구)	22.7	2.4	2.1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03	백제	6. '野懸'銘 목간	7차 ㉓	297	297	[陵]3	능사7차 3호	능산리 003		부여 6088	'대리'명 목간(2010). 능사 7차 목간 3(연구)	24.5	2.6	1.05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04	백제	9. 기타목간(6)	7차 ㉔	298	298	[陵]4	능사7차 4호	능산리 004			'나승'명 목간(2010). 능사 7차 목간 4(연구)	21.9	1.9	0.3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05	백제	7. '女貴'銘 목간	7차 ㉕	299	299	[陵]5	능사7차 5호	능산리 005		부여 6090	(6)(2004). '간'명 목간(2010). 능사 7차 목간 5(연구)	15.4	2	0.3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06	백제	9. 기타목간(2)	7차 ㉖	300	300	[陵]6	능사 7차 6호	능산리 006		부여 6094	'사산'명 목간(2003). '장내'명 목간(2010). 능사 7차 목간 6(연구)	16.7	1.8	0.6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07	백제	5. '六部五方'銘 목간	7차 ㉗	301	301	[陵]7	능사 7차 7호	능산리 007		부여 6091	(8)(2004). 능사 7차 목간 7(연구)	16.4	1.8	0.5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09	백제	9. 기타목간(5)	7차 ㉙	303	303	[陵]9	능사 7차 9호	능산리 009		부여 6104	'죽산'명 목간(2003). (12)(2004). 능사 7차 목간 9(연구)	21	1.9	0.2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10	백제	2. '寶熏寺'銘 목간	7차 ㉚	304	304	[陵]10	능사 7차 21호	능산리 010		부여 6087	(2)(2004). 능사 7차 목간 21(연구)	12.7	3.6	0.4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11	백제	4. '宿世結業同生 一處'銘 목간	7차 ㉛	305	305	[陵]11	능사 7차 11호	능산리 011		부여 6089	숙세...명 목간(2003) (9)(2004). '숙세'명 목간(나무). 능사 7차 목간 11(연구)	12.8	3.1	1.2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12	백제		6차 ㉜	306	306	[陵]12	능사 6차 2호	능산리 012			'두지람'명 목간(2010). 능사 6차 목간 2(연구)	13.2	3	2.5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13	백제	9. 기타목간(7)	7차 ㉞	307	307	[陵]13	능사 7차 12호	능산리 013		부여 6096	'덕간'명 목간(2003). (7)(2004). 능사 7차 목간 12(연구)	9.3	3.6	0.55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14	백제		7차 ㉟	308	308	[陵]14	능사 7차 13호	능산리 014		부여 6100	'이백'명 목간(2010). 능사 7차 목간 13(연구)	12.4	3.2	0.8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15	백제		6차 ㊱	309	309	[陵]15	능사 6차 3호	능산리 015			'칠청'명 목간(2010). 능사 6차 목간 3(연구)	8.4	2.6	0.2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16	백제		6차 ㊲	310	310	[陵]16	능사 6차 4호	능산리 016			'안면'명 목간(2010). 능사 6차 목간 4(연구)	12.1	1.5	0.5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17	백제		7차 ㊳	311	311	[陵]17	능사 7차 14호	능산리 017		부여 6101	능사 7차 목간 14(연구)	7.5	3.7	0.5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18	백제		7차 ㊴	312	312	[陵]18	능사 7차 15호	능산리 018		부여 6102	능사 7차 목간 15(연구)	5.2	3.1	0.6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19	백제	3. '子基寺'銘 목간	7차 ㊵	313	312	[陵]19	능사 7차 10호	능산리 019		부여 6099	(3)(2004). 능사 7차 목간 10(연구)	7.8	1.9	0.6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20	백제		6차 ㊶	314	314	[陵]20		능산리 020			능사 6차 목간 8(연구)	12.5	1.6	1.0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21	백제		6차 ㊷		능1	[陵]21	능사 6차 6호	능산리 021			2000-1(2008). 능사 6차 목간 6(연구)	9.8	2.1	0.2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22	백제		7차 ㊸		능6	[陵]22	능사 7차 16호	능산리 022		부여 6103	2001-2(2008). '지마'명 목간(2010). 26(2011). 능사 7차 목간 16(연구)	23.6	2	1.7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23	백제		7차 ㉔		능3	[陵]23	능사 7차 18호	능산리 023		부여 6097	2001-4(2008), '보'명 목간(2010) 능사 7차 목간 18(연구)	15.8	2.1	2.1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24	백제		7차 ㉔		능4	[陵]24	능사 7차 22호	능산리 024			2001-5(2008), '도화'명 목간(2010) 능사 7차 목간 22(연구)	24.2	3.5	2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25	백제		8차 ㉑		능2	[陵]25	능사 8차 1호	능산리 025			(15)(2004), 능산리 사립목간(2007b), 食米記(2007a), 2002-1(2008), '지악야사미기'명목간(2 010), 22(2011), 능사 8차 목간 1(연구)	44	2	2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26	백제				능5	[陵]26	보고서에 없음	능산리 026			2001-8(2008), '영춘'명 목간(2010), 25(2011), 2001-8호 목간	16.5	3.5	3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27	백제				능7	[陵]27	보고서에 없음	능산리 027			세모양 목간(2010), 능7(연구)	16.5	3.5	3.5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28	백제				능8	[陵]28	보고서에 없음	능산리 028			능8(연구)	16.7	1	0.2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029	백제		7차 ㉔		능9 (pp.40 -41)		능사 7차 17호	능산리 029		부여 6093	2001-3(2008), 능사 7차 목간 17(연구)	5.8	10.4	1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 6차5호	백제		6차 ㉕		능9(p. 43)		능사 6차 5호				2000-3(2008), 능사 6차 목간 5(연구)	8.9	1	0.6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 6차9호	백제		6차 ㉕		능11			능산리 031			2000-4(2008), 29 9-1(2011), 능사 6차 목간 9(연구)	5.8	1.4	0.15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 6차10호	백제		6차 ㉕		능10			능산리 030			2000-2(2008), 29 9-2(2011), 능사 6차 목간 10(연구)	4.6	1.4	0.2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 6차11-1호	백제		6차 ㉑1		능16				능산리036-1(사비)		2000-5(2008), 29 10-1(2011), 능사 6차 목간 11-1(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 6차11-2호	백제		6차 ㉑2		능16						2000-6(2008), 능사 6차 목간 11-2(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 6차11-3호	백제		6차 ㉑3		능16중						2000-7(2008), 능사 6차 목간 11-3(연구)	3.5	0.8	0.08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 6차11-4호	백제		6차 ㉑4(도판 141-4㉑)								2000-8(2008), 능사 6차 목간 11-4(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 6차11-5호	백제		6차 ㉑5		능16						2000-9(2008), 능사 6차 목간 11-5(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 6차11-6호	백제		6차 ㉑6		능16						2000-10(2008), 능사 6차 목간 11-6(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 6차11-7호	백제		6차 도판 141-4								능산리036(사비)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 6차11-8호	백제		6차 도판 141-4								능산리036(사비)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 7차1호	백제		7차 ㉑				능사 7차 1호				2001-1(2008), 능사 7차 목간 1(연구)	22.2	2.9	2.2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 7차8-1호	백제	8. 默書樹皮	7차 ㉑상	302	302	[陵]8-1		능산리 008			(14)(2004), 능사 7차 삭질 8-1(연구)	36.1	1.8	0.05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차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부여 능산리사지	능산리사지 7차8-2호	백제		7차 ㉔하	302	302						능산 7차 8-2(연구)	7.6	1.7	0.05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2	백제				능12			능산리 032			북간편(2010), 능12(연구)	7	1.5	0.2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3	백제				능13			능산리 033			능13(연구)	7	1.7	0.2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4	백제				능14			능산리 034			능14(연구)	4	1.7	0.5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5	백제				능15			능산리 035			능15(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	백제				능17-1			능산리 038-1			능17-1(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2	백제				능17-2			능산리 038-2			능17-2(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3	백제				능17-3			능산리 038-3			능17-3(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4	백제				능17-4			능산리 038-4			능17-4(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5	백제				능17-5		削片-5	능산리 038-5			능17-5(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6	백제				능17-6			능산리 038-6			능17-6(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7	백제				능17-7			능산리 038-7			능17-7(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8	백제				능17-8			능산리 038-8			능17-8(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9	백제				능17-9			능산리 038-9			능17-9(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0	백제				능17-10		削片-10	능산리 038-10			능17-10(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1	백제				능17-11			능산리 038-11			능17-11(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2	백제				능17-12		削片-12	능산리 038-12			능17-12(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3	백제				능17-13			능산리 038-13			능17-13(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4	백제				능17-14			능산리 038-14			능17-14(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5	백제				능17-15			능산리 038-15			능17-15(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6	백제				능17-16			능산리 038-16			능17-16(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7	백제				능17-17			능산리 038-17			능17-17(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8	백제				능17-18			능산리 038-18			능17-18(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9	백제				능17-19			능산리 038-19			능17-19(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20	백제				능17-20			능산리 038-20			능17-20(연구)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21	백제				능17-2 1		총람-21 削片-21	능산리 038-21			능17-21(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22	백제				능17-2 2			능산리 038-22			능17-22(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23	백제				능17-2 3			능산리 038-23			능17-23(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24	백제				능17-2 4			능산리 038-24			능17-24(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25	백제				능17-2 5		削片-25	능산리 038-25			능17-25(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26	백제				능17-2 6		削片-26	능산리 038-26			능17-26(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27	백제				능17-2 7			능산리 038-27			능17-27(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28	백제				능17-2 8		削片-28	능산리 038-28			능17-28(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29	백제				능17-2 9			능산리 038-29			능17-29(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30	백제				능17-3 0			능산리 038-30			능17-30(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31	백제				능17-3 1			능산리 038-31			능17-31(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32	백제				능17-3 2			능산리 038-32			능17-32(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33	백제				능17-3 3			능산리 038-33			능17-33(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34	백제				능17-3 4			능산리 038-34			능17-34(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35	백제				능17-3 5			능산리 038-35			능17-35(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36	백제				능17-3 6			능산리 038-36			능17-36(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37	백제				능17-3 7			능산리 038-37			능17-37(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38	백제				능17-3 8			능산리 038-38			능17-38(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39	백제				능17-3 9			능산리 038-39			능17-39(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40	백제				능17-4 0			능산리 038-40			능17-40(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41	백제				능17-4 1						능17-41(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42	백제				능17-4 2						능17-42(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43	백제				능17-4 3						능17-43(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44	백제				능17-4 4						능17-44(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45	백제				능17-4 5						능17-45(연구)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46	백제				능17-4 6						능17-46(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47	백제				능17-4 7						능17-47(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48	백제				능17-4 8						능17-48(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49	백제				능17-4 9		削片-49				능17-49(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50	백제				능17-5 0						능17-50(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51	백제				능17-5 1						능17-51(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52	백제				능17-5 2						능17-52(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53	백제				능17-5 3						능17-53(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54	백제				능17-5 4						능17-54(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55	백제				능17-5 5						능17-55(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56	백제				능17-5 6						능17-56(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57	백제				능17-5 7						능17-57(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58	백제				능17-5 8						능17-58(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59	백제				능17-5 9						능17-59(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60	백제				능17-6 0						능17-60(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61	백제				능17-6 1						능17-61(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62	백제				능17-6 2						능17-62(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63	백제				능17-6 3						능17-63(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64	백제				능17-6 4						능17-64(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65	백제				능17-6 5						능17-65(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66	백제				능17-6 6						능17-66(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67	백제				능17-6 7						능17-67(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68	백제				능17-6 8						능17-68(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69	백제				능17-6 9						능17-69(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70	백제				능17-7 0						능17-70(연구)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71	백제				능17-7 1						능17-71(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72	백제				능17-7 2						능17-72(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73	백제				능17-7 3						능17-73(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74	백제				능17-7 4						능17-74(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75	백제				능17-7 5						능17-75(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76	백제				능17-7 6						능17-76(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77	백제				능17-7 7						능17-77(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78	백제				능17-7 8						능17-78(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79	백제				능17-7 9						능17-79(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80	백제				능17-8 0						능17-80(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81	백제				능17-8 1						능17-81(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82	백제				능17-8 2						능17-82(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83	백제				능17-8 3						능17-83(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84	백제				능17-8 4						능17-84(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85	백제				능17-8 5						능17-85(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86	백제				능17-8 6						능17-86(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87	백제				능17-8 7						능17-87(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88	백제				능17-8 8						능17-88(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89	백제				능17-8 9						능17-89(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90	백제				능17-9 0						능17-90(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91	백제				능17-9 1						능17-91(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92	백제				능17-9 2						능17-92(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93	백제				능17-9 3						능17-93(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94	백제				능17-9 4						능17-94(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95	백제				능17-9 5						능17-95(연구)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차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96	백제				능17-9 6						능17-96(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97	백제				능17-9 7						능17-97(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98	백제				능17-9 8						능17-98(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99	백제				능17-9 9						능17-99(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00	백제				능17-1 00						능17-100(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01	백제				능17-1 01						능17-101(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02	백제				능17-1 02						능17-102(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03	백제				능17-1 03						능17-103(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04	백제				능17-1 04						능17-104(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05	백제				능17-1 05						능17-105(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06	백제				능17-1 06						능17-106(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07	백제				능17-1 07						능17-107(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08	백제				능17-1 08						능17-108(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09	백제				능17-1 09						능17-109(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10	백제				능17-1 10						능17-110(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11	백제				능17-1 11						능17-111(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12	백제				능17-1 12						능17-112(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13	백제				능17-1 13						능17-113(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14	백제				능17-1 14						능17-114(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15	백제				능17-1 15						능17-115(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16	백제				능17-1 16						능17-116(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17	백제				능17-1 17						능17-117(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18	백제				능17-1 18						능17-118(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19	백제				능17-1 19						능17-119(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20	백제				능17-1 20						능17-120(연구)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차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21	백제				능17-1 21						능17-121(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22	백제				능17-1 22						능17-122(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23	백제				능17-1 23						능17-123(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24	백제				능17-1 24						능17-124(연구)				
부여 능산리사지	백제-능17-125	백제				능17-1 25						능17-125(연구)				
부여 동남리 49-2번지	동남리49-2 목간①	백제	목간①						동남리003							
부여 동남리 49-2번지	동남리49-2 목간②	백제	목간②						동남리002							
부여 동남리 49-2번지	동남리49-2 목간③	백제	목간③													
부여 동남리 49-2번지	동남리49-2 목간④	백제	목간④													
부여 동남리 49-2번지	동남리49-2 목간⑤	백제	목간⑤													
부여 동남리 216-17번지	동남리001	백제? 신라?		목간					동남리 001		부여 19275	동1(나무)	26.5	2.1	0.6	
부여 석목리 143-16번지	석목리001	백제	228번	228. 「前部〇」銘				보고서 228. 목간	석목리 001				8.4	2.4	1.1	
부여 석목리 143-16번지	석목리002	백제	229번	229. 「〇羅好邪」銘				보고서 229. 목간	석목리 002				11.7	3.1	3.4	
부여 쌍북리 56번지	쌍북리039	백제	목간 9	79. 목간					쌍북리 039		부여 56588		16.6	3	0.4	
부여 쌍북리 56번지	쌍북리043	백제	목간 2	206. 목간				보고서 206호	쌍북리 043		부여 56715		19.5	3.2	0.5	
부여 쌍북리 56번지	쌍북리046	백제	목간 3	235. 목간					쌍북리 046		부여 56744		12.5	2	0.5	
부여 쌍북리 56번지	쌍북리047	백제	목간 11-「重(倭?)」명 목간	462. 목간				보고서 462호	쌍북리 047		부여 56971		5	2.8	0.5	
부여 쌍북리 56번지	쌍북리048	백제	목간 1-「論語」	461. 사면목간				보고서 461호	쌍북리 048		부여 56970	논어목간	28.7	2.2	1.9	
부여 쌍북리 56번지	쌍북리049	백제	목간 10-「丁巳年十月廿七(七)日」명	463. 목간				보고서 463호	쌍북리 049		부여 56971		12	3.4	0.6	
부여 쌍북리 56번지	쌍북리050	백제	목간 12	464. 목간					쌍북리 050		부여 57044		17.3	3	0.5	
부여 쌍북리 56번지	쌍북리051	백제	목간 13-「丁巳年十月廿七(七)日」명	535. 목간				보고서 535호	쌍북리 051		부여 57044		5	1	0.2	
부여 쌍북리 56번지	쌍북리052	백제	목간 15	483. 목간				보고서 483호	쌍북리 052		부여 56992		13.5	2.7	0.4	
부여 쌍북리 56번지	쌍북리054	백제	목간 16	537. 목간					쌍북리 054		부여 57046		11.5	1.5	0.3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거주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부여 쌍북리 56번지	쌍북리055	백제	목간 17	538. 목간				보고서 537호	쌍북리 005		부여 57047		43	5	0.3	
부여 쌍북리 102번지	쌍북리001	백제	【도면 24-6, 사진 43-8】		316	316	[雙102]1	보고서 도면 24-6	쌍북리 001			316호(연구)	18.2	3.1	0.8	
부여 쌍북리 102번지	쌍북리002	백제	【도면 24-5, 사진 43-5】		317	317	[雙102]2	도면 24-5	쌍북리 002			고리표 목간(2010), 317호(연구)	12.1	1.7	0.8	
부여 쌍북리 173-8번지(119안 철타부지)	쌍북리024	백제		122호				보고서 122호	쌍북리 024		부여 27269	122번(2013), 쌍북리 173-8번지 122호(연구)	22	4	0.8	
부여 쌍북리 173-8번지(119안 철타부지)	쌍북리025	백제	부칠목간	194호				보고서 194호	쌍북리 025		부여 27315	94번(2013), 쌍북리 178-3번지 194호(연구)	10	1.7	0.7	
부여 쌍북리 173-8번지(119안 철타부지)	쌍북리026	백제		197호				보고서 197호	쌍북리 026		부여 27318	197번(2013), 쌍북리 178-3번지 197호(연구)	9.1	5.1	1.3	
부여 쌍북리 173-8번지(119안 철타부지)	쌍북리027	백제		223호				보고서 223호	쌍북리027		부여 27335	223번(2013), 쌍북리 178-3번지 223호(연구)	15.2	3.7	0.7	
부여 쌍북리 184-11번지	쌍북리037	백제		71. 목간				보고서 斤止受子 명 목간	쌍북리 037		부여 39960	쌍북리 184-11 81호	10.1	2.45	0.3	
부여 쌍북리 201-4번지	쌍북리034	백제		55. 목간				보고서 55. 목간	쌍북리 034		부여 50233	목간1(2016)	37.5	4.2	0.7	
부여 쌍북리 201-4번지	쌍북리035	백제		56. 목간				보고서 56. 목간	쌍북리 035		부여 50234	목간2(2016)	28.5	4.4	0.5	
부여 쌍북리 280-5번지	쌍북리017	백제	2. "佐食實食記" 木簡	131			[雙280]1	보고서 131호	쌍북리 017		부여 41057	좌관대식기(나무), 쌍북리 280-5번지 131호(연구)	29.2	4.1	0.6	
부여 쌍북리 280-5번지	쌍북리018	백제	1. "外椽部"銘 목간	390				보고서 390호	쌍북리 018		부여 41091	쌍북리 280-5번지 390호(연구)	8.1	3.2	0.6	
부여 쌍북리 280-5번지	쌍북리019	백제	3. "与□"銘 목간	132				보고서 132호	쌍북리 019		부여 41058	쌍북리 280-5번지 132호(연구)	5.5	1.6	0.6	
부여 쌍북리 328-2번지	쌍북리031	백제		34. 목간				보고서 34. 목간	쌍북리 031		부여 45579	목간A(2016)	14.8	2.3	0.6	
부여 쌍북리 328-2번지	쌍북리032	백제		1. 목간				보고서 1. 목간	쌍북리 032		부여 45579	목간B(2016)	12.2	2	0.4	
부여 쌍북리 328-2번지	쌍북리033	백제		5. 목간				보고서 5. 목간	쌍북리 033		부여 45583	목간C(2016), 구구단목간(총람)	30.1	5.5	1.4	
부여 쌍북리 뒷개 유적(15번지)	쌍북리029	백제	1번	112. 4면 목간			[雙뒷개] 1	보고서 112	쌍북리 029		백제역사문화연 구원-112	뒷개 출토목간(연구)	15	3	2.9	
부여 쌍북리 현내들	쌍북리003	백제	85-8호	85-8호 목간			[雙현내] 1	보고서85 -5호	쌍북리 003		부여 37335	현85-8(나무), 현내들 85-8호(연구)	6.1	3.1	0.5	
부여 쌍북리 현내들	쌍북리004	백제	95호	95호 목간			[雙현내] 2	보고서 95호	쌍북리 004		부여 37336	현95(나무), 현내들 95호(연구)	4.1	0.9	0.3	
부여 쌍북리 현내들	쌍북리005	백제	94호	94호 목간			[雙현내] 3	보고서 94호	쌍북리 005		부여 37337	현94(나무), 현내들 94호(연구)	8.2	1.1	0.4	
부여 쌍북리 현내들	쌍북리006	백제	91호	91호 목간			[雙현내] 4	보고서 87호	쌍북리 006		부여 37338	현91(나무), 현내들 91호(연구)	12.6	2.7	0.6	
부여 쌍북리 현내들	쌍북리007	백제	87호	87호 목간			[雙현내] 6	보고서 87호	쌍북리 007		부여 37340	현87(나무), 현내들 87호(연구)	9.4	2.5	0.9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부여 쌍북리 현내들	쌍북리008	백제	96호	96호 목간			[雙현내] 5	보고서 96호	쌍북리 008		부여 37348	현96(나부), 현내들 96호(연구)	38.6	3.1	2.9	
부여 쌍북리 현내들	쌍북리011	백제	85-4호	85-4호 목간					쌍북리 011		부여 37343		9.4	1.9	0.55	
부여 쌍북리 현내들	쌍북리014	백제	105호	105호 목간			[雙현내] 12	보고서 105호	쌍북리 014		부여 37346	현105(나부), 현내들 105호(연구)	13.5	3.6	0.4	
부여 쌍북리 현내들	쌍북리016	백제	86호	86호 목간			[雙현내] 14		쌍북리 016		부여 37339		11.2	2	0.3	
정읍 고사부리성	고사부리성 목간	백제						①목간					148	3.6	?	
경산 소월리	소월리 목간	신라	목간(2020)					목간					74.2	4.3	2.8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경주49090	신라	목간1(2013)	1호				1호 목간		경주 49090	2011-0373-000 0668	경주49090(왕경)	25	1.3	1.3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미륵관부지	경주15596	신라	324(신라)	37	279		[博]1	보고서 37, 목간		경주 15596	新館우물62	경주15596(왕경)	24.1	1.8	0.3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미륵관부지	경주15597	신라		39	280		[博]2	보고서 39, 목간		경주 15597	新館우물62	경주15597(왕경)	9.8	2.1	0.9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미륵관부지	경주15715	신라		40						경주 15715		경주15715(왕경)	12.2	1.9	0.4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1호	신라		1 <338, 399>				보고서 1호(24)		안1484(3-1)		안압지 보고서-1(왕경)	31.9	3	1.6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182	신라		4 <404, 405>	182		[雁]1	보고서 4호(26)		안1294(6-1)		안압지 목간-182(왕경)	15.9	2.5	2.5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183	신라		<456, 457>	183		[雁]2	보고서34 호(16)				안압지 목간-183(왕경)	13.9	1.5	0.9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184	신라		3 <402, 403>	184		[雁]3	보고서 3호(27)		안1289		안압지 목간-184(왕경)	23.5	3	0.5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185	신라		15 <426, 427>	185		[雁]4	보고서 15호(17)		안1484(3-2)		안압지 목간-185(왕경)	16.5	4.5	1.1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186	신라		17 <430, 431>	186		[雁]5	보고서 17호(23)		안1292(3-2)		안압지 목간-186(왕경)	17.7	4.2	0.5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187	신라		18 <432, 433>	187		[雁]6	보고서 18호(28)		안1158(79-39 +55+63)		안압지 목간-187(왕경)	30.2	5.2	0.7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188	신라		25 <442, 443>	188		[雁]7	보고서 25호(10)		안1158(79-52)		안압지 목간-188(왕경)	15.4	3.5	0.6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189	신라		<464, 465>	189		[雁]8	보고서38 호(11)		안1158(79-12)		안압지 목간-189(왕경)	15.8	2	0.4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190	신라			190		[雁]9	보고서에 없음(29)		안1158(79-33)		안압지 목간-190(왕경)	20.8	2.2	1.1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191	신라		2 <400, 401>	191		[雁]10	보고서 2호(30)		안1294(6-6)		안압지 목간-191(왕경)	16.5	1.7	1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192	신라		16 <428, 429>	192		[雁]11	보고서 16호(20)		안1158(79-53)		안압지 목간-192(왕경)	22.4	2.5	0.7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193	신라		<458, 459>	193		[雁]12	보고서35 호(1)		안1158(79-37 +41)		안압지 목간-193(왕경)	21.6	2.6	0.4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194	신라		6 <408, 409>	194		[雁]13	보고서 6호(8)		안1293(6-5)		안압지 목간-194(왕경)	15.2	2.7	0.8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차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195	신라		24 <440.441>	195		[雁]14	보고서 24호(2)		안1293(6-4)		안압지 목간-195(왕경)	16.9	1.3	0.7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196	신라		28 <4476.448>	196		[雁]15	보고서 28호(3)		안1294(6-3)		안압지 목간-196(왕경)	18.2	1.9	1.2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197	신라		<467>	197			보고서에 없음(4)		안1158(79-29)		안압지 목간-197(왕경)	16.9	2.1	1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198	신라		<454. 455>	198		[雁]16	보고서본 문예없음(25)		안158(79-19+35)		안압지 목간-198(왕경)	30.8	3.9	2.6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199	신라			199, 223		[雁]17	보고서에 없음(32)		안158(79-38+45)		199(199+223)(문물), 안압지 목간-199(왕경)	36	5	1.2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00	신라		<473>	200		[雁]18	보고서42 호(31)		안1292(3-1)		안압지 목간-200(왕경)	15	4.7	0.8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01	신라			201					안1158(79-9)		안압지 목간-201(왕경)	24.3	1.9	0.7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02	신라			202					안1158(79-18)		안압지 목간-202(왕경)	45.4	3.2	1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03	신라		<470>	203					안1291(3-1)		안압지 목간-203(왕경)	37.5	4.5	1.3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04	신라			204					안1158(79-2)		안압지 목간-204(왕경)	19.1	4.1	0.3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05	신라		19 <434.435>	205		[雁]19	보고서 19호(23)		안1294(6-2)		안압지 목간-205(왕경)	9	2.7	2.7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06	신라		14 <424.425>	206		[雁]20	보고서 14호(34)		안1292(3-3)		안압지 목간-206(왕경)	145	4.2	1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07	신라		29 <449.450>	207		[雁]21	보고서에 없음(35)		안1290		안압지 목간-207(왕경)	11	3.5	0.6	옆면 각지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08	신라		23 <438.439>	208		[雁]22	보고서 23호(36)		안1294(6-4)		안압지 목간-208(왕경)	12.8	1.8	0.8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09-1	신라			209		[雁]23	보고서 26호(19)		안1158(79-22)		209-1(문물), 안압지 목간-209-1(왕경)	13.6	2.5	0.5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09-2	신라		26 <444>	209		[雁]23	보고서 26호(18)		안1158(79-22)		209-2(문물), 안압지 목간-209-2(왕경)	5	2.5	0.5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10	신라		7 <410.411>	210		[雁]24	보고서 7호(9)		안1484(3-3)		안압지 목간-210(왕경)	11.3	4.2	0.75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11	신라		<460. 461>	211		[雁]25	보고서에 없음(12)		안1158(79-4)		안압지 목간-211(왕경)	10.7	3.1	1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12	신라		5 <406.407>	212		[雁]26	보고서에 없음(13)		안1293(6-6)		안압지 목간-212(왕경)	9.35	2.65	0.3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13	신라		13 <422.423>	213		[雁]27	보고서 13호(21)		안1293(6-2)		안압지 목간-213(왕경)	8.8	1.45	0.45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14	신라		31 <452.453>	214		[雁]28	보고서 31호(5)		안1158(79-57)		안압지 목간-214(왕경)	8.4	3	0.8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15	신라		12 <420.421>	215		[雁]29	보고서 12호(14)		안1293(6-3)		안압지 목간-215(왕경)	9.5	2.1	0.7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16	신라		10 <416.417>	216		[雁]30	보고서 10호(6)		안1158(79-27)		안압지 목간-216(왕경)	13.2	2.4	0.7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17	신라		<462. 463>	217		[雁]31	보고서에 없음(37)		안1158(79-21)		안압지 목간-217(왕경)	10.5	2.5	0.5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목간-218	신라		30 <451>	218		[雁]32	보고서 30호(38)		안1158(79-3)		안압지 목간-218(왕경)	8.4	3.3	0.8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차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19	신라			219		[雁]33	보고서에 없음(39)		안1158(79-28)		안압지 목간-219(왕경)	8.8	2.8	0.2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20	신라		9 <414, 415>	220		[雁]34	보고서 9호(22)		안1293(6-1)		안압지 목간-220(왕경)	12.7	1.2	0.6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21	신라		8 <412, 413>	221		[雁]35(2 21)	보고서 8호(7)		안1158(79-50 +74+78)		221(271+221+234-2(문 물), 안압지 목간-221(왕경)	16.2	1.6	1.1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22	신라		11 <418, 419>	222		[雁]36	보고서 11호(15)		안1158(79-47 +58)		안압지 목간-222(왕경)	12.8	2.8	0.8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24	신라			224		[雁]37	보고서에 없음(40)		안1158(79-54)		안압지 목간-224(왕경)	6.4	6.3	0.3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25	신라			225			보고서에 없음(41)		안1158(79-25)		안압지 목간-225(왕경)	9	4.5	1.1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26	신라		<469>	226, 230, 239, (268)		[雁]38(2 26)	보고서39 호(42)		안1158(79-59 +61+62+68)		226(239+226+230+268) (문물), 안압지 목간-226(왕경)	21.3	3	0.4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27	신라			227					안1158(79-49)		안압지 목간-227(왕경)	8.1	3.7	0.3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28	신라			228, 234-1					안1158(79-51 +70+71)		228+234(노)+265(문물), 안압지 목간-228(왕경)	18.3	1.4	0.6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29	신라			229		[雁]39	보고서에 없음(43)		안1294(6-5)		32(1994), 안압지 목간-229(왕경)	6.1	1.2	1.2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31	신라			231, 238		[雁]44(2 38)	보고서에 없음(44)		안1158(79-5+ 16)		231(231+238(문물), 안압지 목간-231(왕경)	10.3	3.5	0.6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32	신라		<474>	232			보고서에 없음(45)		안1158(79-31)		안압지 목간-232(왕경)	6.5	5.5	0.4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33	신라			233, 236		[雁]41(2 33), [雁]42(2 36)	보고서에 없음(46)		안1158(79-66 +67)		233(236+233(문물), 안압지 목간-233(왕경)	9.8	1.3	0.3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35	신라			235					안1158(79-56) ①		안압지 목간-235(왕경)	3.2	1.1	0.7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37	신라		27 <445, 446>	237		[雁]43	보고서에 없음(47)		안1158(79-42)		안압지 목간-237(왕경)	4	2.2	0.2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40	신라			240					안1158(79-56) ②		안압지 목간-240(왕경)	4.2	0.6	0.5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41	신라			241					안1158(79-65)		안압지 목간-241(왕경)	3.6	0.7	0.3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목간-242	신라			242					안1158(79-73)		안압지 목간-242(왕경)	3.9	1.1	0.4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20호	신라		20				보고서 20호								실물 미확인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21호	신라		21				보고서 21호					4.3	3.8		실물 미확인
경주 안압지(원 동공과 월지)	안압지 22호	신라		22 <436, 437>				보고서 22호					11.5	3.8	1.5	실물 미확인 (사진있 음)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기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주령 주사위	신라		주사위 <175.176.177>												주사위. 실물평 면 (사진있 음)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연보19-1	신라	No.1(연보19)				[雁]45					안압지 연보19-1(왕경)	19.8	3.75	0.9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연보19-2	신라	No.2(연보19)				[雁]46					안압지 연보19-2(왕경)	16.5	4.9	0.85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연보19-4	신라	No.4(연보19)				[雁]49					안압지 연보19-4(왕경)	26.8	4.3	0.9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연보19-5	신라	No.5(연보19)				[雁]48					안압지 연보19-5(왕경)	20.9	4.1	1	
경주 안압지(현 동궁과 월지)	안압지 연보19-6	신라	No.6(연보19)				[雁]40					안압지 연보19-6(왕경)	6.5	2.65	0.83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1호	신라		목간 1호	150		[月]1	보고서 1호		월성해자 1호	1985-0044-1	월성해자 1호(왕경)	20.5	1.7	1.8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호	신라		목간 2호	149		[月]2	보고서 2호		월성해자 2호	1985-0044-2	월성해자 2호(왕경)	19	1.2	1.2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3호	신라		목간 3호	163		[月]3	보고서 3호		월성해자 3호	1985-0044-3	월성해자 3호(왕경)	19.8	2.3	0.85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4호	신라		목간 4호	156		[月]4	보고서 4호		월성해자 4호	1985-0044-4	월성해자 4호(왕경)	17	2.35	0.8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5호	신라		목간 5호	173		[月]5	보고서 5호		월성해자 5호	1985-0044-5	월성해자 5호(왕경)	14.4	3	2.2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6호	신라		목간 6호	154		[月]6	보고서 6호		월성해자 6호	1985-0044-6	월성해자 6호(왕경)	15.5	1.4	1.5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7호	신라		목간 7호	175		[月]7			월성해자 7호	1985-0044-7	월성해자 7호(왕경)	12.4	1.2	0.6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9호	신라		목간 9호	151		[月]8	보고서 9호		월성해자 9호	1985-0044-9	월성해자 9호(왕경)	25.1	1.4	1.3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10호	신라		목간 10호	148		[月]9	보고서 10호		월성해자 10호	1985-0044-10	월성해자 10호(왕경)	20.8	3.35	3.35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11호	신라		목간 11호	152		[月]10	보고서 11호		월성해자 11호	1985-0044-11	월성해자 11호(왕경)	20.4	4.4	4.4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12호	신라		목간 12호	153		[月]11	보고서 12호		월성해자 12호	1985-0044-12	월성해자 12호(왕경)	24.4	5.1	5.1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13호	신라		목간 13호	161		[月]12	보고서 13호		월성해자 13호	1985-0044-13	월성해자 13호(왕경)	28.6	2.1	2.1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15호	신라		목간 15호	160		[月]13	보고서 15호		월성해자 15호	1985-0044-15	월성해자 15호(왕경)	19.9	2	0.8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16호	신라		목간 16호	157		[月]14	보고서 16호		월성해자 16호	1985-0044-16	월성해자 16호(왕경)	18	2.5	0.4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17호	신라		목간 17호	174		[月]15	보고서 17호		월성해자 17호	1985-0044-17	월성해자 17호(왕경)	15	2.65	0.85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18호	신라		목간 18호	155		[月]16	보고서 18호		월성해자 18호	1985-0044-18	월성해자 18호(왕경)	15.3	2.3	1.4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19호	신라		목간 19호	168		[月]17	보고서 19호		월성해자 19호	1985-0044-19	월성해자 19호(왕경)	10.9	2.6	0.6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0호	신라		목간 20호	169		[月]18	보고서 20호		월성해자 20호	1985-0044-20	월성해자 20호(왕경)	9.3	2.7	0.65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기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1호	신라		보고서 목간 21호	159		[月]19	보고서 21호		월성해자 21호	1985-0044-21	월성해자 21호(양경)	21.7	2.7	0.75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2호	신라		목간 22호	158		[月]20	보고서 22호		월성해자 22호	1985-0044-22	월성해자 22호(양경)	26.8	2.4	1.1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3호	신라		목간 23호	167		[月]21	보고서 23호		월성해자 23호	1985-0044-23	월성해자 23호(양경)	15.2	2.4	1.35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4호	신라		(목간 24호)	162					월성해자 24호	1985-0044-24	월성해자 24호(양경)	29.5	2.1	0.9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5호	신라		(목간 25호)	181					월성해자 25호	1985-0044-25	월성해자 25호(양경)	33.8	2.6	0.9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6호	신라		목간 26호	164		[月]23	보고서 26호		월성해자 26호	1985-0044-26	월성해자 26호(양경)	34	2.1	0.6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8호	신라		(목간 28호)	166		[月]24			월성해자 28호	1985-0044-28	월성해자 28호(양경)	49.1	2.45	0.95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58호	신라		(목간 58호)	170		[月]27			월성해자 58호	1985-0044-57	월성해자 58호(양경)	10.5	1.8	0.4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87호	신라		(목간 87호)	176		[月]29			월성해자 87호	1985-0044-86	월성해자 87호(양경)	10.7	1.4	0.95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101호	신라		(목간 101호)	172		[月]30			월성해자 101호	1985-0044-100	월성해자 101호(양경)	3.6	2.45	0.9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105호	신라		목간 105호	171		[月]31	보고서 105호		월성해자 105호	1985-0044-104	월성해자 105호(양경)	5.15	2.15	2.1	
경주 월성해자	월성 4호 해자 목간	신라		월성 4호 해자 419						월성 4호 해자 419	2003-0144-50	월성 4호 해자(양경)	15.8	2.5	2.3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016-023	신라	임023(2017)					월성해자 신출토 7호		WS-M1-2016-09-임023		임023(2016)(2018a), 목간 신7호(2018b), WS-M1-2016-09-임023(양경)	4.3	2.6	0.6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016-069	신라	임069(2017)					월성해자 신출토 1호		WS-M1-2016-05-임069		임069(2016)(2018a), 목간 新1호(2018b), WS-M1-2016-05-임069(양경)	24.7	5.1	1.2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016-392	신라	임392(2017)					월성해자 신출토 2호		WS-M1-2016-12-임392		임392(2016)(2018a), 목간 신2호(2018b), WS-M1-2016-12-임392(양경)	19.2	3.9	0.8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016-418	신라	임418(2017)					월성해자 신출토 3호		WS-M1-2016-12-임418		임418(2016)(2018a), 목간 신3호(2018b), WS-M1-2016-12-임418(양경)	25.9	2.5	2.2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017-001	신라	임001(2017)					월성해자 신출토 4호		WS-M1-2017-02-임001		임001(2017)(2018a), 목간 신4호(2018b), WS-M1-2017-02-임001(양경)	15	2.1	2.2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017-071	신라	임071(2017)					월성해자 신출토 5호		WS-M1-2017-03-임071		임071(2017)(2018a), 목간 신5호(2018b), WS-M1-2017-03-임071(양경)	22.9	2.5	0.5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017-098	신라	임098(2017)					월성해자 신출토 6호		WS-M1-2017-03-임098		임098(2017)(2018a), 목간 신6호(2018b), WS-M1-2017-03-임098(양경)	12.7	1.7	1.7	
경주 월성해자	월성해자 2018-006	신라	경주 월성해자 삼면독간(2021)					월성해자 신출토 8호		WS-M1-2018-05-임006		WS-M1-2018-05-임006(양경)	38	5.1	3.8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차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기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경주 진인용사지(원 인왕동 사지)	진인용사지 목간	신라		1417			[仁]1	보고서 1417. 목간		傳 인용사지 418	2002-0387-주 가-578	傳인용사지(원 인왕동 사지)(왕경)	15.7	1.4	0.9	
경주 진왕복사지	진왕복사지 목간	신라						① 보고서 미간				傳왕복사지(왕경)	20	3.3	0.8	
경주 황남동 376번지 유적	경주42560(3-1)	신라	69(1998)	19	281		[皇]1	보고서 19-20-21		경주 42560 (3-1)	1280	목간1(2001b), 325(신라), 경주42560(3-1)(왕경)	17.5	2	0.7	
경주 황남동 376번지 유적	경주42560(3-2)	신라	제1호(2001a)	20	282		[皇]2			경주 42560 (3-2)	1280	목간2(2001b), 326(신라), 경주42560(3-2)(왕경)	4.4	1.7	0.6	
경주 황남동 376번지 유적	경주42560(3-3)	신라	제2호(2001a)	21			[皇]3			경주 42560 (3-3)	1280	목간3(진왕복), 경주42560(3-3)(왕경)	5.7	2.1	0.5	왕경 미수복
경주 황남동 도로 유적	황룡사남측도로 30호	신라		30. 목간				목간					7.2	2.7		왕경 미수복
김해 봉황동 지습지 유적	봉황동 목간	신라		목간	147		[鳳]1	①				논어목간(보고서), 논어명문 목간(신라)	20	2.1	2.1	
김해 양동산성	양동산성 128호	신라		128. 목간				보고서 128				1호(2020)	26.8	2.5	0.7	
김해 양동산성	양동산성 129호	신라		129. 목간편				보고서 129				2호(2020)	11.7	2.2	1.4	
김해 양동산성	양동산성 130호	신라		130. 목간				보고서 130				3호(2020)	25.7	2.6	0.7	
남원 아막성	아막성 목간	신라	목간(2009)										9	2.6	2.6	
대구 팔거산성	팔거산성 목간1	신라	1호(2022)					1호					16.2	5.5	1	
대구 팔거산성	팔거산성 목간2	신라	2호(2022)	목간 1(사진 28)				2호					22	2.3	1.1	
대구 팔거산성	팔거산성 목간3	신라	3호(2022)					3호					22.8	2.3	1.1	
대구 팔거산성	팔거산성 목간4	신라	4호(2022)	목간 2(사진 29)				4호					15.2	3.6	0.7	
대구 팔거산성	팔거산성 목간6	신라	6호(2022)					6호					18.1	3.3	0.9	
대구 팔거산성	팔거산성 목간7	신라	7호(2022)					7호					23.3	2.4	0.8	
대구 팔거산성	팔거산성 목간9	신라	9호(2022)	목간 3(사진 30)				9호					18.7	3.5	1.3	
대구 팔거산성	팔거산성 목간14	신라	14호(2022)					14호					18.1	1.3	0.7	
대구 팔거산성	팔거산성 목간15	신라	15호(2022)										19.2	3.2	0.9	
대구 팔거산성	팔거산성 목간16	신라	16호(2022)	목간 4(사진 31)				16호					27.5	2.9	1.1	
부산 배산성	배산성 74호	신라	1호, 김주지 출토 목간(2018)	74				보고서 74					8	3.1	0.6	
부산 배산성	배산성 386호	신라	2호, 김주지 출토 목간(2018)	386				보고서 386					31.7	6	0.4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서울 아차산성	아차산성 목간	신라	1번 목간(2018)	목간형 목기(조면 번호 130-1, 도판번호 140-1)				목간					13.3	3	1.2	
안성 죽주산성	죽주산성 목간1	신라	A6-㉔ 집수시설 목제(2011)					1호					10			
안성 죽주산성	죽주산성 목간2	신라	A6-㉔ 집수시설 축정 목제 차(2011)					2호					68	2.1		자?
익산 미륵사지	미륵사지 목간-318	신라		큰 목간편	318		[彌]1	① 보고서에 없음					17.5	5		
익산 미륵사지	미륵사지 목간-319	신라		작은 목간편	319		[彌]2	② 보고서에 없음					8	3.2		
인천 계양산성	계양산성 1호	신라		목간 I			[桂]1	보고서 1호				논어 목간	13.8	1.8		
인천 계양산성	계양산성 2호	신라		목간 II			[桂]2	보고서 2호					49.3	2.5		
장수 침령산성	침령산성 114호	신라		114				보고서 114					30.7	2.9	2.9	
창녕 화왕산성 면지	화왕산성 목간1	신라	목간1(2009)	164. 목서명 목제품			[火]4, [火]2, [火]3	보고서 164호					16.4	1.9	0.4	3개 절단(절 단 후 구멍 2개)
창녕 화왕산성 면지	화왕산성 목간2	신라	목간2(2009)	173. 목제품				보고서 173호					28.8	6.1		
창녕 화왕산성 면지	화왕산성 목간3	신라	목간3(2009)	182. 목간									31.1	6		
창녕 화왕산성 면지	화왕산성 목간4	신라	목간4(2009)	196. 목제인형			[火]1	보고서 196호				인형 목간	49.1	10.6		
하남 이성산성	이성산성 보고서3-1	신라		木簡 1(보고서3)	118		[二]1	보고서 Ⅲ차-1호				312(신라)	15	1.3	0.9	
하남 이성산성	이성산성 보고서3-2	신라		木簡 2(보고서3)	119		[二]2					310(신라)	18.5	3.5	3.5	
하남 이성산성	이성산성 보고서3-3	신라		木簡 3(보고서3)	128		[二]7					311(신라)	5.1	1	0.55	
하남 이성산성	이성산성 보고서3-4	신라		木簡 4(보고서3)	129							311(신라)	3.8	1.2	0.45	
하남 이성산성	이성산성 보고서4-5	신라		木簡 5(보고서4)	125							312(신라)	7.1	1.5	0.2	
하남 이성산성	이성산성 보고서4-2	신라		木簡 2(보고서4)	126		[二]6					312(신라)	8.2	1.6	0.3	
하남 이성산성	이성산성 보고서7-4	신라		목간4(보고서7)	120		[二]3					목간 1(보고서7 부록1)	17.7	3	0.7	
하남 이성산성	이성산성 보고서7-5	신라		목간5(보고서7)	121		[二]4					목간 2(보고서7 부록2)	20.5	1.6		
하남 이성산성	이성산성 보고서8-1	신라		木簡 1(보고서8)	117		[二]5	보고서 8차 1호					35	1.2	1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하남 이성산성	이성산성 보고서8-2	신라		木簡 2(보고서8)	123			보고서 8차 2호					25	2.7	1.1	
하남 이성산성	이성산성 보고서8-5	신라		木簡 5(보고서8)	124								17	1.2	1.7	
하남 이성산성	이성산성 보고서8-6	신라		木簡 6(보고서8)	127								5.9	1.7	1.2	
함안 성산산성	가야27	신라		1	28		[城]28	고대목간 II 1호			가야27		24.3	2.5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28	신라		2	29		[城]29	고대목간 II 2호			가야28		21.1	1.9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29	신라		3	30		[城]30	고대목간 II 3호			가야29		19.2	2	1	
함안 성산산성	가야30	신라		4	31		[城]31	고대목간 II 4호			가야30		21.2	2.9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31	신라		5	32		[城]32	고대목간 II 5호			가야31		15.9	1.5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32	신라		6	33		[城]33	고대목간 II 6호			가야32		29.6	3.5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33	신라		7	34		[城]34	고대목간 II 7호			가야33		29	3.1	1	
함안 성산산성	가야34	신라		8	35		[城]35	고대목간 II 8호			가야34		27.7	3.3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35	신라		9	36		[城]36	고대목간 II 9호			가야35		29.6	3.8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36	신라		10	37		[城]37	고대목간 II 10호			가야36		24.4	3.5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37	신라		11	38		[城]38	고대목간 II 11호			가야37		26.7	4.7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38	신라		12	39		[城]39	고대목간 II 12호			가야38		17.2	2.4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39	신라		13	40		[城]40	고대목간 II 13호			가야39		19.3	2.1	1	
함안 성산산성	가야40	신라		14	41		[城]41	고대목간 II 14호			가야40		16.2	2.1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41	신라		15	42		[城]42	고대목간 II 15호			가야41		18.1	2.6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42	신라		16	43		[城]43	고대목간 II 16호			가야42		14.9	2.5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43	신라		17	44		[城]44	고대목간 II 17호			가야43		15.8	2.4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44	신라		18	45		[城]45	고대목간 II 18호			가야44		20.6	1.7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45	신라		19	46		[城]46	고대목간 II 19호			가야45		16.1	2.2	0.3	
함안 성산산성	가야46	신라		20	47		[城]47	고대목간 II 20호			가야46		19.2	1.6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47	신라		21	48		[城]48	고대목간 II 21호			가야47		16	2.8	1.3	
함안 성산산성	가야48	신라		22	49		[城]49	고대목간 II 22호			가야48		19.6	2.9	0.8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브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함안 성산산성	가야49	신라		23	50		[城]50	고대목간 II 23호			가야49		15.5	1.7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50	신라		24	52		[城]51	고대목간 II 24호			가야50		19.9	2.7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51	신라		25	53		[城]52	고대목간 II 25호			가야51		18.1	2.5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52	신라		26	54		[城]53	고대목간 II 26호			가야52		19.3	2.1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53	신라		27	55		[城]54	고대목간 II 27호			가야53		15.3	1.7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54	신라		28	56		[城]55	고대목간 II 28호			가야54		16.4	2.4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55	신라		29	57		[城]56	고대목간 II 29호			가야55		27.8	1.7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56	신라		30	59		[城]57	고대목간 II 30호			가야56		13.2	2.4	0.9	
함안 성산산성	가야57	신라		31	60		[城]58	고대목간 II 31호			가야57		8.7	2.9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58	신라		32+46+61	61+75 +90		[城]59	고대목간 II 32호			가야58		22.9	2.7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59	신라		33+37	62+66		[城]60	고대목간 II 33호			가야59		15.1	1.9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60	신라		34	63		[城]61	고대목간 II 34호			가야60		12.6	1.5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61	신라		35	64		[城]62	고대목간 II 35호			가야61		10.1	2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62	신라		36	65		[城]63	고대목간 II 36호			가야62		5.4	1.9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63	신라		38	67		[城]64	고대목간 II 37호			가야63		3.5	1.9	0.3	
함안 성산산성	가야64	신라		39	68		[城]65	고대목간 II 38호			가야64		12.7	1.6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65	신라		40	69		[城]66	고대목간 II 39호			가야65		8.3	2.6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66	신라		41	70		[城]67	고대목간 II 40호			가야66		9.7	2.7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67	신라		42	71		[城]68	고대목간 II 41호			가야67		7.2	1.3	0.3	
함안 성산산성	가야68	신라		43	72		[城]69	고대목간 II 42호			가야68		8.3	1.6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69	신라		44	73		[城]70	고대목간 II 43호			가야69		11.5	2.6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70	신라		45+66	74		[城]71	고대목간 II 44호			가야70		14.5	2.1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71	신라		47+E	76		[城]72	고대목간 II 45호			가야71		10.1	2.7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72	신라		48	77		[城]73	고대목간 II 46호			가야72		12.2	1.8	0.9	
함안 성산산성	가야73	신라		49	78		[城]74	고대목간 II 47호			가야73		14.5	2.5	0.5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브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함안 성산산성	가야74	신라		50	79		[城]75	고대목간 II 48호			가야74		12.4	1.8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75	신라		51	80		[城]76	고대목간 II 49호			가야75		14.7	1.8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76	신라		52	81		[城]77	고대목간 II 50호			가야76		7.1	1.8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77	신라		53	82		[城]78	고대목간 II 51호			가야77		7.4	2.1	0.3	
함안 성산산성	가야78	신라		54	83		[城]79	고대목간 II 52호			가야78		8.9	2.9	0.9	
함안 성산산성	가야79	신라		55	84		[城]80	고대목간 II 53호			가야79		12.7	3.5	0.9	
함안 성산산성	가야80	신라		56	85		[城]81	고대목간 II 54호			가야80		10.7	2.2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81	신라		57	86		[城]82	고대목간 II 55호			가야81		11.5	2.2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82	신라		58	87		[城]83	고대목간 II 56호			가야82		9.9	2.2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83	신라		59	88		[城]84	고대목간 II 57호			가야83		9.3	1.7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84	신라		60	89		[城]85	고대목간 II 58호			가야84		5.5	1.9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85	신라		62	91		[城]86	고대목간 II 59호			가야85		9.6	1.6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86	신라		63	92		[城]87	고대목간 II 60호			가야86		11	3.1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88	신라		65	94		[城]89	고대목간 II 61호			가야88		5.7	2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89	신라		67	96		[城]90	고대목간 II 62호			가야89		3.1	2.9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90	신라		68	97		[城]91	고대목간 II 63호			가야90		6.7	1.9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1590	신라	2006-w1(2007)	1			[城]100	고대목간 II 64호			가야1590		24.6	2.6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1592	신라	2006-w3(2007)	16			[城]115	고대목간 II 65호			가야1592		18.2	2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1593	신라	2006-w4(2007)	2			[城]101	고대목간 II 66호			가야1593		25.1	2.8	1.4	
함안 성산산성	가야1594	신라	2006-w10(200 7)	5			[城]104	고대목간 II 67호			가야1594		22.1	2.7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1595	신라	2006-w11(200 7)	20			[城]119	고대목간 II 68호			가야1595		20	2.2	1.3	
함안 성산산성	가야1596	신라	2006-w5(2007)	17			[城]116	고대목간 II 69호			가야1596		29.7	4.5	0.9	
함안 성산산성	가야1597	신라	2006-w6(2007)	3			[城]102	고대목간 II 70호			가야1597		17	2.3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1598	신라	2006-w7(2007)	18			[城]117	고대목간 II 71호			가야1598		17.8	2.6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1599	신라	2006-w8(2007)	4			[城]103	고대목간 II 72호			가야1599		16	1.8	0.8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함안 성산산성	가야1600	신라	2006-w9(2007)	19			[城]118	고대목간 II 73호			가야1600		12.2	1.6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1601	신라	2006-w12(2007)	6			[城]105	고대목간 II 74호			가야1601		17.2	3.1	0.9	
함안 성산산성	가야1602	신라	2006-w40(2007)	28			[城]127	고대목간 II 75호			가야1602		26.4	2	1.2	
함안 성산산성	가야1605	신라	2006-w15(2007)	11			[城]110	고대목간 II 76호			가야1605		14.4	1.6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1606	신라	2006-w16(2007)	7			[城]106	고대목간 II 77호			가야1606		15.1	1.7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1607	신라	2006-w17(2007)	21			[城]120	고대목간 II 78호			가야1607		15	2.5	1.7	
함안 성산산성	가야1609	신라	2006-w19(2007)	8			[城]107	고대목간 II 79호			가야1609		7.5	1.3	2	
함안 성산산성	가야1613	신라	2006-w24(2007)	22			[城]121	고대목간 II 80호			가야1613		32.2	3.2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1614	신라	2006-w25(2007)	9			[城]108	고대목간 II 81호			가야1614		23.4	3.8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1615	신라	2006-w26(2007)	23			[城]122	고대목간 II 82호			가야1615		7.5	2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1616	신라	2006-w27(2007)	10			[城]109	고대목간 II 83호			가야1616		18	3.6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1617	신라	2006-w28(2007)	13			[城]112	고대목간 II 84호			가야1617		13.9	1.7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1618	신라	2006-w35(2007)	26			[城]125	고대목간 II 85호			가야1618		6.9	3.1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1619	신라	2006-w36(2007)	14			[城]113	고대목간 II 86호			가야1619		8.2	2.5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1620	신라	2006-w37(2007)	27			[城]126	고대목간 II 87호			가야1620		8.6	2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1622	신라	2006-w29(2007)	15			[城]114	고대목간 II 88호			가야1622		20.1	1.9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1623	신라	2006-w30(2007)	24			[城]123	고대목간 II 89호			가야1623		13.4	2.3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1624	신라	2006-w31(2007)	12			[城]111	고대목간 II 90호			가야1624		24.3	3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1625	신라	2006-w32(2007)	25			[城]124	고대목간 II 91호			가야1625		20.7	1.7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1982	신라	2007-w1(2007)	29			[城]128	고대목간 II 92호			가야1982		17.5	2.5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1985	신라	2007-w4(2007)	30			[城]129	고대목간 II 93호			가야1985		20.6	2.1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1986	신라	2007-w5(2007)	31			[城]130	고대목간 II 94호			가야1986		11.4	1.7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1987	신라	2007-w6(2007)	32			[城]131	고대목간 II 95호			가야1987		19.8	2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1988	신라	2007-w7(2007)	33			[城]132	고대목간 II 96호			가야1988		14.1	2.8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1989	신라	2007-w8(2007)	34			[城]133	고대목간 II 97호			가야1989		26.1	3.2	0.5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함안 성산산성	가야1990	신라	2007-w9(2007 7)	35			[城]134	고대목간 II 98호			가야1990		16.6	1.8	0.2	
함안 성산산성	가야1991	신라	2007-w10(200 7)	36			[城]135	고대목간 II 99호			가야1991		20.4	2.1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1992	신라	2007-w11(200 7)	37			[城]136	고대목간 II 100호			가야1992		16.7	2.5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1993	신라	2007-w12(200 7)	38			[城]137	고대목간 II 101호			가야1993		13.5	1.9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1994	신라	2007-w13(200 7)	39			[城]138	고대목간 II 102호			가야1994		23.8	2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1995	신라	2007-w14(200 7)	40			[城]139	고대목간 II 103호			가야1995		21.2	2.5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1996	신라	2007-w15(200 7)	41			[城]140	고대목간 II 104호			가야1996		15.2	2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1997	신라	2007-w16(200 7)	42			[城]141	고대목간 II 105호			가야1997		17	1.6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1998	신라	2007-w17(200 7)	43			[城]142	고대목간 II 106호			가야1998		18.3	2.4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1999	신라	2007-w18(200 7)	44			[城]143	고대목간 II 107호			가야1999		24.8	2.8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2000	신라	2007-w19(200 7)	45			[城]144	고대목간 II 108호			가야2000		15.5	2.1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2001	신라	2007-w20(200 7)	46			[城]145	고대목간 II 109호			가야2001		32	4.1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2002	신라	2007-w21(200 7)	47			[城]146	고대목간 II 110호			가야2002		13.3	2.1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2003	신라	2007-w22(200 7)	48			[城]147	고대목간 II 111호			가야2003		16.4	1.6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2004	신라	2007-w23(200 7)	49			[城]148	고대목간 II 112호			가야2004		15.6	1.9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2005	신라	2007-w24(200 7)	50			[城]149	고대목간 II 113호			가야2005		15.5	2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2006	신라	2007-w25(200 7)	51			[城]150	고대목간 II 114호			가야2006		21.6	2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2007	신라	2007-w26(200 7)	52			[城]151	고대목간 II 115호			가야2007		17.8	2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2008	신라	2007-w27(200 7)	53			[城]152	고대목간 II 116호			가야2008		21.8	3.9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2009	신라	2007-w28(200 7)	54			[城]153	고대목간 II 117호			가야2009		13.5	2.1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2010	신라	2007-w29(200 7)	55			[城]154	고대목간 II 118호			가야2010		14.9	2.5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2011	신라	2007-w30(200 7)	56			[城]155	고대목간 II 119호			가야2011		18.3	2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2012	신라	2007-w31(200 7)	57			[城]156	고대목간 II 120호			가야2012		24.3	3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2013	신라	2007-w32(200 7)	58			[城]157	고대목간 II 121호			가야2013		20.5	2.2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2014	신라	2007-w33(200 7)	59			[城]158	고대목간 II 122호			가야2014		19.8	2.4	0.6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함안 성산산성	가야2015	신라	2007-w34(2007)	60			[城]159	고대목간 II 123호			가야2015		15	1.5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2016	신라	2007-w35(2007)	61			[城]160	고대목간 II 124호			가야2016		16.5	2.2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2017	신라	2007-w36(2007)	62			[城]161	고대목간 II 125호			가야2017		14	2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2018	신라	2007-w37(2007)	63			[城]162	고대목간 II 126호			가야2018		13.8	1.7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2019	신라	2007-w38(2007)	64			[城]163	고대목간 II 127호			가야2019		11.2	1.7	0.3	
함안 성산산성	가야2020	신라	2007-w39(2007)	65			[城]164	고대목간 II 128호			가야2020		25.2	2	0.9	
함안 성산산성	가야2021	신라	2007-w40(2007)	66			[城]165	고대목간 II 129호			가야2021		15.1	2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2022	신라	2007-w41(2007)	67			[城]166	고대목간 II 130호			가야2022		19.8	3.6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2023	신라	2007-w42(2007)	68			[城]167	고대목간 II 131호			가야2023		21.9	1.7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2024	신라	2007-w43(2007)	69			[城]168	고대목간 II 132호			가야2024		19.5	2.3	0.9	
함안 성산산성	가야2025	신라	2007-w44(2007)	70			[城]169	고대목간 II 133호			가야2025		32.5	3.3	1.1	
함안 성산산성	가야2026	신라	2007-w45(2007)	71			[城]170	고대목간 II 134호			가야2026		34.4	2.9	1.3	
함안 성산산성	가야2027	신라	2007-w46(2007)	72			[城]171	고대목간 II 135호			가야2027		10.9	2	0.3	
함안 성산산성	가야2028	신라	2007-w47(2007)	73			[城]172	고대목간 II 136호			가야2028		20	1.5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2029	신라	2007-w48(2007)	74			[城]173	고대목간 II 137호			가야2029		13.8	2.6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2030	신라	2007-w49(2007)	75			[城]174	고대목간 II 138호			가야2030		8.5	1.8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2031	신라	2007-w50(2007)	76			[城]175	고대목간 II 139호			가야2031		17.3	1.7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2032	신라	2007-w51(2007)	77			[城]176	고대목간 II 140호			가야2032		15.5	1.9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2033	신라	2007-w52(2007)	78			[城]177	고대목간 II 141호			가야2033		16.5	1.9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2034	신라	2007-w53(2007)	89			[城]178	고대목간 II 142호			가야2034		28.6	3.2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2035	신라	2007-w54(2007)	80			[城]179	고대목간 II 143호			가야2035		17.6	2.5	1	
함안 성산산성	가야2036	신라	2007-w55(2007)	81			[城]180	고대목간 II 144호			가야2036		25.2	3.7	1	
함안 성산산성	가야2037	신라	2007-w56(2007)	82			[城]181	고대목간 II 145호			가야2037		15.9	2.2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2038	신라	2007-w57(2007)	83			[城]182	고대목간 II 146호			가야2038		16.9	1.4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2039	신라	2007-w58(2007)	84			[城]183	고대목간 II 147호			가야2039		12.3	1.8	0.5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함안 성산산성	가야2042	신라	2007-A(2007)	87			[城]186	고대목간 II 148호			가야2042		9.5	1.7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2043	신라	2007-B(2007)	88			[城]187	고대목간 II 149호			가야2043		7.1	1.8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2044	신라	2007-C(2007)					고대목간 II 150호			가야2044		7.8	2.6	1.1	
함안 성산산성	가야2045	신라	2007-D(2007)	89			[城]188	고대목간 II 151호			가야2045		11.9	2.7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2046	신라	2007-E(2007)	90			[城]189	고대목간 II 152호			가야2046		10.5	2.7	0.3	
함안 성산산성	가야2047	신라	2007-F(2007)	91			[城]190	고대목간 II 153호			가야2047		9.1	1.6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2048	신라	2007-G(2007)	92			[城]191	고대목간 II 154호			가야2048		5.3	1.8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2049	신라	2007-H(2007)	93			[城]192	고대목간 II 155호			가야2049		6.9	1.9	0.3	
함안 성산산성	가야2050	신라	2007-I(2007)	94			[城]193	고대목간 II 156호			가야2050		5.1	2.3	0.3	
함안 성산산성	가야2051	신라	2007-w61(2007)	85			[城]184	고대목간 II 157호			가야2051		15.3	2.3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2052	신라	2007-w62(2007)					고대목간 II 158호			가야2052		15.2	3.8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2054	신라	2007-w64(2007)	86			[城]185	고대목간 II 159호			가야2054		12.1	2.1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2055	신라		97			[城]196	고대목간 II 160호			가야2055		21.8	3.7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2056	신라		95			[城]194	고대목간 II 161호			가야2056		18.8	2.2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2057	신라		96			[城]195	고대목간 II 162호			가야2057		21.2	1.6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2058	신라	T304(2007)	98			[城]197	고대목간 II 163호			가야2058		23	2.4	1	
함안 성산산성	가야2060	신라	T370(2007)	99			[城]198	고대목간 II 164호			가야2060		30.9	2.2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2390	신라		100			[城]199	고대목간 II 165호			가야2390		12.6	1.5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2391	신라		101			[城]200	고대목간 II 166호			가야2391		14.9	2.3	0.3	
함안 성산산성	가야2614	신라		102			[城]201	고대목간 II 167호			가야2614		17.5	1.6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2618	신라		103			[城]202	고대목간 II 168호			가야2618		15.9	2.3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2619	신라		104			[城]203	고대목간 II 169호			가야2619		24.3	3.8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2620	신라		105			[城]204	고대목간 II 170호			가야2620		29.1	3.8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2624	신라		106			[城]207	고대목간 II 171호			가야2624		10.3	3.1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2625	신라		125			[城]224	고대목간 II 172호			가야2625		14.9	2.9	0.7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국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함안 성산산성	가야2627	신라		109			[城]208	고대목간 II 173호			가야2627		28.5	4.6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2628	신라		110			[城]209	고대목간 II 174호			가야2628		14.5	2.1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2629	신라		111			[城]210	고대목간 II 175호			가야2629		12	2.9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2630	신라		112			[城]211	고대목간 II 176호			가야2630		16.8	2.6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2631	신라		113			[城]212	고대목간 II 177호			가야2631		21.8	2.5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2632	신라		114			[城]213	고대목간 II 178호			가야2632		15.1	1.9	0.3	
함안 성산산성	가야2633	신라		115			[城]214	고대목간 II 179호			가야2633		16.4	2.7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2635	신라		116			[城]215	고대목간 II 180호			가야2635		8.3	3.2	0.3	
함안 성산산성	가야2636	신라		117			[城]216	고대목간 II 181호			가야2636		15.8	2.2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2637	신라		118			[城]217	고대목간 II 182호			가야2637		20.6	2.6	0.9	
함안 성산산성	가야2639	신라		119			[城]218	고대목간 II 183호			가야2639		20.8	1.3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2640	신라		120			[城]219	고대목간 II 184호			가야2640		20.9	2.7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2641	신라		121			[城]220	고대목간 II 185호			가야2641		20.3	2.1	1.2	
함안 성산산성	가야2645	신라		122			[城]221	고대목간 II 186호			가야2645		25	3.4	2.8	
함안 성산산성	가야2954	신라		123			[城]222	고대목간 II 187호			가야2954		15.7	1.2	1	
함안 성산산성	가야2956	신라		124			[城]223	고대목간 II 188호			가야2956		29.3	1.2	1.8	
함안 성산산성	가야4685	신라		163				고대목간 II 189호			가야4685		18.2	2.2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4686	신라		164				고대목간 II 190호			가야4686		17.3	2.6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4687	신라		165				고대목간 II 191호			가야4687		19.4	2.2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4688	신라		166				고대목간 II 192호			가야4688		20.8	2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4689	신라		167				고대목간 II 193호			가야4689		11	1.8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4691	신라		169				고대목간 II 194호			가야4691		18	2.4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4692	신라		170				고대목간 II 195호			가야4692		12	2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4693	신라		171				고대목간 II 196호			가야4693		20.1	2.3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4694	신라		172				고대목간 II 197호			가야4694		10.7	1.8	0.4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브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함안 성산산성	가야4695	신라		173				고대목간 II 198호			가야4695		10.8	1.9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4696	신라		174				고대목간 II 199호			가야4696		6.6	2	0.9	
함안 성산산성	가야4697	신라		175				고대목간 II 200호			가야4697		9.1	2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5581	신라	2(2017)	2				고대목간 II 201호			가야5581		11.8	2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5582	신라	3(2017)	3				고대목간 II 202호			가야5582		7	2	1	
함안 성산산성	가야5583	신라	5(2017)	5				고대목간 II 203호			가야5583		15.1	1.4	1.2	
함안 성산산성	가야5584	신라	7(2017)	7				고대목간 II 204호			가야5584		10.8	1.7	0.9	
함안 성산산성	가야5585	신라	6(2017)	6				고대목간 II 205호			가야5585		20.5	2.6	0.6	
함안 성산산성	가야5586	신라	8(2017)	8				고대목간 II 206호			가야5586		21	2.5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5587	신라	11(2017)	11				고대목간 II 207호			가야5587		20.7	2.1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5588	신라	12(2017)	12				고대목간 II 208호			가야5588		11.7	2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5589	신라	10(2017)	10				고대목간 II 209호			가야5589		28.8	3.7	0.9	
함안 성산산성	가야5590	신라	13(2017)	13				고대목간 II 210호			가야5590		15.9	2.3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5591	신라	14(2017)	14				고대목간 II 211호			가야5591		13.7	2.1	0.3	
함안 성산산성	가야5592	신라	15(2017)	15				고대목간 II 212호			가야5592		21.9	3.5	1.3	
함안 성산산성	가야5593	신라	16(2017)	16				고대목간 II 213호			가야5593		21.7	2.6	0.5	
함안 성산산성	가야5594	신라	18(2017)	18				고대목간 II 214호			가야5594		17.6	2.8	0.4	
함안 성산산성	가야5595	신라	17(2017)	17				고대목간 II 215호			가야5595		22.8	1.9	0.9	
함안 성산산성	가야5596	신라	19(2017)	19				고대목간 II 216호			가야5596		16.1	2.5	1	
함안 성산산성	가야5597	신라	20(2017)	20				고대목간 II 217호			가야5597		22.2	2.9	1.1	
함안 성산산성	가야5598	신라	1(2017)	1				고대목간 II 218호			가야5598		34.4	1.3	1.9	
함안 성산산성	가야5599	신라	21(2017)	21				고대목간 II 219호			가야5599		22.7	4	0.8	
함안 성산산성	가야5600	신라	22(2017)	22				고대목간 II 220호			가야5600		20.3	1.9	0.7	
함안 성산산성	가야5601	신라	23(2017)	23				고대목간 II 221호			가야5601		20	2	1.1	
함안 성산산성	김해1264	신라		2	24		[城]2	고대목간 II 223호			김해1264		11.7	3.6	0.5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브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함안 성산산성	김해1265	신라		3	23		[城]3	고대목간 II 224호			김해1265		8	2.5	0.5	
함안 성산산성	김해1268	신라		6	10		[城]6	고대목간 II 225호			김해1268		22.7	2.6	0.5	
함안 성산산성	김해1269	신라		7	6		[城]7	고대목간 II 226호			김해1269		20	2.8	0.6	
함안 성산산성	김해1270	신라		8	11		[城]8	고대목간 II 227호			김해1270		17.7	1.7	0.5	
함안 성산산성	김해1271	신라		9	12		[城]9	고대목간 II 228호			김해1271		17.3	1.6	0.5	
함안 성산산성	김해1272	신라		10	7		[城]10	고대목간 II 229호			김해1272		20.5	2.8	0.4	
함안 성산산성	김해1274	신라		12	18		[城]12	고대목간 II 231호			김해1274		21.1	2.5	0.9	
함안 성산산성	김해1275	신라		13	1		[城]13	고대목간 II 232호			김해1275		23.7	3	0.9	
함안 성산산성	김해1276	신라		14	9		[城]14	고대목간 II 233호			김해1276		18.6	2.5	0.8	
함안 성산산성	김해1277	신라		15	17		[城]15	고대목간 II 234호			김해1277		16.7	3.4	0.5	
함안 성산산성	김해1278	신라		16	19		[城]16	고대목간 II 235호			김해1278		16	3	0.6	
함안 성산산성	김해1279	신라		17	2		[城]17	고대목간 II 236호			김해1279		19.7	2	0.6	
함안 성산산성	김해1280	신라		18	16		[城]18	고대목간 II 237호			김해1280		17.9	1.9	0.3	
함안 성산산성	김해1282	신라		20	13		[城]20	고대목간 II 238호			김해1282		15.9	2.2	0.7	
함안 성산산성	김해1284	신라		22	22		[城]22	고대목간 II 240호			김해1284		10.4	2	0.4	
함안 성산산성	김해1285	신라		23	15		[城]23	고대목간 II 241호			김해1285		15.9	1.8	0.9	
함안 성산산성	김해1286	신라		24	14		[城]24	고대목간 II 242호			김해1286		16	2.5	1	
함안 성산산성	김해1287	신라		25	4		[城]25	고대목간 II 243호			김해1287		22.8	3.8	0.9	
함안 성산산성	김해1289	신라		27	21		[城]27	고대목간 II 245호			김해1289		12.7	2.6	0.5	
함안 성산산성	성산산성 보고서2-85	신라		85			[城]93						7	2.1	0.7	목간II 미수록
함안 성산산성	성산산성 보고서2-88	신라		88	58		[城]94						18.4	2.5	0.9	제철추, 목간II, 미수록
함안 성산산성	성산산성 보고서3-1	신라		1	51								20.3	3.1	1.3	목간II 미수록
함안 성산산성	성산산성 자진-95	신라	A(2006)				[城]95						3	2.6	0.6	목간II 미수록
함안 성산산성	성산산성 자진-96	신라	B(2006)				[城]96						6.3	4.8	0.2	목간II 미수록
함안 성산산성	성산산성 자진-97	신라	C(2006)				[城]97						3	2.6	0.6	목간II 미수록

출토지	제안 호칭	국적	소개	보고서	목간 (2004)	백제 (2008)	자진 (2011)	총람 (2022)	사비 (2023)	소장품/유물/ 임시번호	국가귀속번호	기타	길이	너비	두께	비고
함안 정산산성	정산산성 자진-98	신라	D(2006)				[城]98						6.2	2.4	0.4	목간Ⅱ 미수록
함안 정산산성	정산산성 자진-99	신라	F(2006)				[城]99						26.7	2	0.5	목간Ⅱ 미수록
함안 정산산성	진주1263	신라		1	3		[城]1	고대목간 Ⅱ 222호			진주1263		23.6	4.4	0.7	
함안 정산산성	진주1273	신라		11	8		[城]11	고대목간 Ⅱ 230호			진주1273		20.8	2.8	0.7	
함안 정산산성	진주1283	신라		21	20		[城]21	고대목간 Ⅱ 239호			진주1283		12.6	2.2	0.5	
함안 정산산성	진주1288	신라		26	5		[城]26	고대목간 Ⅱ 244호			진주1288		20.3	3.1	0.6	

[자료 목록]

1. 공통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4, 『韓國의 古代木簡(學術調查報告 第25輯)』. ⇒ 목간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6, 『개정판 韓國의 古代木簡』.

국립부여박물관·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9, 『나무 속 암호 목간』, 예맥. ⇒ 나무

손원일 편저, 2011, 『韓國木簡字典』,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자진

윤재석 편저, 2022, 『한국목간총람(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사업단 자료총서 01)』, 주류성. ⇒ 총람

2. 백제

국립부여박물관, 2008, 『백제 목간 - 소장품조사자료집』. ⇒ 백제

권인한·김경호·윤선태 編, 2015, 『한국고대문자자료 연구 백제(상)-지역별(한국목간학회 연구총서 01)』, 주류성. ⇒ 연구

백제역사문화연구원 문화유산연구부, 2023, 『백제 사비기 목간(부여의 문화유산_06)』, 부여군 문화재단. ⇒ 사비

1) 금산 백령산성

忠淸南道歷史文化院 錦山郡, 2007, 『錦山 柏嶺山城 -1·2次 發掘調査 報告書-』.

2) 나주 복암리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0, 『羅州 伏岩里遺蹟 I』.

3) 부여 관북리

尹武炳, 1985, 『扶餘官北里百濟遺蹟發掘報告(Ⅰ)』, 忠南大學校博物館·忠清남도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9, 『扶餘 官北里百濟遺蹟 發掘報告 Ⅲ』.
충남대학교박물관, 2023, 『扶餘 官北里百濟遺蹟 VI』.

4) 부여 구아리 319번지(중앙성결교회)

심상욱·이미현·이효중, 2011, 「부여 ‘중앙성결교회유적’ 및 ‘뒷개유적’ 출토 목간 보고」, 『목간과 문자』 10호.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2, 『부여 구아리 319 부여중앙성결교회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5) 부여 공남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1999, 『宮南池』, ※ 공남지001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1, 『宮南池 II』, ※ 공남지004, 공남지002

6) 부여 능산리사지

朴仲煥, 2002, 「扶餘 陵山里寺址 發掘 木簡 豫報」, 『한국고대사연구』 28.
국립부여박물관, 2003, 『百濟의 文字』.
近藤浩一, 2004, 「扶餘 陵山里 羅城築造 木簡의 研究」, 『百濟研究』 第28輯.
平川南, 2005, 「百濟と古代日本における道の祭祀」, 『백제 사비시기 문화의 재조명』.
이용현, 2007a, 「목간」, 『百濟의 文化와 生活(백제문화사대계 12)』, 충남역사문화원.
윤선태, 2007b, 「목간이 들려주는 백제 이야기」, 주류성.
國立扶餘博物館, 2007, 『陵寺 -부여능산리사지 6~8차 발굴보고서-』.
李炳鎬, 2008, 「扶餘 陵山里 出土 木簡의 性格」, 『목간과 문자』 창간호.
국립부여박물관, 2010, 『백제 중흥을 꿈꾸다 -능산리사지-』.
손환일, 2011, 『한국 목간의 기록문화와 서체』, 서화미디어.

7) 부여 동남리 49-2번지

고상혁, 2023, 「부여 동남리 49-2번지 신출토 목간 소개」, 『신 출토 문자자료의 향연(제38회 한국목간학회 정기발표7회)』.

8) 부여 동남리 216-17번지

忠淸南道歷史文化院·扶餘郡, 2007, 『扶餘 東南里 216-17番地遺蹟』.

- 9) 부여 석목리 143-16번지
 심상욱·이화영, 2019, 「부여 석목리 143-16번지 유적 문자자료 소개」, 『목간과 문자』 22호.
 백제고도문화재단, 2019, 「부여 석목리 143-16번지 유적」.
- 10) 부여 쌍북리 56번지
 김성식·한지아, 2018, 「부여 쌍북리 56번지 사비한옥마를 조성부지 유적 출토 목간」, 『목간과 문자』 21.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2020, 「부여 쌍북리 56번지 유적 - 부여 사비한옥마를 조성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울산발전연구원 문화재센터 학술연구총서 제108집)」.
- 11) 부여 쌍북리 102번지
 충남대학교박물관, 2013, 「부여 쌍북리유적 II」.
- 12) 부여 쌍북리 173-8번지
 손호성, 2011, 「부여 쌍북리 119안전센터부지 출토 목간의 내용과 판독」, 『목간과 문자』 7호.
 동방문화재연구원, 2013, 「부여 사비119 안전센터 신축부지 내 쌍북리 173-8번 유적」.
 李浩炯, 2013, 「扶餘 雙北里 173-8番地遺蹟 木簡의 出土 現況 및 檢討」, 『목간과 문자』 11호.
- 13) 부여 쌍북리 184-11번지
 심상욱, 2013, 「부여 쌍북리 184-11 유적 목간 신출 보고」, 『목간과 문자』 10호.
 백제고도문화재단·부여군, 2014, 「부여 쌍북리 184-11(부여 사비119안전센터부지)유적」.
- 14) 부여 쌍북리 201-4번지
 韓國文化財財團, 2015, 「2012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V - 부여 2 -(學術調查報告 第279冊)」.
 정훈진, 2016, 「부여 쌍북리 백제유적 출토 목간의 성격 - 201-4번지 및 328-2번지 출토 목간을 중심으로 -」, 『목간과 문자』 16호.
- 15) 부여 쌍북리 280-5번지
 朴泰祐·鄭海濤·尹智熙, 2008, 「扶餘 雙北里 280-5番地 出土 木簡 報告」, 『목간과 문자』 2호.
 백제문화재연구원, 2011, 「扶餘 雙北里 285-5 遺蹟」.

- 16) 부여 쌍북리 328-2번지
韓國文化財財團, 2013,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Ⅲ - 충남 1 - (學術調査報告 第261冊)』.
정훈진, 2016, 「부여 쌍북리 백제유적 출토 목간의 성격 - 201-4번지 및 328-2번지 출토 목간을 중심으로 -」, 『목간과 문자』 16호.
 - 17) 부여 쌍북리 뒷개(15번지)
심상욱·이미현·이효중, 2011, 「부여 '중앙성결교회유적' 및 '뒷개유적' 출토 목간 보고」, 『목간과 문자』 10호.
(재)부여군문화재보존센터), 2013, 『부여 뒷개 유적』.
 - 18) 부여 쌍북리 현내들
이판섭·윤선태, 2008, 「扶餘 雙北里 현내들·北浦유적의 조사 성과 - 현내들유적 출토 百濟木簡의 소개 -」 『목간과 문자』 창간호.
(財)忠淸文化財研究院, 2009, 『扶餘 雙北里 현내들·北浦遺蹟』.
 - 19) 정읍 고사부리성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0, 『정읍 고사부리성(사적 제494호 성벽 정밀발굴조사(8차) 약보고서』.
2. 신라
- 國立慶州博物館, 2002, 『文字로 본 新羅 - 新羅人の 記錄과 筆跡』. ⇒ 신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22, 『신라 왕경 목간』. ⇒ 왕경
 - 1) 경산 소월리
전경효, 2020, 「경산 소월리 목간의 기초적 검토」, 『목간과 문자』 24호.
 - 2)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최순조, 2013, 「국립경주박물관 남측부지 유적 출토 신명문자로 - 東宮衙銘 호 및 辛番(?)東宮洗宅銘 청동 접시 -」, 『목간과 문자』 10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경주 인왕동 왕경유적 2 (조서연구총서 73책)』.
 - 3)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미술관부지
國立慶州博物館, 2002, 『國立慶州博物館敷地內 發掘調査報告書 - 美術館敷地 및 連結通路敷地 - (國立慶州博物館 學術調査報告 第15冊)』.

4) 경주 안압지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1978, 『雁鴨池 發掘調査報告書』.
高敬嫻, 1994, 「新羅 月池 出土 在銘遺物에 對한 銘文 研究」, 東亞大學校 碩士學位論文.
國立慶州博物館, 2007, 『新羅文物研究』 創刊號. ⇒ 문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편, 2009, 『年報』 2008년 제19호. ⇒ 연보19

5) 경주 월성해자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6, 『月城垓子 發掘調査報告書 II -고찰-』.
전경효, 2017, 「신 출토 경주 월성해자 묵서목간 소개」, 『동아시아 고대 도성의 축조의례와 월성해자 목간(한국목간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전경효, 2018a, 「신 출토 경주 월성 해자 묵서 목간 소개」, 『목간과 문자』 20호.
윤선태, 2018b, 「월성 해자 목간의 연구 성과와 신 출토 목간의 판독」, 『목간과 문자』 20호.
전경효, 2021, 「2018년 출토 경주 월성 해자 삼면목간에 대한 기초적 검토」, 『목간과 문자』 27호.

6) 경주 전인용사지(현 인왕동 사지)

권택장, 2010, 「경주 전인용사지 유적 발굴조사와 목간출토」, 『목간과 문자』 6.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2013, 『傳仁容寺址 발굴조사 보고서 I·II』.

7) 경주 전황복사지

김희철, 2022, 「경주 傳황복사지 출토 문자자료」, 『新出土 文字資料의 饗宴【한국목간학회 제 37회 정기발표회】』.

8) 경주 향남동 376번지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8,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개교 20주년 기념) 발굴유물특별전』.
이용현, 2001a, 「경주향남동376유적 출토 목간의 형식과 복원」, 『新羅文化』 19.
金昌錫, 2001b, 「皇南洞376유적 출토 木簡의 내용과 용도」, 『新羅文化』 19.
黃尙周·安在皓·金鎬詳·朴光烈·金泰龍·皇甫垠淑·崔相泰·張曉星, 2002, 『慶州 皇南洞 376 統一新羅時代 遺蹟(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研究叢書 第 13 冊)』, 東國大學校 慶州캠퍼스 博物館.

9) 경주 향릉사 남측도로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8, 『皇龍寺 廣場과 都市 -향릉사 대지와 후대 유구 I』.

- 10) 김해 봉황동
釜山大學校博物館, 2007, 『金海 鳳凰洞 低濕地遺蹟 -408-2·10·11番地 宅地內-(釜山大學校博物館 研究叢書 第33輯)』.
- 11) 김해 양동산성
대성동고분박물관, 2020, 『김해 양동산성 집수지 유적(대성동고분박물관 학술연구총서 23책)』.
이수훈, 2020, 『김해 양동산성 출토 목간의 검토』, 『역사와 세계』 58.
- 12) 남원 아막성
조명일, 2021, 『장수 칠령산성·남원 아막성 출토 목간자료 소개』, 『2020년 신출토 문자자료와 木簡』, 국립문서문화재연구소·한국목간학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2, 『남원 아막성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13) 대구 팔거산성
화랑문화재연구원, 2021, 『대구 팔거산성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전경효, 2022, 『대구 팔거산성 출토 목간 소개』, 『목간과 문자』 28.
- 14) 부산 배산성
나동욱, 2018, 『부산 배산성지 출토 목간 자료 소개』, 『목간과 문자』 20호.
부산박물관·부산광역시 연제구청, 2019, 『釜山城址 I -2017년 1차 발굴조사 보고서-(부산박물관 학술연구총서 제61집)』.
- 15) 서울 아차산성
최인진, 2018, 『아차산성 발굴성과 및 목간 소개』, 『목간과 문자』 21호.
한국고고환경연구소·광진구청, 2020, 『아차산성 - 남벽 및 배수구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연구총서 제88집)』.
- 16) 안성 죽주산성
강형웅, 2011, 『안성 죽주산성 신라시대 집수시설 발굴 문자자료』, 『목간과 문자』 8호.
- 17) 익산 미륵사지
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1996, 『彌勒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I(國立扶餘文化財研究所 學術研究叢書 第13輯)』.

18) 인천 계양산성

李亨九, 2008, 『桂陽山城 發掘調査報告書』, 鮮文大學校 考古研究所·仁川廣域市 桂陽區.

19) 장수 침령산성

군산대학교 박물관·장수군, 2019, 『장수 침령산성Ⅱ - 침령산성 2~3차 발굴조사(집수시설)-(군산대학교 박물관 학술총서 69)』.

조명일, 2021, 「장수 침령산성·남원 아막성 출토 목간자료 소개」, 『2020년 신출토 문자자료와 木簡』, 국립문서문화재연구소·한국목간학회 공동학술회의 자료집.

20) 창녕 화왕산성

박성천·김시환, 2009, 「창녕 화왕산성 연지 출토 목간」, 『목간과 문자』 4호.

昌寧郡·慶南文化財研究所, 2009, 『昌寧 火旺山城內 蓮池(學術調査研究叢書 第74輯)』.

21) 하남 이성산성

金秉模·沈光注, 1991, 『二聖山城 <三次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學校博物館·京畿道.

金秉模·金娥官, 1992, 『二聖山城 <四次發掘調査報告書>』, 漢陽大學校博物館·河南市.

金秉模·尹善暎, 2000, 『二聖山城 7차 발굴보고서』, 河南市·漢陽大學校 博物館.

漢陽大學校博物館·河南市, 2001, 『二聖山城 : 第8次 發掘調査 報告書』.

22) 함안 성산산성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8, 『咸安 城山山城 I』. ※ 진주 1263~김해 1289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4, 『咸安 城山山城 II 發掘調査報告書(學術調査報告 第 27輯)』. ※ 가야27~보고서2-88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함안 성산산성(11차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6, 『咸安 城山山城 III(학술조사보고 제36집)』. ※ 보고서3-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함안 성산산성 제12차 발굴조사(현장설명회 자료집)』.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IV 제Ⅱ권 목간 및 목제품편』. ※ 가야1590~가야2956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4,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 V(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술연구총서 제62집)』. ※ 가야4685~가야4697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함안 성산산성 VI - 17차 발굴조사 보고서-(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보고 제70집)』.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7, 『韓國의 古代木簡 II(학술총서 제69집)』. ⇒ 목간 II

운천동사적비의 역사 환경, 판독 교정

하일식(연세대학교)

운천동사적비의 역사 환경, 판독 교정

하일식(연세대학교)

목차

I. 비석의 상태

II. 주변 절터와 출토 유물

III. 기존 판독 검토, 교정

IV. 비문 내용 · 성격 추정

I. 비석의 상태

이 비석은 부러진 파편의 하반부로, 1982년에 발견되어 이듬해 11월 충청북도 유형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지정명칭은 ‘청주 운천동 新羅事蹟碑’(이하 운천동비)¹⁾이다. 비문 후반부에 “壽(垂)拱二年歲次丙戌”이라는 구절이 있어 686년(신문왕 6)이라는 연도가 확인된다. 단, 이는 과거의 일을 언급하는 문장에 나오므로 비석을 세운 시점은 그 이후가 된다.²⁾ 그리고 비문 속의 “삼三韓而廣地”라는 구절은 삼국통일 후 신라인의 ‘三韓一統意識’을 표현한 것으로 곧잘 언급되었다.

그동안 비석의 연대를 대체로 7세기 후반으로 추정해왔으나, 10년 전에 나말려초로 추정한 연구³⁾가 나와서 기존의 이해를 재검토할 필요를 제기했다. 이후 ‘신라 삼국 통일론’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서 이 비석이 더러 거론되었고, 비석의 서체를 검토해 7세기 후반이라 판단하는 연구도 나왔다.⁴⁾

이 비의 연대 판단은 내용 파악과 밀접히 연관된다. 그리고 내용을 거론하기 위해서는 판독이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그동안 관련 연구가 여럿 제출되면서도 판독문은 대체로 발견 당시의 것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일찍이 비문을 다시 살펴본 글이 나오긴 했으나⁵⁾ 기존 판독문들을 비교 대조하는 정도였다. 비석의 연대 논쟁 과정에서 기존 판독의 몇 글자를 전혀 다르게 읽는 경우도 있었으나 수긍하기 어려웠다.

운천동비를 다시 살피게 된 동기는, 판독부터 내용까지 면밀한 재검토가 미흡한 상태에서 여러 논의들이 나오고, 그와 관련한 논쟁이 거듭 이어지는 상황이 바람직한가? 하는 회의적 생각 때문이다. 금석문은 당대의 텍스트로 역사 연구의 기초자료에 속한다. 기초자료에 관한 검토가 미흡한 채 이루어지는 연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비석이 발견된 당시의 정황을 다시

1) 事蹟碑나 寺蹟碑 어느 쪽이 적합한지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2) 문화재청 설명문 등에서 더러 686년에 세웠다고 쓰고 있지만 잘못이다.

3) 윤경진, 2013, 「청주운천동사적비의 건립 시기에 대한 재검토」, 『사림』 45.

4) 전진국, 2019, 「청주 운천동 신라사적비의 제작연대 검토」, 『한국사연구』 184.

5) 신정훈, 2003 「청주 운천동 신라사적비 재검토」, 『백산학보』 65.

추적하고, 주변의 역사 환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탁본을 보더라도 글자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므로 실물을 직접 살펴서 기존 판독에 문제가 있다면 교정해야 한다.

이 비석은 1982년 3월 차용걸 선생 일행이 충청북도 공무원의 언질을 받고 현장을 찾아 발견하였다.⁶⁾ 발견 직후 잠시 민가에 두었다가 충북대학교 박물관으로 옮겼다. 그리고 1987년 국립청주박물관이 개관할 때 이관되었다. 이후 청주박물관에서 글자가 많은 면이 보이게끔 받침대 위에 비스듬히 전시되었고 전시 위치도 몇 번 바뀌었다. 그러나 몇 년 전 상설전시실을 개편하면서 비석은 수장고로 들어갔다.⁷⁾

발견 당시의 학술지에도 사진이 실려 있지만, 당시의 인쇄 여건으로 앞면⁸⁾의 모습을 뚜렷이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청주박물관에 전시되던 동안에도 글자가 많이 식별되는 뒷면과 옆면은 볼 수 있었지만 반대쪽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의 한국사데이터베이스도 뒷면과 옆면의 탁본 이미지(조동원 탁본)만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청주박물관 수장고에 있는 비석을 직접 살펴보았다.⁹⁾ 그러나 여러 수장품들 사이에 눌혀진 비석의 뒷면과 옆면을 어렵사리 관찰하는데 그쳤다. 크고 무거운 비석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반대쪽을 보려고 뒤집을 만한 공간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문화재청 사업의 일환으로 간행된 책자에서 앞면의 사진을 확인했다.¹⁰⁾ 2019년 홍선스님의 탁본 작업 때 전시받침대에서 내려 바닥에 누워 찍은 것이었다.



[그림 1] 2019년 탁본 작업 때의 비석 앞면(국립문화재연구원)

그리고 국립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당시에 찍은 사진의 원본을 얻었다([그림 1]).¹¹⁾ 또 발견 당시

6) 발견 당시의 정황은 차용걸, 1983, 「청주 운천동 고비 조사기」, 『호서문화연구』 3,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원 소 및 이병도, 1983, 「서원 신라사적비에 대하여」, 같은 책에 서술되어 있다.

7) 현재 청주박물관 측에서는 다시 전시실에 내놓을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듯하다.

8)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뒤에 내용을 살펴볼 때 쓰기로 한다.

9) 청주박물관 이양수 관장의 배려로 2023년 1월 16일에 2시간 가량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10) 불교중앙박물관·문화재청, 2019, 『금석문 탁본 조사보고서(강원도Ⅱ·충청북도)』, p.43에 앞면 전체 사진이 작게 실려 있다.

정영호 선생이 작성한 비석 3면의 탁본과,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작성된 것으로 짐작되는 단국대 사학과와 탁본 모두를 단국대 석주선박물관에서 열람하고 촬영할 수 있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운천동비의 앞면은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앞면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작은 절구질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구덩이가 3개나 있었다. 최초 발견자들이 이런 점을 언급했지만, 제대로 찍은 실물 사진을 보니 놀라운 상태였다.

발견자는 마을 사람으로부터 이 비석이 빨랫돌로 쓰기도 하고 도살판으로 쓰인 적도 있다고 들었다.¹²⁾ 앞면의 도끼 자국들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구덩이 3개 중에 2개는 이어져 있어서 “과연 절구질에 쓰려고 판 구덩이일까?” 의아한 생각도 갖는다. 다만 표면 마모가 심하고 반질하게 닳아 있어서 “빨랫돌로 썼다”는 이야기는 수긍된다. 그런데 뒷면도 이에 못지 않게 부분적 마모가 심하고 반질하게 닳았지만 도끼 자국은 없다. 그래서 구덩이가 있는 앞면을 빨랫돌을 비롯한 여러 용도로 썼고, 다시 뒤집어서 공동 우물가에서 주로 빨랫돌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발견 당시 우물은 사용되지 않는 상태였고, 비석은 운천동 산적마을 입구의 작은 게시판 아래에 놓여 뒷면이 위를 보는 상태였다. 장소는 당시 지번으로 운천동 449번지였다. 이곳은 1980년대의 택지 조성으로 옛 지번이 사라졌고 원래 모습을 찾을 수도 없다. 그래서 청주 흥덕구청 지적팀의 도움으로 1970년대 지적도를 참고하여 발견 위치를 특정할 수 있었다.¹³⁾ 현재 흥덕구 사운로 249번길의 영송빌라와 세종빌라를 포함하는 블록으로 산적마을 어린이공원 놀이터 앞이다.

1970년대의 지형도를 보면, 이 위치는 서쪽의 낮은 산으로 오르는 작은 골짜기의 입구에 해당한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작은 도랑이 되어 이 지점을 지나거나, 우물을 파놓으면 물이 솟아나기 좋은 입지이다. 발견 당시에 가까운 민가 등에 몇 개의 석재들이 있긴 했으나,¹⁴⁾ 비석이 발견된 장소가 곧 이 비석이 세워진 절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가까운 거리에 절터가 여럿 있기 때문이다.

II. 주변 절터와 출토 유물

운천동비가 어딘가로부터 옮겨진 것이라면 원래 건립지를 추적해야 한다. 건립지는 역사와 인문지리적 환경을 비롯하여 비석을 만든 이들의 의도, 나아가 그 내용을 판단할 간접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¹⁵⁾ 실제로 운천동비가 발견된 청주 운천동, 조금 떨어진 흥덕사지, 그리고 남쪽의 사직

11) 충북대 김영관 선생이 비석 앞면 사진은 물론, 단국대 박물관의 탁본을 열람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12) 차용걸, 1983 앞의 글, p.9.

13) 옛 지번 몇 군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흥덕구청 지적팀 이종하 주무관의 도움을 받았다.

14) 차용걸, 1983 앞의 글, pp.13~14.

동에서는 많은 양의 퇴장유물이 출토되기도 했다. 이들 유적과 유물을 차례로 살펴본다.

운천동 절터

운천동비가 발견되기 10년 전, 운천동 376-1번지에서 동종을 비롯한 퇴장유물이 출토되었다. 운천동비가 발견된 곳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400m 가량 떨어진 곳이다.¹⁶⁾

1970년 4월 최용문이 집을 새로 짓기 위해 담장공사를 하던 중 지표 아래 70cm에서 뉘어진 범종이 발견되었다. 종 속에는 청동金鼓와 금동보살입상, 향완 2점, 놋쇠 바리 2점 등이 들어 있었다.¹⁷⁾ 어떤 사정으로 의도적으로 묻은 퇴장유물이었다. 이들 유물은 신고 즉시 수습되어 국립청주박물관으로 옮겨졌다가 1987년 국립청주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이관되었다.

이때 발견된 동종은 높이 64cm로 보존처리를 마친 뒤에 보물로 지정되어 청주박물관의 대표유물로 전시되고 있다. 발견 직후에는 고려 초기의 것으로 추정했다.¹⁸⁾ 그러나 이후 다른 범종들과 비교 검토하여 ‘통일신라 말인 9세기 후반 또는 그 이후’¹⁹⁾로 추정하고 있다. 금동보살입상의 연대도 대체로 나말려초로 추정한다.²⁰⁾

한편 동종 속에서 발견된 금고를 보존 처리하면서 뒷면에서 “己巳六月日句陽寺般子一重十三斤八兩棟梁道人惠長改造大匠仍及三”이라는 명문이 확인되었다.²¹⁾ 승려를 道人이라 칭한 사례는 6세기 진흥왕 북한산순수비 이래 고려시대까지 곧잘 보인다. 그래서 시대를 짐작할 단서가 되지 못한다. 한편 어떤 일의 책임자나 주도자, 혹은 시주자를 뜻하기도 하는 棟梁(樑)이란 표현은 고려 초기 이후의 금석문들에서 곧잘 보이며, 아직 통일신라기의 사례는 없는 편이다.

단, 이 새김글에서 ‘改造’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왔지만 더 이상 쓸 수 없는 器物들이 있었고, 이를 改造하여 금고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9세기 이후로 추정되는 동종은, 이 절터에 있던 사찰이 통일신라 이래로 고려시대까지 운

15) 하일식, 2019 「한국 고대 금석문의 발견지와 건립지」, 『한국고대사연구』 93 참조.

16) 충청북도, 1985, 『淸州雲泉洞寺址發掘調査報告書』, p.7에서 눈대중으로 150m를 언급한 뒤로 대부분 이를 반복해왔다. 그러나 측정 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운천동비 발견지와 운천동 절터는 직선거리로 350~400m이다.

17) 이 유물들의 발견 정황을 처음 소개한 것은 김영배, 1970, 「청주 운천동 출토 금동보살입상과 동종」, 『고고미술』 105이다.

18) 김영배, 1970 위의 글, p.20

19) 황수영, 1972, 「신라·고려 범종의 신례(13)」, 『고고미술』 113·114 ; 국립청주박물관, 2018, 『청주 운천동』 ; 김현정·김수기, 2007, 「보물 제1167호 청주 운천동 출토 통일신라 범종의 형태와 보존과학적 특성 고찰」, 『문화재』 40.

20) 김영배, 1970 위의 글, p.21 ; 국립청주박물관, 2018 위의 책, p.32.

21) 이는 충청북도, 1985 앞의 보고서도 언급한 바 있다. 판독은 국립청주박물관, 2018 앞의 책, p.16을 인용했다. 그런데 여기 실린 사진과 청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사진을 보면 句 자는 向 자일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

영되던 것임을 알려주는 유물이다.

이런 퇴장유물이 발견된지 10여 년이 흐른 뒤인 1984년 말, 1985년 봄 2차례에 걸쳐 청주대 박물관이 이 절터를 발굴조사했다.²²⁾ 운천동의 대규모 택지 조성사업과 함께 이루어진 구제발굴이었다. 이 절은 평지 사원으로 금당지, 탑지, 중문지, 남회랑과 동회랑지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새김글이 있는 기와들과 청동화로 다리 몇 개, 보살상의 머리 등이 출토되었다. 다만 택지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발굴작업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져 사찰 전체의 면모를 드러내지는 못했다.

이 절터 발굴에서 특기할 것은 파편을 포함하여 20점의 작은 도가니가 출토된 점이다. 입술 부분에 주물을 따르도록 홈이 파진 것도 있었다.²³⁾ 앞서 언급한 己巳명 금고에 ‘改造’했다는 표현과 직접 연관되는 유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금고는 이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바로 이 절에서 쓰던 것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금고의 새김글에 따라 이 절터를 ‘구양사지’로 부른 경우도 있지만,²⁴⁾ 보통은 ‘운천동사지’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한편 절이 유지되던 시기를 알려주는 유물로 元豐通寶가 출토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元豐은 宋 신종의 연호로 1078년~1085년에 해당한다. 또 ‘大觀(?)’명 기와도 출토되었는데, 大觀은 송 휘종의 연호로 1107년~1110년 사이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발굴보고서에서는 이 절이 10세기 전 후에 창건되어 고려 말 내지 조선 초기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했다.²⁵⁾

운천동 절터는 택지 조성이 끝난 뒤에 놀이터와 공원으로 남겨졌다. 현재 지번 ‘운천동 148’의 ‘절터어린이공원’이며 2010년 청주시에서 세운 ‘운천동사지’ 표지석이 있다.

흥덕사지

운천동 일대의 택지 조성사업으로 또 다른 절터 발굴이 이루어졌다. 운천동비 발견지에서 서남쪽 7시 방향으로 약 500m 떨어지고, 운천동 절터에서 서남쪽 8시 방향으로 700m 정도에 있던 연당리사지로 불리던 곳이었다. 긴급 발굴은 청주대 박물관이 맡아서 1985년 7월~10월에 이루어졌다. 그런데 발굴 과정에서 1377년(우왕 3)에 『직지심체요절』을 인쇄한 흥덕사가 있던 곳임이

22) 충청북도, 1985 앞의 보고서.

23) 도가니 안쪽에 청동을 녹인 쇠물이 남은 경우도 있었다(충청북도, 1985 앞의 보고서, p.65). 국립청주 박물관, 2018 앞의 책, pp.48~49에 복원처리된 깨끗한 도가니 사진이 실렸다.

운천동 절터 발굴보고서가 나올 무렵 흥덕사지가 확인되면서 이 절터를 흥덕사지에 부속된 일종의 주자소로 추정하기도 했다(충청북도, 앞의 보고서, p.58, p.65). 그러나 작은 도가니 파편들은 여기서 남쪽으로 600m쯤 떨어진 발에서도 나왔다(충청북도·청주대학교 박물관, 1986, 『청주흥덕사지-학술회의 보고서』, p. 131의 차용걸 토론 발언). 운천동 절터와 흥덕사지는 각기 독립된 사찰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하다.

24)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993, 『청주시역사유적』, p.207.

25) 충청북도, 1985 앞의 보고서, p.65.

확인되어 획기적 성과로 주목받았다.

홍덕사지 발굴을 통해 남북을 중심축으로 한 사찰임이 드러났고, 중문과 금당, 강당을 비롯한 부속 건물터 등이 확인되었다.²⁶⁾ 출토 유물로는 치미, 기와, 작은 종, 금강저, 작은龍頭를 비롯하여 들과 청동제품들이 많았다.

중요 유물들은 정확한 발굴 지점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발굴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미 절터 동쪽 경사면의 흙을 중장비가 깎아내어 옮기고, 낮은 지대를 평탄화하려고 쌓아둔 곳에서 발견된 것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일부 유물은 구제발굴이 거의 마무리된 후 금속탐지기를 동원하여 수습한 경우도 있었다.²⁷⁾

이곳이 홍덕사가 있던 곳임을 알려주는 禁口도 절터 동쪽의 훼손부에서 중장비가 파손한 파편이 먼저 발견되고 몸통은 뒤에 수습되었다. 이 금구에서 “甲寅五月日西原府興德寺禁口壺坐改造入重三十二斤印”이라는 새김글을 확인했다. 그리고 금속탐지기를 통해 청동龍頭 2점과 ‘興德寺’가 새겨진 청동佛鉢 뚜껑 1점도 발견되었다.

연도가 있는 유물도 출토되었는데, 서희랑지의 고막이 돌 사이에 자연석재와 함께 끼어 있던 기와에 “大中三年己巳”가 찍혀 있었다. 大中은 당 선종의 연호로 그 3년은 849년(문성왕 11)이다. 이는 홍덕사의 창건 연도를 생각할 때 시간적 하한이 된다.

홍덕사에서 출토된, 연도가 있는 또 다른 유물로 청동佛鉢이 있다. 발굴기간을 연장하고 금속탐지기를 동원하여 수습한 것인데 “皇統十年庚午四月日興德寺依止重大師領仁往生淨土之愿佛鉢一盒具銀雲口入重二斤二兩印”이 새겨져 있다. 皇統은 金熙宗의 연호로 8년으로 끝나고 1149년 帝亮이 즉위하면서 天德으로 바꾸었다. 그러나 홍덕사에서는 금나라 연호가 바뀐 사실을 모르고 계속 사용했던 것이다. 황통 10년은 1150년(의종 4)에 해당한다.



[그림 1] 大中三年己巳 명 기와

홍덕사에서 나온 禁口의 갑인년이 언제인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윤천동 절터의 금고처럼 홍덕사지 금구도 ‘改造’된 것이었다. 이 사찰에서 전래되던 오랜 器物을 다시 녹여 만들었던 것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西原府라는 지명이다. 이는 홍덕사지 금구의 연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를 淸州牧 설치 이전의 고려시대로 간주하고 있다.²⁸⁾

26) 청주대학교박물관, 1986 『청주홍덕사지 발굴조사보고서』

27) 청주대학교박물관, 1986 위의 보고서 pp.63~64에서 “유물들의 대부분이 사지에서 발굴된 것이 아니라 사지에서 150m 내지 30m 떨어진 여러 택지에서 발견되거나 수습된 것”이라고 밝혀두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윤천동비의 성격을 종합할 때 언급하기로 한다.

사뇌사지

1993년에는 윤천동에 가까운 사직동에서 주목할 만한 퇴장유물이 또 발견되었다. 이해 10월 청주시에서 무심천 제방도로를 확장하며 대형 철제 전신주를 옮겨 설치하려고 구덩이를 파던 중, 땅 밑 3m에서 많은 양의 청동 器物들이 겹겹이 포개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출토 유물들은 청주대 박물관이 수습했다가 곧 청주박물관으로 옮겼다. 첫 수습 과정이 체계적이지 못했기에 유구의 구조나 규모, 유물을 매납한 방법 등은 파악되지 않는다.²⁹⁾

유물이 출토된 위치는 사직동 270번지이며, 제방에서 무심천 쪽으로 내려가는 경사지였다. 현재의 제방은 근래에 무심천을 정비하며 축조된 것으로, 이전의 제방보다 다소 뒤로 후퇴한 상태이다. 그래서 유물이 출토된 곳은 당시의 자연제방 후면에 속하는 평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³⁰⁾ 그리고 토층 조사 결과, 유물 매장 당시는 지표에서 그다지 깊지 않게 지름 약 1.5m 안팎의 구덩이를 파고 묻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위적으로 포개진 유물의 매장 현상으로 보아 戰亂 등으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시의 매장유물로 추정된다.³¹⁾

영거불은 상태의 출토 유물을 조사하던 초기에는 수량을 361점 정도로 추정했으나 보존처리를 거치면서 400여 점에 가까운 것으로 밝혀졌다. 유물의 수 못지 않게 종류도 매우 다양했다. 반자·범종·금강령 등의 의식구, 향로·청동주전자·발우·접시 등의 공양구, 금동광배편·풍탁 등의 장엄구, 청동숟가락·청동국자 등의 생활용구 등이다.³²⁾

이들 유물에는 절 이름과 제작자(시주자) 이름 등이 새겨진 것들이 많다. 절 이름이 있는 것을 보면 ‘淸州牧官中校(授)思惱寺’가 새겨진 기름말(油斗), ‘淸州思內寺’ 등이 새겨진 향완과 향로 5개가 있다.

그리고 연도를 알 수 있는 것으로는 ‘太平十五年’이 새겨진 접시, ‘太和五年乙丑三月禪院寺’가 새겨진 향완, ‘統化十五年丁酉’가 새겨진鉢盂 등이 있다. 太平은 遼의 연호로 15년은 1035년(정종 1)이고, 太化는 金의 연호 泰和로 그 5년 1205년(희종 1)이 을축년이다. 統化는 遼의 연호로 그 15년은 997년(성종 16) 정유년이다. 庚申이라는 간지에 ‘戶長韓輶弼’이란 인명이 새겨진 향완도 있다.

28) 청주대학교박물관, 1986 앞의 보고서, p.68에서는 淸州牧이 설치되기 전인 954년(광종 5)으로 추정했다.

29) 김홍주, 1999, 「청주 사뇌사 유물의 발견 경위」 『고려공예전』, 국립청주박물관, pp.130~132 참조.

30) 신명희, 2014, 「청주 사뇌사 공예품 발견과 조사」 『청주 사뇌사 금속공예』, 국립청주박물관, p.18.

31) 신명희, 2014 위의 글, p.21 참조.

32) 최웅천, 2014, 「사뇌사 유물의 성격과 의의」 국립청주박물관 앞의 책의 분류를 요약했다.



[그림 II] 운천동 부근의 절터, 유물 발견지점

- ① 운천동사적비 발견지(1982년)
- ② 동종 등 출토지(1970년), ③ 운천동 절터 발굴지(1984, 1985년)
- ④ 흥덕사지 발굴지(1985년)
- ⑤ 청동 小鐘, 銅鉢, 철제술 파편, '皇統十年興德寺'명 禁口 수습
- ⑥ '興德寺'명 靑銅鉢 수습
- ⑦ '西原府興德寺'명 禁口 수습
- ⑧ 사뇌사 퇴장유물 출토지(1993년)

사뇌사가 새겨진 유물이 많으므로 이곳에 사뇌사가 있었다는 점에는 연구자들의 견해가 일치된다.³³⁾ 새김글로 보아 이 유물들은 대체로 고려시대의 것들이다. 그러나 이 점이 사뇌사가 고려시

33) 다만, 현재의 용화사와 관계에 대해서는 회의적 판단이 많은 듯하다.

대에 창건되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신라 통일기 이래의 역사를 가진 사찰이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한편 운천동 절터나 홍덕사지에서는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은 명문 기와들도 발견되었다. 운천동 절터에서 나온 ‘城’ 명 기와와 같은 기와는 청주읍성을 비롯하여 와우산성, 상당산성, 청주 성화동 유적과 학천리 환호유적 등에서 출토된 적이 있다.³⁴⁾ 또 홍덕사지에서 나온 ‘桂香之寺’ 명 기와는 우암산 서쪽 기슭의 관음사에서 발견된 적이 있다.³⁵⁾ 이들 기와는 이동에 의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 살펴 보았듯이, 운천동비가 발견된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는 3개의 절터가 확인되었다. 이들의 위치와 거리를 지도에서 표시하면 앞의 [그림 II]와 같다.³⁶⁾ 그러면 운천동비는 어느 절터에서 옮겨온 것일까? 옮긴 주체는 빨랫돌로 쓰던 산직마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운천동비 발견 지점에 별개의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산직마을 사람들이 부러진 채 놓인 비편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즉 운천동 절터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뇌사 부근에서 가져 오기에는 거리가 좀 멀다. 쓰임새를 생각한다면 그보다 가까운 산자락에 형성된 마을 사람들 눈에 먼저 띄었을 것이다. 홍덕사지를 생각해 도마찬가지이다. 산직마을에서는 홍덕사지가 산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 홍덕사지로 가려면 낮은 산자락 구비를 두세 번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운천동 절터에 있던 사찰에 세워졌던 비석이 쓰러지고 부러진 채 산직마을 입구까지 옮겨졌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만 그 시기가 조선시대였는지, 근대에 들어와서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III. 기존 판독 검토, 교정

이제 판독을 검토해본다. 앞서 비석의 앞면 실물 사진을 작게 실었으므로 탁본을 제시한다.³⁷⁾ 비석 발견 직후에 작성된 정영호 탁본이다. 이 면을 제1면으로 판단한 의견은 발견 당시에 이미 나왔다.³⁸⁾ 사진과 탁본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듯이, 오른쪽에는 가늘고 긴 홈이 파져 있다. 비석에서 글자가 있는 부분의 바깥에 외곽선을 새긴 것인데, 다른 비석에서 찾기 어렵고 진흥왕 창녕

34)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2014, 『청주읍성 성벽구간 발굴조사Ⅱ』, p.173.

35) 충청북도, 1985 앞의 보고서, p.72 및 청주대학교 박물관, 1986 앞의 보고서, pp.59~60.

36) 구글 위성지도를 흐리게 손질한 뒤에 표시하였다.

37) 재조사를 마무리하던 2023년 3월부터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지식e음]에서 2019년 홍선스님이 작업한 탁본 3면을 대형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연구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38) 차용걸, 1983 앞의 글, p.9 ; 이병도, 1983 앞의 글, p.19.

비(561)가 외곽선을 가진 경우이다.

그리고 비석의 아랫부분도 파손이 심한 편이지만 비축의 흔적이라고 판단할 만한 돌출부가 확인된다([그림 1] 참조). 앞면에서 비축보다 오른쪽에 글자가 새겨진 부분은 3행 정도이다. 이 부분은 뒷면에 그대로 적용된다. 뒷면의 왼쪽 문장들은 이 비석의 마지막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만, 앞면을 기준으로 왼쪽 옆면은 그런대로 글자를 확인할 수 있지만, 오른쪽 옆면은 파손이 심하여 글자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³⁹⁾ 앞면과 뒷면의 실물, 그리고 탁본을



[그림 2] 앞면 탁본(정영호, 석주선박물관)

같은 비율의 이미지로 대조해보면, 대략 앞면과 뒷면 각각 15행 정도를 새겼으리라 추정된다.

앞면

도살판의 도끼 자국, 절구질 웅덩이, 빨랫돌 등으로 쓰이면서 비면 상태는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 초기의 판독들은 꽤 많은 글자를 읽었다. 비면의 상태를 감안하면, 기존의 판독문이 너무 많은 글자를 읽어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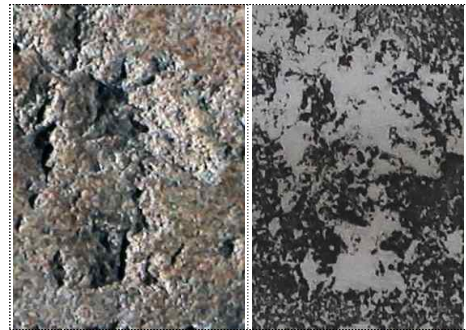
실물을 직접 관찰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판독을 재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3D스캔 등의 기계적 이미지를 분석한 뒤에 다시 검토할 기회가 오기를 기대한다. 더 정밀한 판단은 뒤로 미루고 싶지만, 여기서는 사진과 탁본을 참고하여 몇 개의 글자만 언급한다. 기존의 판독을 존중하되 되도록 추측하지 않으려 했다.

1행 : 기존 판독은 행의 윗부분에서 三寶 또는 三尊之를 읽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서는 六代之徽 또는 六代之徽經을 읽었다. 그러나 마지막 글자만 經 또는 終에 가깝게 식별된다.

2행 : 아래쪽을 國主大王으로 읽어왔다. 國은 안쪽의 획이 거의 사라졌지만 國으로 판독해도

39) 발견자들도 그렇게 판단하였다. 나는 오른쪽 옆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수장고의 다른 유물들과 바짝 붙여 놓여져 있어서 관찰이 불가능했다.

무리가 없을 듯하다. 主는 비교적 뚜렷하게 남았다. 그러나 大 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림 3]에서 보듯이 기존에 大 로 읽은 글자는 책받침(乚)을 가진 글자가 분명하다. 표면이 심하게 닳았지만 책받침 획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國主□王’으로 판단했다.



[그림 3] 앞면 2행 大(?)王

3행~13행 : 기존에 몇 글자를 읽은 경우가 있지만, 글자의 흔적밖에 인정되지 않는다.

14행 : 기존에 善天壽山長이라는 글자를 읽었다. 善은 풀일 가능성도 있다. 天은 두 번째 가로획의 존재가 부정적이고, 세 번째 획 ‘ノ’과 결구상의 경사도가 어색하다. 차라리 人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壽는 식별하기 어렵고, 山은 두 번째 획의 첫 부분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서 인정하기 어렵다. 長도 옆의 글자 흔적과 비교하면 윗부분이 지나치게 위로 돌출하여 큰 글자가 되어버린 셈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15행 : 上 자도 애매하지만, 그외에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앞면의 글자를 재검토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행 : 經(終)
 2행 : 國主□王
 14행 : 善(善) □ ...
 15행 : □ ...

앞면 판독은 불완전한 것이므로 향후 실물 관찰할 기회가 마련되면 다시 판단할 여지가 많다. 다만, 사진상으로도 알 수 있듯이, 비면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으므로 3D 스캔 등의 기자재를 활용해도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뒷면

이 면은 상대적으로 많은 글자를 식별할 수 있다. 표면은 많이 닳아서 반질거리며, 위쪽 표면은 파손이 심하고 아래쪽은 더욱 심하여 글자의 흔적이 사라진 부분이 많다. 기존 판독과 다른 부분만 언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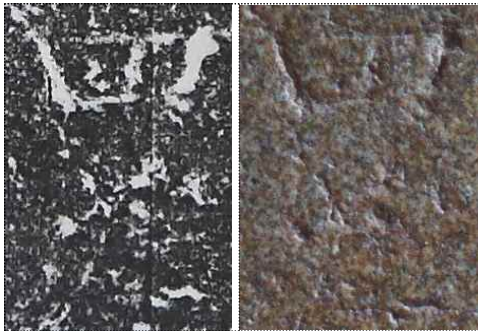
1행~2행 : 몇 글자를 읽은 견해들이 있으나, 비면을 살펴서 자획을 식별할 수 없었다.

3행 : 기존 판독의 趣皎皎而生에서 두 번째 皎자는 ‘丿’로 새겨졌다. 다음 글자를 而로 읽어왔으나 첫 획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四로 판독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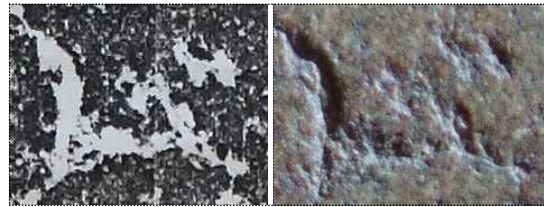
4행 : 기존 판독을 대체로 수용했다.

5행 : 이유를 알 수 없지만, 5행만 글자의 가로 정렬이 어긋나 있다. 대체로 7~10자를 河洛靈圖로 읽었다. 圖는 俗字體인 囙로 새겨져 있다.

6행 : 기존에 가장 많은 글자를 읽은 경우가 4~17자를 天德長流於四海義心宣揚於萬邦으로 판독했다. 내용 논란에서 이 부분이 거론되기도 했으나, 그 대부분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물 관찰과 탁본을 대조하여 天德, 流, 四 정도만 식별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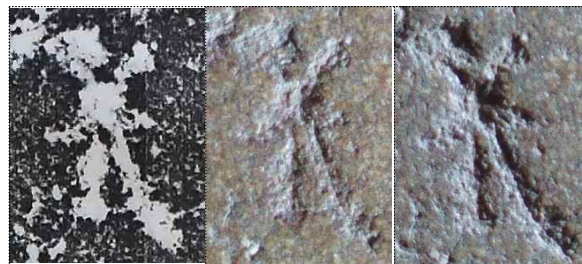


[그림 4] 6행 9·10자 四 ?



[그림 5] 6행 12자

海는 거의 마멸되어 좌변 ‘ㄱ’의 흔적만 겨우 인정할 수 있다. 위의 [그림 11]와 비교해보아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義로 읽어온 11자도, [그림 6]에서 보듯이 수궁하기에는 매우 어색한 모양이다. 초서체(義)를 상정하더라도 아랫부분이 義에 해당하지는 않아 판단을 보류한다.



[그림 6] 6행 11자

또 心으로 판독한 글자도 [그림 5]에서 보듯이 획이 이어지지 않으며, 특히 왼쪽은 心의 왼쪽 모양이라고 할 수 없다. 아래 부분을 萬邦으로 추독한 견해⁴⁰⁾를 따르는 경우도 있지만, 비면이 완전히 손상된 부분이다.

7행 : 흔히 5~14자를 蘭(扇)香盛而長流圖寶繹而로 읽어왔다. 그러나 蘭(扇) 자는 인정하기 어렵고, 香 자는 짝에 가깝다. 盛 자는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口 속에 획이 들어간 글자가 아닐까 한다. 나머지 글자는 대체로 기존 판독을 수용한다.

8행 : 5~8자를 善根具足門(歸), 11~14자를 於常行廻 또는 口而行廻로 읽어왔다. 善根具足은 분명하고 歸는 흐리지만 수용할 만하다. 常으로 읽었던 11자는 不 자로 보인다. [그림 7]에서 보

40) 이병도, 1983 앞의 글, p.20.

듯이, 常이라면 주변의 다른 글자와 비교하여 위로 반 글자 이상이 올라간 글꼴이 된다. 不자의 첫획 ‘一’ 위에 획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심하게 닳았지만 不자의 劃心은 선명하다. 行廻도 분명하다.

9행 : 몇 글자를 제외하고 기존 판독이 대체로 인정된다. 15자는 기존에 深, 梁으로 읽어들었다. 그러나 [그림 8]의 탁본과 실물 사진을 보면 선명한 澡자를 확인할 수 있다. 16자는 ‘𠂔’이 있는 글자임은 분명하나 윗부분을 파악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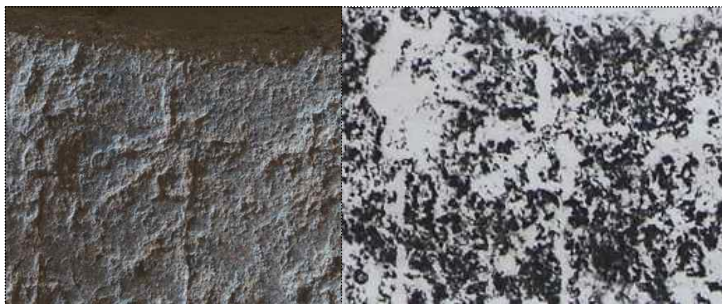
10행 : 글자 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어서 대체로 기존 판독을 존중할 수 있다.

11행 : 기존 판독이 대체로 인정된다.

12행 : 기존 판독을 대체로 존중하지만 마지막 글자는 윗부분 白자만 식별 가능하다. 기존 판독이 帛으로 읽은 것은 추독으로 생각된다.

13행 : 가장 상태가 좋은 편이다. 기존 판독의 대부분을 수용하지만, 최근에 나온 다른 판독 두 글자, 그리고 기존 판독의 오류 한 글자를 언급한다.

1자 耆는 “~한 것은”이라는 문장에 사용되는 耆로 자획이 선명하다. 최근 塔이라는 견해가 나왔으므로 주변 글자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사진을 제시한다. 또 9자를 이전의 모든 판독은 也로 읽어서 이론이 없었으나 최근 龜의 약자로 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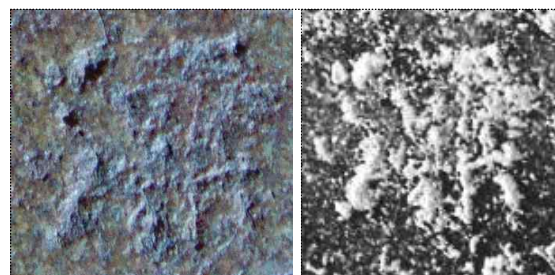


[그림 9] 13행 1자 耆

견해가 나와서 사진과 탁본을 함께 제시한다. 이 글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앞의 耆를 받아서 “~한 것은 ~이다”는 문장의 마무리 글자이다.



[그림 7] 8행 12자 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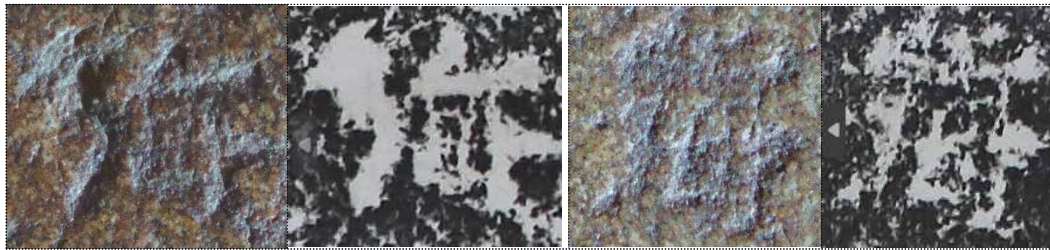


[그림 8] 9행 15자 澡

13행에서 중요하게 판독을 교정해야 할 글자가 기존에 海로 읽어온 11자이다. 최근에 이를 郷으로 읽는 견해도 나왔다. 그러나 [그림10]에서 탁본과 실물을 비교하거나, 10행 14자 海와 비교해보자. 이 글자는 海가 아니라 弥가 분명하다. 뒤에 해석하겠지만 『說苑』에 나오는 ‘文弥’라는 표현으로, 이어진 生知가 『논어』에 나오는 구절인 것과 같다.



[그림10] 13행 9자 也



[그림11] 13행 11자 弥와 10행 14자 海

14행 : 글자 상태가 깨끗한 편이고, 기존 판독을 대체로 수긍한다.

그런데 판독 교정과 무관하게, 11자 不에 대해 짧게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자는 탁본과 실물을 관찰하면 선명한 木 자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행의 글자들과 비교하면 위로 빠져나온 획이 가로 정렬선을 벗어나 위로 돌출된 모양이다. 위로 솟아난 세로 획처럼 보이는 부분을 만져보면 획이 아니라 날카로운 흠집이었다. 이 비석에서는 이런 종류의 흠집이 착시를 일으키는 경우가 두 세 군데 있다.



[그림12] 14행 11자 不

또 14행의 마지막 16자는 대체로 傳으로 판독해왔다. 아래쪽의 표면 파손이 심한 부분에 있는 글자이므로, 앞의 經자와 붙여서 經傳으로 추독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실물을 자세히 보면 좌변의 ‘亻’은 식별 가능하다. 그리고 우변을 살펴보면 象의 아랫부분으로 추정할 만한 흔적이 보인다. 그래서 이 글자를 囋으로 추독해두었다. 앞의 僅庇가 “겨우 ~를 덮다”는 뜻이므로, 像이 더 어울린다는 생각 때문이다.

15행 : 비문 전체의 마지막 행으로 비교적 많은 글자를 식별할 수 있으나 14행보다는 상태가 좋지 않다. 대체로 기존 판독을 수용하지만 기존에 意로 읽어왔던 10자는 불명자로 처리했다. 마지막 세 글자는 비문 손상이 심하여 탁본뿐 아니라 실물을 살펴도 선뜻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검토한 판독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행 : ...
 2행 : ...
 3행 : □□□□趣皎、四生...
 4행 : □□□□□遂燭□園 ...
 5행 : □ ... □□河洛靈囑□□□□□□□
 6행 : □□□天德□流□四瀾□□□□□□
 7행 : □□□□□審□□長流□寶釋而□□
 8행 : □□□固善根具足歸□□不行廻□□
 9행 : □□□豎鼓之場精□□□交兵澡□□
 10행 : 伐□□民合三韓而廣地居□海而□□
 11행 : 仁□倉府充溢民免飢寒之憂水土□□
 12행 : 丹穴委羽之君太平太蒙之長奉玉□
 13행 : 者沙門普慧之所造也文弥生知行□□□
 14행 : 壽拱二年歲次丙戌茅茨不剪僅庇經璽
 15행 : □化矣弟子海心法師□匠明敏清□□□

좌측면

사진과 탁본에서 보듯이, 좌측면은 3행이다. 각 행의 글자들을 가로열을 잘 맞추어 새기지 않은 듯하다. 글자의 크기는 앞뒷면보다 조금 작아 보이지만 3행 모두 비슷한 크기로 판단된다. 2행만 글자를 대체로 식별할 수 있고, 1행과 3행은 파손이 심하여 글자 획의 흔적은 보이지만 어떤 글자인지 식별하기는 어려워 논란이 된다.

1행 : 초기 판독에서 지금까지, 대체로 윗부분에서 ‘阿干’이라는 글자, 그리고 아랫부분에서도 ‘天仁阿干’을 읽어왔다. 신라 제6등 관등 阿湊이 阿干으로 표기된 시기는 주로 나말려초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 글자는 비석의 연대를 가늠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글자는 기존 판독을 인정하기 어렵다. 1행 윗부분에서 阿干으로 판독해온 부분의 탁본과 실물 사진들을 제시하면 [그림14]와 같다. 이 부분은 손상이 심하고, 특히 阿와 干 사이는 살짝 패여 있다. 기존 판독은 탁본으로 평면화된 상태만을 고려한 것이다. 阿干이라고 하기에는 글자도 작다. 그래서 1행 상단의 阿干은 인정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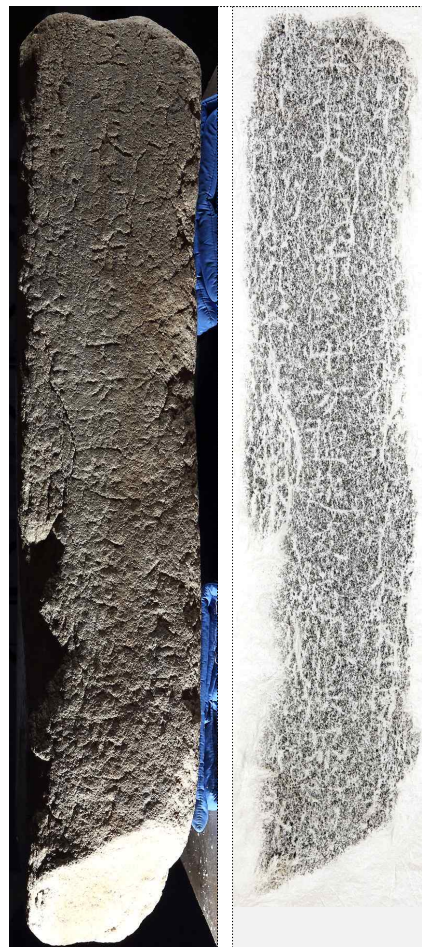
이보다 아래에는 마치 ‘人’ 자처럼 보이는 선명한 흔적이 있다. 기존 판독에서는 이를 글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붓으로 쓴 글씨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두 획이 모두 직선이기 때문이다. 단순한 흠집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기존에 天仁이라고 읽은 부분이다. [그림15]의 전체 글자 가운데서 이 부분을 글자로 인정하자면 크기가 너무 작다. [그림15]에서 보듯이 天 자도 어색하며, 仁 자도 어색하다. 二의 흔적을 인정하더라도 좌변과 글꼴이 어울리지 않으며, 특히 좌변 자체를 ‘亅’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불명자로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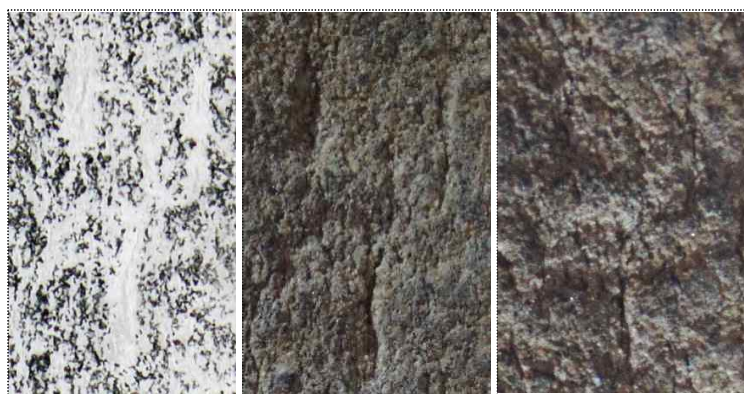
그 아래의 阿干을 살펴보면, 위에서 검토한 것과 비슷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림16]의 사진과 탁본에서 보듯이 그렇게 인정하기 어렵다. 불명자로 처리하였다.

2행 : 기존에 主聖大王炤亦爲十方檀越及道場法界로 읽어왔다. 그러나 실물을 살펴보면 王, 炤, 道, 場 자는 인정하기 어렵다. 간격이 너무 붙었고 글자 크기도 아주 작다. 특히 炤와 亦은 너무 가까이 붙은 모양이라서 炤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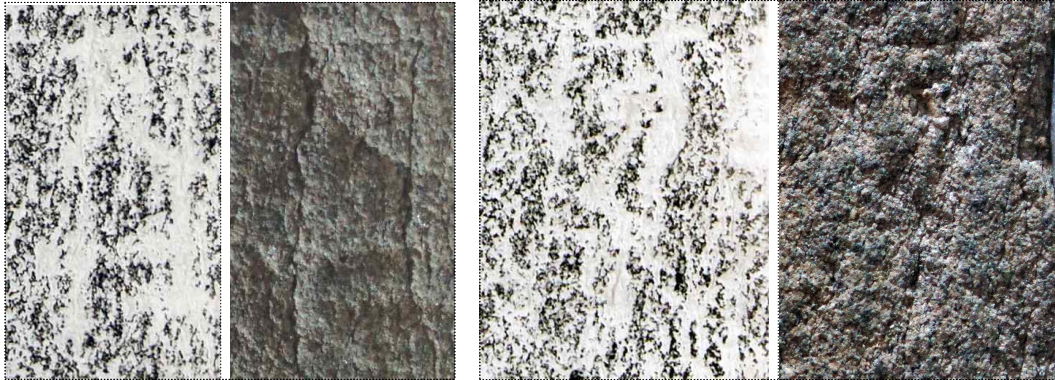
3행 : 글자의 흔적만 알아볼 수 있다.



[그림13] 좌측면 실물과 탁본



[그림14] 좌측면 상단 阿干 추정 부분(빛 각도를 달리한 사진)



[그림15] 좌측면 1행 아래(기존 天仁 추정)

[그림16] 좌측면 1행 아래(기존 阿干 추정)

위와 같이 판단하여 좌측면의 판독문을 다시 작성하면 아래와 같다.

- 1행 : ...
 2행 : 主聖大□□亦圖十方檀越及□陽法界□
 3행 : ...

IV. 비문 내용 · 성격 추정

부러진 상태로 절반 가까이 아랫부분만 남은 비편의 앞뒤와 옆면을 놓고 이런저런 해석과 판단을 내리는 것은 근본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누구든 이 한계를 넘지는 못하며, 주관적 상상의 범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나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준에서 나름대로 생각한 내용을 적어본다.

두괄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본다. 비문은 事蹟碑라기보다는 寺蹟碑, 곧 사찰의 창건에서 중창 등의 내력을 새긴 것이 아닐까 한다. 다만 그 내용은 오로지 사찰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를 지원하거나 후원한 국왕, 佛事를 주도한 승려, 또는 이 비를 세운 승려들이 尊崇하는 스승에 관한 이야기로 추정한다. 말미에 弟子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손상이 심한 면을 앞면으로 추정한 것은 2행 아래서 國主라는 글자가 보이기 때문이다. 사찰의 내력에 관한 일반적 이야기를 먼저 적고, 뒤에 국왕에 관해 언급하는 모양새는 어색하다고 판단했다. 뒷면에서 河洛靈圖 등 왕조의 창건과 관련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여러 갈래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고려 초기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통일 직후 무열왕 직계 후손이 이어지면서 이전과

다른 王統임을 내세우던 분위기 탓일 수도 있다.

善根具足은 이 사찰이 번성하게 된 배경을 불교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豎鼓之場 … 交兵澡 …”는 이곳이 전쟁터였음을 언급한 내용이다. 이는 삼국 통일전쟁, 후백제와 태봉(고려)의 각축 모두를 상정할 수 있는데, 전자에 비중을 두고 싶다.⁴¹⁾

“合三韓而廣地”와 “倉府充溢民免飢寒之憂”라는 구절은 비석의 연대를 생각할 때 중요한데, 신라의 삼국통일을 표현한 것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결과를 ‘廣地’라고 표현한 경우가 없다. 청주가 신라 영토가 되고, 그 결과로 이 지역에 왕경인이 이주하여 小京을 건설하며, 사찰이 조성되는 분위기에 걸맞는 표현이라 생각한다.

재정이 넉넉해져 백성이 飢寒의 걱정을 벗어났다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삼국사기』 문무왕 11년조에 실린 설인귀의 글과 문무왕의 답서에 들어 있는, 통일전쟁기 신라 백성이 겪은 어려움과 부합하는 내용이다. 당군을 몰아낸 뒤에 이런 상태를 벗어났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한다.

뒷면의 마지막 3행은 이 절의 造形 활동과 尊崇받는 승려에 관한 내용이라 추정한다. 13행 “者沙門普慧之所造也”는 “~는 사문 보혜가 만든 것이다”는 문장인데, 造는 사찰의 조성이나 사찰내 전각 또는 탑의 건립을 표현한 글자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작은 鐘이나 像, 石燈 같은 조형물에 해당할 것이다.

이어지는 “文弥生知行…”은 새로 판독 교정한 글자 弥를 포함한다. 文彌는 『說苑』 권19 脩文的 “德彌盛者文彌縟 中彌理者文彌章也”(덕이 두루 차 있으면 문채가 화려하고, 속에 이치가 차 있으면 문채가 두드러지는 것이다)에서 나온 말이다.⁴²⁾ 후대에 곧잘 彌文이라고도 보이는데 ‘화려하고 아름다운 글’ 또는 ‘지나치게 수식한 문장’이란 뜻으로 쓰인다. 그리고 뒤의 生知는 『논어』 季氏篇에 “孔子曰 生而知之者 上也 學而知之者 次也 困而學之 又其次也 困而不學 民斯爲下矣 生而知之 學而知之 困而知之”이라고 한 데서 나왔다. 공자가 높게 평가한 生而知之, 곧 타고난 지혜를 일컫는다.

운천동비 뒷면 13행의 “文弥生知行 …”이라는 구절은 “아름답고 훌륭한 글(문장)과 타고난 뛰어난 지혜를 행하여 …”라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 탁월한 역량으로 어떤 실천 행위를 한 주어는 누구였을까?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는데, 바로 앞의 “~者 沙門普慧之所造也”라는 구절과 연관되는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첫째, “文弥生知行 …”이 앞 구절과 무관하게 새로 서술되는 문장일 가능성이다. 그렇다면 “~는 사문 보혜가 조성한 것이다”로 끝맺고나서, 내용상 문단을 바꾸어 “아름답고 훌륭한 글(문장)과

41) 靑州, 靑川 등의 지명을 어떻게 비정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42) 『論衡』 권28 書解에도 “德彌盛者文彌縟, 德彌彰者人彌明”라는 문장이 있다.

타고난 뛰어난 지혜를 행한” 또 다른 행위자를 서술하는 시작인 셈이 된다.

둘째, “文弥生知行 …”이라는 구절이 앞 구절을 이어받아 서술되는 문장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는 사문 보혜가 조성한 것이다. (그는) 아름답고 훌륭한 글(문장)과 타고난 뛰어난 지혜를 행하여 …”로 맥락이 이어진다. 나는 이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판단한다.

이런 문장은 사적비의 앞면에 새겨지기보다는 뒷면의 마무리 부분에 새겨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비석의 이 면을 뒷면으로 판단하는 이유이다. 뒤에 이어지는 14행과 15행도 이를 뒷받침한다. 14행은 “壽拱(垂拱) 2년 丙戌에 절을 겨우 조성하여 겨우 經像을 가릴 정도”였다는 내용을 담았다. 비문 전체의 끝맺음 부분임을 감안하면, 대략 686년에는 조촐하게 절을 조성했으나 “그 뒤의 노력과 활동으로 지금과 같은 규모를 갖추었다”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한다. 그 노력의 주체는 沙門 普慧일 가능성이 높다.

15행 “…化矣弟子海心法師□匠明敏淸…”은 비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 “…化矣”로 어떤 상태나 교화가 이루어졌음을 서술한 문장으로 끝나고, ‘弟子海心法師’가 들어 있는 문장은 문단을 달리한 종결부인 듯하다. 앞서 어떤 승려의 업적을 거론한 뒤에, 그 승려의 제자 海心 法師가 이 비석이 세워질 시점의 佛事를 마무리했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匠 자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승려 海心은 學僧이라기보다는 기술적·예술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렇게 보면, 비문을 작성한 話者의 입장에서 뒷면 후반부를 짚어볼 여지가 생긴다. 海心은 비문 작성자가 아니라 서술의 대상이었다. 다만 비석 건립 시점까지 이루어진 여러 佛事를 마무리한 주역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海心은 비문 속에 서술된 어떤 승려의 제자였다. 海心이 앞서 서술된 普慧의 제자였는지, 또 다른 승려가 비석 윗부분에 언급되었는지는 모른다. 다만, 普慧의 활동을 포함하여 (또 다른 승려의 활동이 있는지는 불명) 여러 활동의 결과, 686년에 겨우 經像을 가릴 정도였던 사찰의 면모가 현격히 달라져 번듯한 규모를 갖추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여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

이 비석은 어떤 승려를 중심에 두고 작성된 것이었다. 말미의 弟子라는 표현은 그를 강하게 방증한다. 물론 어떤 승려의 활동을 기록하긴 했지만, 당시 사회에서 국왕을 칭송하고 받드는 문구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자연스럽다. 특히 국왕이 사찰의 창건을 크게 지원했다면 더욱 그럴 것이다. 좌측면의 첫 글자 主가 國主라면, 이 국왕도 十方檀越의 한 사람이었다. 이 절을 창건하고 가꾸는데 국왕의 지원이 크게 있었음을 알려주는 구절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나는 이 비석을 세운 시점은 686년 이후 2~3세대가 지난 뒤가 아닐까 추정한다. 수공 2년 丙戌이라는 간지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수백년이 지난 시점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연간지까지 거론할 필요가 없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686년은 서원소경이 설치된 이듬해이다. 여러 곳의 주민, 특히 왕경인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던 시

점이었다.⁴³⁾ 이와 동시에 새로운 사찰의 건립도 이루어졌음이 당연하다. 서원소경 설치 이듬해라면 겨우 經像을 가릴 정도 가릴 정도일지라도 사찰이 완공되기에 족하다.

비문의 좌측면은 讚 또는 頌에 해당하는 문장이라고 판단한다. 창녕 인양사비가 참고되는데,⁴⁴⁾ 頌은 僧像을 바라보며 좌측면에서 시작하여 우측면으로 이어져 끝난다. 운천동비의 경우 우측면은 손상이 심하여 글자가 확인되지 않지만, 우측면에도 글자가 새겨졌으리라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운천동비의 연대를 생각할 때, 좌측면의 阿干이라는 글자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착안하여 이것이 나말려초에 해당하는 표현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阿干이란 표기 자체는 『삼국유사』 왕력의 실성마립간, 원성왕, 기이편의 문무왕 법민, 효소왕대 죽지랑, 원성대왕, 신무대왕 염장 공파, 「가락국기」 등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이를 후대적 분위기로 표현된 탓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대의 표현을 담은 금석문에서도 더러 阿干이 보인다. 진흥왕 마운령순수비(668)에서도 이전의 ‘~干支’에서 支를 쓰지 않은 大阿干이 보인다. 창림사 탑지(855, 문성왕 17)에는 ‘檢校使 阿干 前執事侍郎 金元弼’이 있다. 황룡사 찰주본기(872, 경문왕 12)의 ‘執事侍郎 阿干 臣 金八元’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阿干을 기준으로 연대를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더 근본적 문제는, 앞서 판독을 검토할 때 언급했다. 즉 이번에 다시 조사하면서 탁본과 실물을 관찰한 결과, 이를 阿干으로 판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운천동비의 연대를 짚을 때 거론되는 또 하나가 뒷면 6행의 四海라는 표현이다. 당에 事大하던 신라인이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조선시대 주자학자들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도 이런 표현이 더러 쓰였다는 점도 확인된다. 四海는 『조선왕조실록』에 초기부터 수없이 나온다. 『고려사』에서도 찾을 수 있고,⁴⁵⁾ 『삼국유사』⁴⁶⁾와 『삼국사기』⁴⁷⁾에도 나온다. 더구나 6행의 海 자는 판독 자체가 불분명한 글자이기도 하다.

신라 지배층은 통일 직후 9州를 갖추고, 靺鞨과 報德國 사람들까지 포함하여 9誓幢을 편성했다. 신라왕의 지배력이 미치는 지역을 나뉘대로 온전히 독자적 세계임을 자처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춘추에게 태종무열왕이라는 시호를 받친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황복사 석탑기」(706, 성덕왕

43) 서원경에는 왕경인 중에서 沙喙部 사람들이 이주해 있었다(하일식, 2011, 「신라 왕경인의 지방 이주와 編籍地」 『新羅文化』 38 참조).

44) 하일식, 1996, 「昌寧 仁陽寺碑文의 研究-8세기 말~9세기 초 신라 지방사회의 단면-」 『한국사연구』 95.

45) “朕纂服祖宗 司牧黎庶 臨四海之逾廣” 『고려사』 권12, 세가 권12 예종 총서.

46) “汝爲冢宰均理百官平章四海” (『삼국유사』 기이 제2 문무왕법민). 『삼국유사』 의해 제5 賢瑜珈海華嚴의 일연 讚에도 四海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

47) 이를 고려시대 사람들의 표현으로 간주할 여지도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5)와 「백률사석당기」(헌덕왕 10, 818)에서도 天下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신라인의 세계관은 이분법적으로 단순하지 않고 다면적이고 복잡적이었다.

삼국이란 표현을 가지고 三韓一統 의식의 형성시기를 논하여 운천동비의 연대를 고려 초기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보다 이전인 890년(진성왕 4)의 「월광사 원랑선사비」에는 “昔我太宗大王 痛黔黎之塗□ □□海之□□ 止戈三韓之年 垂衣一統之日 被□□□之□ 永除□□之災”라는 구절이 있다. 운천동비와 매우 비슷한 분위기로 무열왕의 공적을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운천동비의 연대를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그동안 연구에서 소홀했던 측면을 언급한다. 흥덕사지와 사뇌사지 유물을 통해 ‘西原府興德寺’라는 새김글이 여럿 확인되었는데, 고고학이나 미술사 연구자들은 오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중요하게 주목하지 않았다. 역사 연구자들도 깊이 검토하지 않고 있는 없는 듯하다.

흥덕사지 발굴보고서는 ‘西原府興德寺’이 새겨진 유물을 고려 성종대에 12牧의 하나로 淸州牧이 설치되기 이전이라고만 판단했다. 그리고 그 이전의 府는 旗田巍의 견해에 따라 고려 초기 호족의 거점으로 간주했다.⁴⁸⁾ 그러나 1989년에 나온 연구에서, 신라시대에 이미 府가 설치되었음이 실증되었고 「보림사 보조선사비」에 西原部가 나오는 것도 밝혀졌다.⁴⁹⁾ 소경이 언제 府로도 불렸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정토사 법경대사비」에는 고려 초에 中原京이 中原府로 불렸던 것도 확인된다.

그래서 ‘西原府興德寺’라는 새김글이 있는 청동 金鼓 등이 신라 말의 것일 가능성이 짙다는 점을 언급해둔다. 더욱이 고려 후기 眞覺國師 慧諶의 語錄에 ‘四月西原府思惱寺安居’라는 글이 있다.⁵⁰⁾ 이때는 淸州牧이란 명칭이 자리잡은지 오랜 시점이다. 아마 사뇌사가 있는 곳이 西原府로 불릴 때부터의 오랜 관행에 따라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운천동비는 신라말에 이 지역이 서원부로 불릴 때 세워졌을까?

앞서 운천동 절터의 유물과 흥덕사지 출토 유물에 ‘改造’라는 표현이 들어 있음을 주목했다. 前代부터 전해온 오랜 器物들이 더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녹여서 다시 만든 것들이다. 그래서 운천동비 주변의 사찰들은 서원경이 서원부로 불리던 시점보다 앞서 운영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무렵에 사찰의 면모를 제법 갖추면서 寺蹟碑로 세워졌던 것이 운천동비가 아니었을까 추정한다.

발표문 작성 때는 최근 10년간의 연구를 꼼꼼히 다시 정독하지 못해서 각주가 거칠다. 선입견을 가지 않으려고 정독을 뒤로 미루었고, 오래 전에 읽은 기억으로만 언급했다. 양해를 구한다.

48) 旗田巍, 1972 「高麗王朝成立期の府と豪族 - 郡縣制度の性格の一端 -」, 『朝鮮中世社會史の研究』, 法政大出版部(1960 『法制史研究』 10에 첫 게재).

49) 배종도, 1989, 「新羅下代の 地方制度 개편에 대한 고찰」 『學林』 11, 연세대학교 사학연구회.

50) 五臺山月精寺藏版, 1940, 『眞覺國寺語錄』, 普濟社, p.40.

<참고문헌>

- 忠淸北道, 1985 『淸州雲泉洞寺址發掘調査報告書』
- 청주대학교 박물관, 1986 『淸州興德寺址』
- 청주대학교 박물관, 1986 『淸州興德寺址:學術會議 報告書』
- 국립청주박물관, 1999 『고려공예전』
- 청주시·청주고인쇄박물관·청주대학교박물관, 2005 『홍덕사지의 어제와 오늘(홍덕사지 발굴 20주년 기념 학술회의)』
- 국립청주박물관, 2014 『청주 思惱寺(금속공예Ⅰ)』
- 국립청주박물관, 2014 『청주 思惱寺(금속공예Ⅱ)』
- 국립청주박물관, 2015 『청주 思惱寺(금속공예Ⅲ)』
- 국립청주박물관, 2018 『청주 윤천동』
- 차용걸, 1983 「청주 윤천동 고비 조사기」 『호서문화연구』 3,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 이병도, 1983 「서원 신라사적비에 대하여」 『호서문화연구』 3
- 임창순, 1983 「청주 윤천동 발견 신라사적비 淺見 二三」 『호서문화연구』 3
- 신정훈, 2003 「청주 윤천동 신라사적비 재검토」 『백산학보』 65.
- 이우태, 2014 『한국금석문집성7-신라3 비문3 (해설편)-』
- 윤경진, 2013 「청주윤천동사적비의 건립 시기에 대한 재검토」 『사림』 45
- 윤경진, 2016 「三韓一統意識의 성립 시기에 대한 재론-근거 자료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175
- 윤경진, 2019 「신라의 영토의식과 삼한일통의식」 『역사비평』 126
- 윤경진, 2019 「청주윤천동사적비의 건립 시기와 건립 배경-최근 비판에 대한 반론과 추가 판독-」 『한국사연구』 186
- 전진국, 2019, 「청주 윤천동 신라사적비의 제작연대 검토」 『한국사연구』 184.
- 김창겸, 2004, 「신라 국왕의 황제적 지위」, 『신라사학보』 2
- 김창석, 2005, 「통일신라의 천하관과 대일(對日) 인식」, 『역사와 현실』 56

